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방언 감정 표현의
유형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김 신 자

2022년 8월

제주방언 감정 표현의 유형 연구

지도교수 최 대 희

김 신 자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6월

김신자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송 현 정

위 원 신 우 봉

위 원 최 대 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22년 6월



A Study on the Types of Emotional Expression in Jeju dialect

Kim Sin Ja
(Supervised by professor Choi, Dae Hee)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2022.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Choi, Dae Hee, Prof.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
.....
.....

.....
Dat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제주방언 감정 표현의 유형 연구

김 신 자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최 대 희

이 연구는 제주방언에 나타난 감정의 유형을 크게 분류하고, 이 분류를 다시 하위 범주로 나누어, 제주방언 감정 표현을 유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주어사전을 (ㄱ)~(ㅎ) 까지 면밀히 조사하여 검토하였고, 활용된 자료는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양전형(2020)의 「제주어용례사전Ⅰ」, 양전형(2021)의 「제주어용례사전Ⅱ」, 양전형(2022)의 「제주어용례사전Ⅲ」, 「제주어구술자료집(1~28)」 등이 있다.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주방언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감정의 유형을 크게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사랑’, ‘미움’, ‘놀라움’ 등 7가지로 분류하였고, 다시 이 유형들을 각각 하위 범주화하였다. 예를 들어 ‘기쁨’이라는 유형으로 크게 분류하고, 기쁨을 다시 ‘즐거움, 신명남, 만족감, 감동, 편안함, 자신감, 희망, 반가움, 시원함’ 등으로 다시 하위 분류하였다. 이렇게 분류한 후, 감정의 유형을 다시 품사별로 분류하였고, 해당하는 단어와 예문 등을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제주방언 감정 유형의 논의를 통해 드러난 제주방언 감정 표현의 언어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방언이 다른 지역의 방언과는 달리 투박하고 거친 분노 감정의 어휘가 가장 많았다. 그 이유는 외부와 철저히 격리된 섬이란 지형 조건과 환경의 차이도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외부로부터 수많은 침략과 수탈,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제주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온통 저항과 방어 의식이 강하다보니 어투가 더 격해지고 투박할 수밖에 없다는 것

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제주방언에는 한 어간의 어형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서 동의적 표현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제주방언 감정언어에 유사한 어휘가 많다는 것은 마을마다 다른 어휘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다. 추정해 본 결과, 그건 넓은 공간에서 상호 간 소통하게 만들어진 생활 공간이 아닌 협소한 작은 지역에서 일상생활이 많았기 때문이라 짐작되었다. 셋째, 제주방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휘들 중 표준어나 외래어가 제주어화 된 것을 제외하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제주방언은, 제주 속에서만 독립적으로 사용되어지며 오랫동안 전래되어 오고 있는 언어이다보니 다른 지방 사람들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독특하고 독창적인 언어가 포함되어 있었다. 넷째, 제주방언은 시청각적 이미지가 강하고, 은유적 표현이 빈번히 드러나는 감정 표현이 있다. 제주인들이 사용하는 제주방언을 유심히 살펴보면 많은 언어들이 그 형태나 행동이 눈에 보이는 듯하고 소리까지 느낄 수 있게 하였다. 그 외 제주방언은 지금은 사라진 중세국어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고어(古語)들이 많이 남아 있고, 특히 ‘아래아(·)’가 남아 있는 어휘들이 많기 때문에 고어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된다. 또한 제주방언은 반복어와 흉내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주방언은 같은 말을 거듭 반복함으로써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는 어휘들이 아주 많다. 반복 표현은 주로 의성어나 의태어에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 이는 흉내 대상의 다채로움을 보다 생동감 있게 표현하거나, 혹은 감정 상태를 격하게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고 있다. 또한 제주방언에는 다른 지역보다 몽골어 차용이 많고 한자어가 많이 쓰이는 것은 많은 선비가 유배나 제주에 부임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하면, 이 연구는 제주방언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표준어와 제주방언의 감정 비교 연구의 첫 단계라고 본다. 위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대화할 때 주의 집중을 선행하고 필요한 감정을 적절하게 발화함으로써 표현이 제대로 전달되고 수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이 의사소통 과정에서 제주방언을 사용하는 언중들이 상황마다 어떤 유효적절한 감정언어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유효적절한 감정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다. 게다가 제주어 사전 분석을 통해 감정 단어의 목록을 구성하여 제주방언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단어별로 범주화하여 비슷한 범주의 어휘 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핵심어: 제주방언, 감정 표현, 유형, 언어적 특성, 감정언어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1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1
2. 선행 연구 검토	2
3. 연구 방법과 구성	6
II. 감정 범주화의 이론적 고찰	11
1. 감정의 정의와 특징	11
2. 감정의 분류	15
2.1. 기본 감정	15
2.2. 기본 감정의 하위 분류	22
III. 제주방언 감정 표현	28
1. 기쁨을 나타내는 표현	28
2.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	40
3. 분노를 나타내는 표현	52
4. 두려움을 나타내는 표현	75
5.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	85
6. 미움을 나타내는 표현	93
7. 놀라움을 나타내는 표현	103
IV. 제주방언 감정 표현의 언어적 특성	113
1. 감정 표현의 빈도	113
2. 감정 표현 형태의 다양성과 특이성	115
3. 감정 표현 어휘의 독창성	119
4. 감정 표현의 이미지와 은유	122
5. 기타 특성	124

V. 결론 128

<참고자료> 133

<Abstract> 136

<표> 목 차

<표 1> 감정의 정의	11
<표 2> 감정의 특징	13
<표 3> 희로애락	17
<표 4> 칠정의 감정	18
<표 5> 철학적 접근에서의 기본 감정	19
<표 6> 심리학적 접근에서의 기본 감정	20
<표 7> 김향숙(2001), 기쁨 하위어의 사전적 개념	23
<표 8> 김향숙(2001), 기쁨의 하위 범주	23
<표 9> 김향숙(2001), 기본 감정의 하위 범주	24
<표 10> 제주방언 감정 표현의 하위 범주	26
<표 11> ‘기쁨’을 나타내는 감정 단어 개수	40
<표 12> ‘슬픔’을 나타내는 감정 단어 개수	52
<표 13> ‘분노’를 나타내는 감정 단어 개수	75
<표 14> ‘두려움’을 나타내는 감정 단어 개수	84
<표 15> ‘사랑’을 나타내는 감정 단어 개수	93
<표 16> ‘미움’을 나타내는 감정 단어 개수	103
<표 17> ‘놀라움’을 나타내는 감정 단어 개수	111
<표 18> 제주방언에 나타난 감정 단어 분석 결과	111
<표 19> 김순자(2020), ‘큰섬’과 ‘작은섬’의 분화 양상	125

I. 서론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이 연구는 제주방언에 나타난 감정 표현을 분류하여 제주방언 감정 표현을 유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감정 표현은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이라 할 만큼 인간 자체나 삶과 분리될 수 없고 추상적인 영역에 속하기에, 어떤 언어 표현들보다 내적 경험과 사고 과정에 맞물려 있다. 또한 감정 표현은 주관적 영역에 뿌리박고 있으면서도 상황이나 외부의 세계와도 연결되어 있다. 이 점에서 제주방언에 쓰이고 있는 감정 표현을 논의한다는 것은 제주 사람들의 사고 작용과 감정의 움직임을 살펴본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그 지역 사람들의 감정과 정서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지역의 방언이다. 방언은 그 지역 사람들만의 언어로 표현되는데, 지역의 역사, 지리, 풍속, 생활 양식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방언은 사람이 나고 자라면서 듣고 사용하는 언어이므로, 우리들의 사고 작용과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제주방언 감정 표현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제주방언 언어 공동체 구성원들 의식 밑바탕에는 제주방언에 대한 부정적 시각, 무관심, 표준어 문화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 등의 열등감이 적지 않게 작용하다보니 제주방언을 잊어버린 결과가 되어버린 게 현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방언의 회복과 보전은 제주방언 언어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존심 회복과 보전이라는 실존적인 과제가 되는 것이다. 제주방언이 소멸하게 되면 그 제주방언을 사용하던 제주 지역민들의 정신적 정체성도 약화된다. 또한 제주방언과 방언 문화가 다른 지역 언어와 문화에 흡수되어 소멸해 버리면 방언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없어지게 된다. 소멸 위기의 제주방언을 회생시키고 보전하는 일은 곧 제주방언 언어 공동체 구성원 자신들의 정신적 존재와 전통문화 보전이라는 실존적이며 생태학적인 명제

이다. 또한 방언은 국어사 연구에서도 살아있는 자원 혹은 문헌으로서 과소평가할 수 없다. 제주방언은 한정된 지역에서 발생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 사람들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 즉 그들만의 특유한 정서, 역사, 생활 문화, 자연환경, 풍속 등을 언어를 통해서 엿볼 수 있다.

이러한 감정 표현은 언어를 통해 구현되는데, 일반적으로 ‘기쁘다, 즐겁다, 화나다’ 등 감정을 언어 자체에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직접적 표현’과 ‘웃다, 울다, 찡그리다’ 등 감정을 표현이나, 몸짓, 억양, 강세 등 언어의 부수적 요소에 드러내는 ‘간접적 표현’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을 살펴보면, 대체로 감정을 직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은 한정되어 있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보다는 간접적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이 현실에서는 많은 듯하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제주방언 감정 표현의 언어를 면밀히 조사하여 분류하고, 제주방언에 나타나는 감정 표현의 유형을 살펴보고 제주방언 감정 표현의 언어적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2. 선행 연구 검토

제주방언 감정 표현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를 다룬 선행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감정 표현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는 김선희(1990), 임지룡(1999, 2006), 김향숙(2001), 김은영(2004), 권순영(2005), 박미숙 외(2012), 문금현(2012), 국남(2012) 등이 있다.

김선희(1990)에서는 감정을 지각, 감각과 구별하면서 감정 동사를 그 속성에 따라 셋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행복하다’, ‘기쁘다’와 같이 어떤 대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느낄 수 있거나 느낌의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경우, 둘째, ‘사랑하다’, ‘부럽다’와 같이 감정의 대상을 전제하는 대상에 의존적인 경우, 셋째, ‘노엽다’, ‘고맙다’처럼 대상에 의존적이면서도 그 대상한테 감정을 발생시키는 자극이 있는 경우가 그것이다. 감정 동사의 고유 자질에 내재된 심리 현상으로는 경험주의 자기

동일성, 다른 이와 관계에서 비롯되는 우열, 경험주의 기준치에 따른 상하, 대상에 대한 수준과 관련한 충족·부족, 감정에 수반되는 쾌감·고통, 그리고 당위성의 문제, 생리적 변화 등을 들었다. 이 논의에서는 감정을 나타내는 여섯 가지 대표적 표현을 가지고 다양한 검증을 시도하였지만, 풍부한 감정 어휘는 다양한 감정 의미만큼이나 실현상의 제약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한계가 있다.

임지룡(1999)에서는 신체 부위와 그에 따른 감정 표현을 인지언어학의 입장에서 설명하여 감정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신체 부위별로 감정 표현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이들 논의는 감정과 감각이라는 영역이 연결되는 과정을 명백히 밝히지 못했다.

김향숙(2001)에서는 동양과 서양에서 기본 감정의 설정을 비교하여 감정 표현에 나타난 감정을 크게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사랑’, ‘미움’ 등 6가지로 분류하고 각 분류에 해당하는 하위 범주를 정의하였고, 감정의 표현 양상, 개념 은유, 의미 속성, 신체어적인 특징을 통해 감정 표현의 관용어를 살펴보았다. 특히 감정 표현 관용어의 신체어를 500여 항목으로 분석하였다.

김은영(2004)에서는 한국어 감정 동사의 범위를 규정하고 서양과 동양에서 기본 감정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조사한 다음에 감정의 유형을 ‘동정’, ‘수치심’, ‘노여움’, ‘기쁨’, ‘좋아함’, ‘슬픔’, ‘두려움’, ‘싫어함’, ‘바람’의 영역으로 나누었다.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와 동사를 모두 ‘감정 동사’로 규정한 다음에 ‘즐겁다, 기쁘다, 재미있다, 신나다’와 ‘무섭다, 두렵다, 겁나다, 섬뜩하다’ 등 감정 동사의 의미 차이를 공기 관계로 분석하였다. 명사와 같이 탐구했기 때문에 분석하는 작업이 방대해지나 감정 동사의 의미 차이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연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모든 감정 동사들에 대해서 실현되는 조건들을 상정하여 그 연접 양상을 밝히는 작업이 쉬운 게 아니어서인지 유의 관계에 있는 감정들의 의미 차이를 단지 ‘기쁘다’와 ‘무섭다’ 어휘만 분석해서 아쉬움이 있다.

권순영(2005)에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의 관용 표현에 관한 연구와 감정 표현에 관한 연구들을 참고하여 ‘기쁨’, ‘분노’, ‘슬픔’, ‘두려움’, ‘사랑’, ‘미움’으로 정리되는 6가지 기본 감정 분류에 ‘고마움’, ‘후련함’, ‘초조’, ‘부끄러움’을 첨가하여 10가지의 감정 범주를 설정하고 긍정적과 부정적으로 감정 관용 표현 목록을 제시하였다.

임지룡(2006)에서는 ‘화’, ‘두려움’, ‘미움’, ‘사랑’, ‘슬픔’, ‘기쁨’, ‘부끄러움’, ‘긴장’

등 8가지의 감정 개념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 결과를 통하여 감정 표현이 언어적으로 어떻게 생리적 환유와 은유로써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감정 표현과 신체, 생리적 반응과 연결하였기 때문에 감정 표현을 분류할 때 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게 되었다.

박미숙 외(2012)에서는 한국어 감정 표현 단어의 목록을 제작하여 각 감정 표현 단어가 어떤 감정 범주에 속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는 감정 표현 단어 목록을 제작하기 위해 ‘한국어의 어휘 빈도’ 자료집에 나온 감정 단어를 추출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감정 단어 총 504개를 뽑아 목록을 제작하였다. 이 504개 감정 단어를 ‘슬픔’, ‘분노’, ‘기쁨’, ‘놀람’, ‘공포’, ‘혐오’, ‘지루함’, ‘흥미’, ‘통증’, ‘중성’ 10가지로 분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8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각 단어가 어느 감정 분류에 속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 어휘를 여러 대학생의 판단을 통해 분류하는 것에는 장·단점이 있다. 여러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어휘를 분류한 것은 사람이 각 어휘를 볼 때 실제로 느끼는 감정을 반영하는 장점이 있지만,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리며 객관적인 기준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다.

문금현(2012)에서는 한국어에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말하기 교육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감정 표현 어휘장의 유형을 긍정적인 ‘기쁨’, ‘만족’, ‘호의’, ‘기타’, 부정적인 ‘불쾌’, ‘괴로움’, ‘반감’, ‘실망’, ‘외로움’, 중립적인 감정 표현인 ‘기대’, ‘놀람’, ‘기타’ 등 유형으로 나누었고 단어 총 139개를 뽑았고 말하기 교육을 위한 담화 모형을 제시하였다.

국남(2012)에서는 임지룡(2006)과 김향숙(2001)의 연구를 참조하여 두 연구 중에 똑같은 감정 분류를 벗어나게 하거나 따로 제시하여 감정을 ‘기쁨’, ‘사랑’, ‘두려움’, ‘슬픔’, ‘미움’, ‘분노’ 등 6가지로 분류하여 감정 표현 의태어를 분석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논문의 감정 표현 분류를 보면 1990년대부터 2012년까지 기본 감정을 설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연구자마다 설정한 기본 감정의 유형도 다르다. 감정의 유형이 다양하지만 비슷한 맥락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감정 표현의 유형을 설정할 때 주로 동양과 서양의 기본 감정을 참조하여 긍정적인 감정과 부

정적인 감정을 설정하였다. 둘째, 지금까지 감정 표현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주로 기존의 연구를 참조하여 선행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감정 유형을 설정하였지만 기준이 없이 감정 분류를 설정한 연구도 있다. 셋째, 감정 표현을 추출한 다음에 객관적과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감정 표현을 분류하는 방법이 있다.

제주방언에 대한 연구는 소창진평(小倉進平, 1911년)¹⁾에서부터 비롯되어 많은 학자들에 의해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형태·통사론적 연구로는 이승녕²⁾, 현평효³⁾, 성낙수⁴⁾, 강정희⁵⁾ 등에 의해 주로 연구되어 왔고, 어휘론적 연구로는 박용후⁶⁾, 현평효⁷⁾, 강영봉⁸⁾ 등이 있고, 문법 분야에서는 문순덕⁹⁾을 들 수 있다. 이들 연구는 주로 개별 언어 영역에 대해 이루어져 왔고, 문법 분야에서는 활발히 논의되는 일부 분야만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어휘론 분야에서도 명칭이나 단어의 의미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제주방언 자료집으로는 석주명(1947)의 「제주도 방언집」, 박용후(1960, 1988)의 「제주방언 연구(자료편)」과 현평효(1962, 1985)의 「제주도 방언 연구 (자료편)」, 또 이를 바탕으로 나온 제주도(1995)의 「제주어 사전」, 송상조(2007)의 「제주말 큰사전」, 현평효·강영봉 편저(2014)의 「표준어로 찾아보는 제주어 사전」, 양전형(2020)의 「제주어용례사전Ⅰ」, 양전형(2021)의 「제주어용례사전Ⅱ」, 양전형(2022)의 「제주어용례사전Ⅲ」 등이 있다. 또한 제주방언의 부정 표현 연구(문순덕, 1999), 의지 감탄사인 의지, 응답, 부름 등을 간투 표현으로 다룬 글과(문순덕, 2005), 「말하는 제주어」(강영봉, 2017)¹⁰⁾는 동사 116개, 형용사 46개, 명사 57개, 부사 25개, 그리고 감탄사와 관용 표현 12개 등 총 256개 항목을 881개의 예문을 곁들여 언어 수필 형식으로 그 뜻과 용례를 쉽게 풀어내고 있다. 또한 제주방언 감

1) 소창진평(1981), 「南部 朝鮮의 方言」, 第一書房.
 2) 이승녕(1985), 「제주도방언의 형태론적 연구」, 국어학연구총서 5, 탑출판사.
 3) 현평효(1985), 「제주도방언연구(논고편)」, 이우출판사.
 4) 성낙수(1975), 「제주도 방언의 통사론적 연구」, 국어국문학 pp.68-69, 국어국문학회.
 5) 강정희(1988), 「제주방언 연구」, 한남대학교출판부. 강정희(2005), 「제주방언 형태 변화 연구」, 도서출판 역락.
 6) 박용후(1988), 「제주방언연구 (자료편)」,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7) 현평효(1962), 「제주도방언연구1 (자료편)」, 정연사.
 8) 강영봉(1993), 「제주도 방언의 동물 이름 연구」, 경기대 박사학위 논문. 강영봉(2007), 「제주 환경지역의 언어와 생활」, 태학사. 강영봉(2011), 「제주표선지역의 언어와 생활」, 태학사. 강영봉(2015), 「제주어 제주사람 제주문화 이야기」, 각.
 9) 문순덕(2003), 「제주방언 문법 연구」, 세림.
 10) 강영봉(2017), 「말하는 제주어」, 한그루.

정 표현 감탄사의 담화 기능(문순덕, 2018)을 다룬 연구는 있으나, 제주방언의 감정 표현을 전반적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제주방언이 제주 사람들의 사고 작용과 감정의 움직임에 가장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살아있는 언어로서 존재 가치를 느끼고, 제주방언을 사용하는 언중들이 상황마다 어떤 감정언어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제주방언 감정 표현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유형에 따라 언어적 특성을 제시할 것이다.

3. 연구 방법과 구성

이 연구의 연구 대상은 제주방언 감정 표현이다. 즉, 제주방언에 포함되어 있는 직, 간접적인 감정 표현인 것이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주관적인 감정을 배제하기 위해 ‘사전’이라는 자료를 참고하였다. 이러한 감정 표현을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1) 사전을 통한 어휘 조사 분석

먼저, 제주어 관련 사전에서 감정 표현과 관련된 단어를 (ㄱ)~(ㅎ)까지 면밀히 조사하여 추출할 것이다. 제주어 관련 사전은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이다.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은 “여러 요인으로 전래의 제주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함에 따라 일실되기 전에 이에 대한 체계적 조사와 수집을 통하여 사전으로 발간하여 제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승시킴과 동시에 국어학 연구 자료로 보급·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주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업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강영봉 외 6명의 분야별 조사·집필위원이 구성되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 진행되었으며, 이 사전은 현평효 「제주도 방언연구, (1962)」를 근간으로 삼아 재조사된 어휘와 문법 사항을 추가하여 발간했던 「제주어사전, (1995)」을 개정·증보한 것이다.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은 제주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제

주문화를 이루는 말이면 모두 대상으로 하여 전문어나 동·식물의 이름은 물론, 짧은 구절 따위들도 올려 제주주문화를 이해하는 데 이해를 도우려 했다. 또한 ‘제주말 표기법’과 ‘한글맞춤법’을 참고로 해서 제주말적인 소리에 따른 꼴이 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였고, 세력이 있는 말들을 대표 형태로, 나머지는 변이형태로 다루었다. 또한 어휘의 꼴이가 끝난 뒤에는 지역이 쓰였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쓰이면 그 지역의 이름을 [노형, 용담] 따위로, 전 지역을 두루 통해 쓰이면 [전역]으로 하여 나타냈다.

2) 품사별 분류

다음으로, 추출한 단어를 감정별로 분류한 후 품사별로 분류하여 예문을 제시할 것이다.¹¹⁾ 예를 들면, ‘눈웃음, 보람, 스망, 상날, 우시게, 우시게소리, 우시겻소리, 우스겻소리, 웃음, 웃음건지, 웃음거리, 웃음벨탁, 웃음벨탁이, 웃음차데기, 웃음차자기, 웃음차제기, 웃음타다기, 웃음타자기, 제수치레, 지꺼짐, 지뽀, 초마수, 훈톡’

11) 감정 단어 추출 및 구분

① 현재 발간되어 상용되고 있는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에서 감정 표현과 관련된 단어들을 (ㄱ)~(ㅎ) 까지 추출하고 기본 감정(‘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사랑’, ‘미움’, ‘놀라움’)과 기본 감정의 하위 분류 감정(기쁨 - 즐거움, 신명남, 만족감, 감동, 편안함, 자신감, 희망, 반가움, 시원함 등)을 구분하였다.

② 이 연구는 선택한 어휘들 중 단어의 기본 의미에서 감정 표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관련 어휘가 언어 외적인 상황과 문맥에 따라 발화될 경우 화자·청자의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까지 포함하였다. 또한 객관성이 부족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직접 발화를 통한 감정이 애매하다고 느껴지는 어휘의 경우, 해당 단어가 어떤 상황과 필요에 알맞도록 창조되어진 소통의 언어인가를 다수의 제주방언 사용 실례 등을 통하여 유추하면서 연구·분류하였다.

③ 감정 단어 자체에 동적(動的)인 감정이 드러나 있는 경우 외에도, 단어만 놓고 봤을 때 객관적인 감정의 느낌이 없거나 정적(靜的)인 단어라도 일상생활 대화 속에서 감정이 유발된다고 연구자의 판단이 서는 단어도 포함하여 감정을 분류하였다.

④ 다의성을 내포한 단어의 경우 비교적 크게 공감되는 감정으로 분류하였고, 그 작업에서는 연구자의 주관적 분류도 다소 동반될 수밖에 없음을 밝혀 둔다.

⑤ 예를 들어 형용사 ‘늠삭훤다’, ‘등겁다’, ‘듬삭훤다’, ‘베지근훤다’, ‘코시롱훤다’ 등인 경우 어휘만 놓고 보면 감정의 느낌이 감지되지 않지만, 대화의 소통에 발화될 때 음식의 부정적인 기류가 아닌 ‘맛’의 특징적인 만족이 느낌대로 분명하게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의 하위 범주인 「만족감」으로 분류하였다.

등은 ‘기쁨’이라는 감정으로 분류하고, 품사는 ‘명사’로 분류할 것이다.

3) 예문 제시를 통한 의미 분석

마지막으로, 품사별로 분류한 단어들을 예문을 제시하여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할 것이다. ‘웃음벨타이’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사름덜 웃음벨타이¹²⁾ 나온다. 주례도 우수한 생인고라. (사람들은 깔깔거리며 즐긴다. 주례도 우스운 모양인지.) (용례사전Ⅱ, p.124)

(1)은 ‘웃음벨타이’의 예로 ‘웃음벨타이’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큰소리로 웃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옛날 결혼식 풍경을 짐작할 수 있는데, 신랑, 신부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을 고양시키면서 ‘기쁨’의 하위 범주인 ‘즐거움, 신명남’이 드러나 있다. 제주방언에는 동의적 표현이 빈번히 드러나는데, ‘웃음벨타이’도 ‘웃음거리, 웃음건지, 웃음벨타, 웃음발타, 웃음벨택이, 웃음차데기, 웃음차자기, 웃음차제기, 웃음타다기, 웃음타자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방법으로 분류한 단어들의 예문을 제시할 것이다. 예문을 추출한 자료집은 양전형(2020)의 「제주어용례사전Ⅰ」, 양전형(2021)의 「제주어용례사전Ⅱ」, 양전형(2022)의 「제주어용례사전Ⅲ」, 「제주어구술자료집(1~28)」에서 예문을 추출하였고, 부족한 부분은 문헌, 설화, 민속, 무가, 전설, 민요 등 참고로 하였다. 이때 제주방언 표기는 「제주어구술자료집(1~28)」, 「제주어용례사전ⅠⅡⅢ」에 실린 인용문으로 ‘제주어 표기법’에 따른 것이고, 다만 수록되어 있지 않은 인용문은 제주어 표기법에 맞게 실제 언중들이 사용하는 예로 들었음을 밝혀 둔다.

이 연구에서 예문을 추출할 자료집은 양전형(2020)의 「제주어용례사전Ⅰ」, 양전형(2021)의 「제주어용례사전Ⅱ」, 양전형(2022)의 「제주어용례사전Ⅲ」으로 일상에서 사용되는 대화체 예문 속에 문학을 가미한 ‘말거리’와 ‘읽을거리’를 제공하면서 각 품사의 원형과 원형 외에도 자연스러운 활용 속 대화체 그대로 어구풀이도 하고 제주방언 특유의 첨사들도 자세히 구분하여 제주도 내에서 지역적으로 달리

12)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p.696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532

사용되는 동의어나 유사어도 다 동등하게 인정하여 지역별로의 말 구분 없이 나열하고 뜻풀이도 하면서 예로부터 지금까지 소통되고 있는 모든 제주방언의 사용 실례를 예문화하였다. 또한 「제주어구술자료집(1~28)」은 2014년부터 2016년 3년 동안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이 36개의 조사 마을을 지정하여 채록한 「제주어 구술 채록 보고서(1~37)」가 바탕이 되었다. 이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가 기존에 조사된 자료를 보완하고 표준어로 대역하였다. 제보자는 조사 당시 80대 이상의 조사 지역의 토박이를 대상으로 삼았고, 조사는 조사자와 제보자가 제주방언으로 묻고 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료집은 자연 발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과 감정 표현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서 논의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조사 주제는 ‘조사마을, 제보자 일생, 밭일, 들일, 바다일, 의생활’ 등 12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것이므로 실제 언중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감정 표현의 용례들을 살펴보기에 적합하였다.

이러한 연구 방법을 고려하여, 제주방언에서 나타나는 감정 표현에 대한 유형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하였다.

I장은 이 연구에서 제주방언에 나타난 감정 표현의 언어를 분류하여 제주방언 감정 표현의 유형을 살피는 데 목적을 밝혔다. 또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제주방언 감정 표현의 언어를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가 없어서 감정 표현과 관련된 개별 표지들을 살펴볼 것이다.

II장은 감정의 개념과 특징을 파악해 볼 것이다. 감정의 정의와 특징을 바탕으로 감정의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해보고, 동·서양에서의 감정 분류 방식을 살펴보고 기록 하겠다. 동양에서의 감정과 서양에서의 감정을 비교하고 정리하여 ‘희로애락’과 ‘칠정’ 같은 동양적 감정을 중심으로, 감정과 표정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선구자이자, 21세기 영향력 있는 심리학자인 에크만의 6개 감정으로 대변되는 서양적 감정과 다른 학자들의 논의를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감정의 분류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동·서양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감정으로 나타나는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사랑’, ‘미움’, ‘놀라움’과 같은 7가지 감정을 파악하고, 기본 감정의 하위 영역을 객관적으로 분류하여 제주방언의 정서적 특성과 잘 맞는 김향숙(2001)¹³⁾의 연구에서 시행된 유형별 분류를 근간으로 삼고, 세분화하여 고찰할 것이다.

13) 김향숙(2001), 「한국어 감정 표현 관용어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Ⅲ장은 제주방언 감정 표현의 언어를 구체적으로 살피고 감정 표현과 관련된 단어를 추출하기 위해 제주어 사전을 (ㄱ)~(ㅎ) 까지 면밀히 조사하여 검토할 것이다. 분석한 자료는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이다. 제주어 사전에서 감정언어를 추출한 다음, 이를 감정별로 분류한 후, 품사별로 분류할 것이다. 또한 제주방언 감정 표현의 용례들을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해 「제주어용례사전 I(양전형, 2020)」, 「제주어용례사전 II(양전형, 2021)」, 「제주어용례사전 III(양전형, 2022)」, 「제주어구술자료집(1~28)」에서 예문을 추출할 것이고 부족한 부분은 문헌, 설화, 민속, 무가, 전설, 민요 등 참고로 하겠다. 이때 제주방언 표기는 「제주어용례사전 I II III」, 「제주어구술자료집(1~28)」에 실린 인용문으로 ‘제주어 표기법’에 따를 것이고, 다만 수록되어 있지 않은 인용문은 제주어 표기법에 맞게 실제 언중들이 사용하는 예로 들것임을 밝혀 둔다.

IV장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제주방언을 사용하는 언중들이 상황마다 어떤 감정언어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제주방언 감정 표현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유형에 따라 언어적 특성을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 V장은 이 연구에서 밝힌 내용을 요약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며 마무리하겠다.

II. 감정 범주화의 이론적 고찰

1. 감정의 정의와 특징

「표준국어대사전」은 ‘감정(感情)’을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이라고 정의한다. 감정을 지칭하는 말로는 일반적으로 ‘희노애락(喜怒哀樂)’이라고 하여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등의 감정을 가리킨다. 이러한 감정은 언어에 의해 직접적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언어 속에 포함된 억양, 강세, 운율 등과 목소리, 몸짓, 동작 등의 간접적인 표현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이러한 모든 표현을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감정은 오랫동안 다양한 학문 분야의 관심 대상이었다. 철학에서부터 시작하여 심리학, 생리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언어학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학자들이 감정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애써왔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감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된 하나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많은 학자들이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다. 감정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므로 그 실체를 몇 가지 어휘를 사용한 언어적 틀로 규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동안 축적되어 온 연구들의 내용을 토대로 감정의 개념과 특징을 파악해 보겠다. 먼저 감정에 대한 수많은 정의 중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감정의 정의

학자	감정의 정의
James(1884)	흥분을 일으키게 하는 사실을 지각하자마자 곧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나는 신체적 변화에 대한 느낌이 바로 감정이다.
Izard(1972)	감정은 신경생리학적, 운동-표현적, 현상학적 측면을 가지는 복합적인 과정이다.
Brenner(1975)	왜나 불쾌 또는 이들 둘 다에 대한 감각 그리고 그 감각에 수반된 의식적, 무의식적 생각이 감정이다.

Lazarus(1991)	감정은 주관적 감동, 적응 행동을 위한 중 특유의 생리적 변화, 그리고 수단적인 동시에 표현적인 특성을 갖는 행위 충동이라는 세 개의 주요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동요이다.
Plutchik(1991)	감정은 자극에 대해 추론된 복합적인 반응들의 연쇄로써 인지적 평가, 주관적 변화, 자율체계 및 신경세포의 각성, 행동 충동성 그리고 복합적인 연쇄를 유발시킨 자극에 영향을 주도록 고안된 행동을 포함한다.
Philip-Johnson Laird(1991)	감정은 의식 경험과 다양한 신체적, 내분비적 변화, 특징적인 표현과 행동을 함께 수반한다.
Petrovsky (1993)	감정은 개인의 평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행동에 주체의 태도나 가치 부여가 수반되는 것이다.
Ortony, Clore, and Collins(1998)	감정은 사건(일), 행위자 또는 대상이 관심을 끄는 정도에 대한 반응으로 감정의 특질은 그 감정을 유발하는 상황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임지룡(1999)	감정은 인과관계의 일환으로 감정을 유발하는 사건으로 인해 어떤 감정 상태가 되고 그것이 생리적, 신체적인 반응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 체계를 가진다.
김향숙(2001)	감정은 개인의 평가에 의해 결정되며, 신체의 감각적 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정신상태를 지칭하며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사물을 파악하는 기능을 한다.
김은영(2004)	감정은 대체로 어떤 자극을 전제로 해서 발생하되 의식적 의도와는 무관하게 발생하며 감정 주체의 내적 경험에 의존한 주관적 반응이다.
이지영(2009)	감정은 인간이 내적 또는 외적인 자극에 의해 마음속으로 느끼는 것이다.

<표 1>¹⁴⁾에서 제시된 정의는 학자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감정에 대한 많은 공통점을 포괄하고 있다. 감정은 어떤 사건이나 일에 대한 반응으로써 일어난다는 점과 감정 발생은 우리 몸의 생리학적 변화를 수반한다는 점, 그리고 감정의 발생과 해석에 있어서 감각과 인지적인 요소가 개입된다는 점 등이 위의 정의로부터 추론 가능하다. 감정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은 감정이 무엇인지를 기술하기 위해 감정에 대한 짧은 정의를 내리는 대신 <표 2>와 같이 감정의 특징을 제시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방식은 감정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항목화하여 보여주므로 감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14) 박권생(2003), 「감정심리학」, 학지사, pp.43-45 인용.

15) 김은영(2004), 「국어 감정 동사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재인용.

<표 2> 감정의 특징

학자	감정의 특징
Harbert Rohracher(1976) ¹⁵⁾	① 감정은 정신적인 상태이다. ② 감정은 의식적인 의도의 가담 작용 없이 나타난다. 이것은 여하한 의식적 의도 없이, 원하지 않는 데도 나타난다. 따라서 감정은 자발적으로 생성되는 것이다. ③ 감정은 외적 혹은 내적 사상에 대한 정신적 반응이다. 이 정신적 반응의 원인은 대개 의식적이다. 우리는 무엇에 대해 기뻐하며, 왜 슬퍼하는지, 왜 노여워하는지를 알고 있다. ④ 대개의 감정은 유쾌하거나 불쾌하게 체험된다. 그러나 예외적인 감정도 있는데, 후회나 연민의 감정이 불쾌하거나 유쾌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김명훈, 정영운 (1991) ¹⁶⁾	① 감정은 주관적이고 전체적이다. ② 습관적 행동 이외의 모든 지각에 감정이 따른다. ③ 감정은 자극이 오면 비교적 빨리 최강도에 달하고 곧 서서히 하강하는데 최강도의 상태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④ 감정은 차츰 약해감에 따라 반대의 감정으로 옮겨간다.
김은영(2004)	① 감정 표현은 의미의 연결성이 있다. ② 감정 표현은 정도성의 의미 특성이 있다. ③ 감정 표현은 비의도성 소극적 통제성을 가진다. ④ 감정 표현은 경험성과 평가성을 가진다.
James and Michelle (2015) ¹⁷⁾	① 감정은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추론된다. ② 통상적으로 감정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③ 감정은 인지, 느낌, 행동 경향성을 포함하지만 이 중 하나 또는 두 성분을 포함하는 감정도 일어날 수 있다. ④ 감정은 상황에 대한 실제적 혹은 잠재적 반응을 포함하는데 많은 상황에서 인간이 적응적으로 기능하도록 해준다.

위의 감정의 정의와 특징들을 살펴본 결과 비의도적, 주관적, 경험, 생리적·신

16) 김명훈·정영운(1991)에서는 ‘감정’ 대신 ‘정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제시한 특징 외에도 다음과 같은 특징도 기술하고 있다.

- ① 자극이 오면 비교적 빨리 최강도에 달하고 곧 서서히 하강하는데, 최강도의 상태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우리가 화를 낼 때에는 천천히 시작하지 않는다. 울컥 화가 났다가 차차 약해진다.
- ② 여러 번 정점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데, 동일 강도의 계속이 아니고 파상을 이룬다. 적개심을 품었을 때 그것이 일정한 상태로 지속되지 않는다. 화가 났다가 차츰 약해지다가 다시 생각하면 화가 또 북받쳐 오른다. 동경이나 희망을 품었을 때도 그 태도가 강했다가 어떤 때는 약해지고 또다시 강해지기도 하는 것이다.
- ③ 감정은 차츰 약해감에 따라 반대의 감정으로 옮겨간다. 슬픈 일을 당했을 때 한동안 울고 나면 속이 후련해진다. 즉 희비가 교차하게 된다.

17) 민경환 외(2015), 「정서심리학」, 박영스토리.

체적 변화, 자극, 순간적, 일시적, 정신적 등으로 결부된다. 이를 통해 감정이란 습관적 행동을 제외한 모든 지각에 나타나는 것으로, 비습관적이고, 주관적이며, 전체적인 것이다. 또 감정은 과정이 아닌 어떤 정신적 ‘상태’이며, 의식적 의도와는 무관하게 발생하고, 내·외적 사상에 대한 정신적 반응이며, 대개는 유쾌하거나 불쾌한 것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감정은 무엇보다도 ‘비의도적’이고 ‘주관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감정이 비의도적이라는 것은 감정의 발생이 의식적 사고 작용과는 무관하다는 것으로, 이는 ‘사고’의 작용인 ‘인지’와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이다. 또한 감정이 ‘주관적’이라는 것은 감정의 발생이 개인적인 ‘경험’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똑같은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감정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감정 주체마다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정은 감정 주체의 ‘경험’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¹⁸⁾

위와 같이 감정은 자기 자신의 내적인 ‘경험’과 관련 있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라는 말은 할 수 있지만 2인칭이나 3인칭을 주어로 사용하여 직설법 현재형을 사용하면 비문법적 문장이 된다. 즉 “당신은 기쁘다”, 또는 “저 사람은 기쁘다” 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신을 제외한 상대방이나 제삼자의 감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직설법 현재형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감정이란 자신의 내적 경험을 통해서 느끼는 주관적인 것이다. 그리고 감정은 심신 양면에 걸쳐 전체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며, 역동적이고 시간적인 경과를 보인다. 즉 어떤 감정 상태가 일어나면 그것은 곧 생리적·신체적 변화가 일어나서 신체 외부의 변화를 유발하게 되며, 이것이 원인이 되어 긴장 해소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고, 감정이 발생하기도 한다. 요컨대, 신체 변화와 감정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¹⁹⁾ 또한 감정이 내·외적 사상에 대한 정신적 반응이라는 점은 감정이 어떤 자극을 전제로 하여 발생한다는 것을 말한다.²⁰⁾ 감정의 발생은 생리적·신체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도

18) 김홍수(1989)에서는 ‘내적 경험’ 개념을 상정하여 심리동사가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9) 감정이 신체와 관련이 있다는 점은 철학, 심리학, 감성 공학 등 모든 분야에서 감정의 중요한 특성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국어학적인 연구로는 임지룡(1999, 2006) 참조.

20) 홍대식(1993:471)에서, 감정(정서)들은 대개 외부 사상에 의해서 유발되며, 감정 반응들은 이러한 사상에 의해 지향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감정이 외부 자극에 의해 유발된다고 보는 견해는 심리학, 사회학 등에서 일반적인 사실로 받아들인다.

하고, 감정 주체의 요구 수준에 의한 심리적인 사항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기도 하며, 타인과의 관계에 의해서, 혹은 문화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한다.

어떤 감정은 신체에서 그 원인이 수반되는데, 가령 누군가 자신을 때리면 화가 나거나, 불쾌해지고, 몸의 어떤 부분을 자극하면 쾌감이 생기기도 한다. 또 감정은 감정 주체가 어떤 사항에 대해 어떠한 요구 수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심리적인 면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기도 한다. 즉, 어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자신이 바라던 수준에 도달한다면, 그 학생은 성공감을 느끼게 되고, 도달하지 못하면 실패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또 성적이 요구 수준에 도달할 듯하면서 잘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초조해지고 노여운 감정 등을 경험한다. 그리고 감정은 문화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감정은 가장 고상한 가치 감정으로 정조(情操)라고도 한다. 도덕적 정조로는 정의감·결벽감이 있으며,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의 분노도 있다. 감정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감정 주체가 신체적인 자극을 경험하거나, 그 외의 내적·외적 자극들을 경험하게 될 때 발생하는 것이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감정을 정의해보면, 감정은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대체로 어떤 자극을 전제로 해서 발생하되, 의식적 의도와는 무관하게 발생한다. 또한 감정 주체의 내적 경험에 의존한 주관적 반응이며, 신체적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신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2. 감정의 분류

여기에서는 감정을 분류할 것이다. 우선 기본 감정을 동·서양의 이론을 바탕으로 정리하고, 그런 다음 분류한 기본 감정을 바탕으로 다시 하위 분류할 것이다.

2.1. 기본 감정

기본 감정이란 일반적으로 동양과 서양, 학자마다 그 분류에 차이가 있다. 우선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희로애락(喜怒哀樂)’을 중심으로 기본 감정을 분류하여 4개²¹⁾에서 7개²²⁾ 정도의 기본 감정이 있다고 생각해 왔다. 기본 감정에 대해 논의한 김향숙(2001)에 의하면 동양과 서양에서 기본 감정의 설정을 비교하여 감정 표현에 나타난 감정을 크게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사랑’, ‘미움’ 등 6가지로 분류하고, 각 분류에 해당하는 하위 범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본 감정은 동양과 서양의 철학적, 심리학적으로 접근하여 감정을 정리한 조은진·전형연(2020)의 「내러티브에서 나타나는 등장인물의 감정 분류에 관한 연구」²³⁾를 참고하여 직접 인용해 보고자 한다.

2.1.1. 감정에 대한 동양의 철학적 접근

동양에서 인간의 감정을 논의할 때 고려된 개념은 ‘희로애락(喜怒哀樂)’과 ‘칠정(七情)’이다. 본 장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1) 희로애락(喜怒哀樂)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희로애락’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4개 감정을 지칭하는 말로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조선왕조실록사전」에 따르면 ‘희로애락’은 인간 본성인 성(性)과 그것의 현실적인 양태인 정(情)을 한데 이르는 용어인 성정(性情)에 대한 설명에서 비롯된다. 「순자 荀子」의 「정명 正命」에서는 성의 ‘호오(好惡)’, ‘희로(喜怒哀)’, ‘애락(哀樂)’을 ‘정’이라고 하며 성정을 규정하였다.

그런데 ‘호오’와 ‘희로애락’의 관계는 「좌전 左傳」에서 설명된다. 이에 따르면 ‘희로애락’이란 인간의 ‘희로’와 ‘애락’이라는 두 쌍의 감정으로, 다시 말해 ‘기쁨과 분노’, ‘슬픔과 즐거움’을 말한다. 이때 ‘희로’는 ‘좋아함 好’ 또는 ‘싫어함 惡’에서 발생한다. ‘애락’은 나쁜 대상 또는 좋은 대상을 만났을 때 발생한다.

21)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22) 기쁨, 노여움, 슬픔, 두려움, 사랑, 미움, 욕망.

23) 조은진·전형연(2020) 「내러티브에서 나타나는 등장인물의 감정 분류에 관한 연구」 영상문화 제37호, 재인용. pp.114-120

다. 따라서 ‘희로애락’이라는 것은 ‘좋아함’ 그리고 ‘싫어함’에서 발생하는 ‘기쁨’과 ‘분노’와 ‘슬픔’과 ‘즐거움’을 의미한다(최현석, 2011, p.79).

한편 「조선왕조실록사전」에 따르면 「중용(中庸)」에서는 감정의 조절을 중시하며 ‘희로애락’이 아직 발현되지 않은 상태를 ‘중(中)’이라고 하였으며 발하여 중절(中節)된 상태를 ‘화(和)’라고 하여 규정한 부분이 발견된다. 여기서도 ‘희로애락’은 앞서 다룬 순자의 6개 정인 ‘호오희로애락’ 중 일부임을 알 수 있다(최현석, 2011, p.79).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희로애락

	좋아함	싫어함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순자 荀子」	호 好	오 惡	희 喜	로 怒	애 哀	락 樂
「좌전 左傳」	호 好	오 惡	희 喜	로 怒	애 哀	락 樂
「중용 中庸」			희 喜	로 怒	애 哀	락 樂

2) 칠정의 감정

「조선왕조실록사전」에 따르면 성정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에서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과 관련된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사단칠정은 성리학(性理學)의 철학적인 개념 중 하나로, 여기서 사단(四端)이란 인간의 본성에서 우러나오게 되는 마음씨이다. ‘측은지심(惻隱之心)’, ‘수오지심(羞惡之心)’, ‘사양지심(辭讓之心)’, ‘시비지심(是非之心)’이라는 네 가지의 선천적이면서 도덕적인 능력을 일컫는 말이다.

이 연구에서 주목할 부분은 칠정인데, 칠정은 인간의 본성이 사물을 접할 때 표현되는 7개의 자연적 감정을 말한다. ‘희(喜: 기쁨), 로(怒: 노여움), 애(哀: 슬픔), 구(懼: 두려움), 애(愛: 사랑), 오(惡: 미움), 욕(欲: 욕망)’이 이에 해당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칠정은 「예기禮記」, 「예운편 禮運篇」에서 비롯되어 당(唐)의 한유(韓愈)가 「원성편 原性篇」에서 칠정으로 나누어 논한 것으로 이는 중국 고대에서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사상이었다.

한편 오늘날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칠정을 희(喜: 기쁨), 로(怒: 노여움), 애(哀: 슬픔), 락(樂: 즐거움), 애(愛: 사랑), 오(惡: 미움), 욕(欲: 욕망), 또는 희

(喜: 기쁨), 로(怒: 노여움), 우(憂: 근심), 사(思: 생각), 비(悲: 슬픔), 경(驚: 놀라움), 공(恐: 두려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칠정의 감정

	기쁨	노여움	슬픔	두려움	즐거움	사랑	미움	욕망	근심	생각	놀라움
「예기 禮記」	희 희	로 怒	애 哀	구 懼		애 愛	오 惡	욕 欲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희 희	로 怒	애 哀		락 樂	애 愛	오 惡	욕 欲			
「표준국어대사전」	희 희	로 怒	비 悲	공 恐					우 憂	사 思	경 驚

2.1.2. 감정에 대한 서양의 철학적 · 심리학적 접근

서양에서는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접근 방법으로 소수의 기본적(일차적) 감정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였는데, 기본 감정의 존재를 전제한 이런 주장은 철학자들을 거쳐 심리학자들에게 이어졌다(Plutchik, 2004, p.16).

1) 철학적 접근에서의 기본 감정

프랑스의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René Descartes)는 일차적 감정은 6개이고 기타 감정들은 이러한 6개 감정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기쁨(joy)’, ‘슬픔(sadness)’, ‘사랑(love)’, ‘증오(hatred)’, ‘욕망(desire)’, ‘감탄(admiratin)’이 이러한 6개 감정에 해당된다.

네덜란드의 철학자 바뤼흐 스피노자(Baruch de Spinoza)는 ‘기쁨(joy)’, ‘비에(sorrow)’, ‘욕망(desire)’이라는 3개 감정만이 일차적 감정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외의 다른 감정은 이 3개 감정으로부터 기인된 것이라고 보았다.

영국의 철학자 토머스 홉스(Thomas Hobbes)는 7개의 감정을 주장하였다. 그는 ‘기쁨(joy)’, ‘비탄(grief)’, ‘사랑(love)’, ‘혐오(aversion)’, ‘증오(hate)’, ‘욕망(desire)’, ‘식욕(appetite)’을 기본 감정으로 제안하였다(Plutchik, 2004, p.116).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5>과 같다.

<표 5> 철학적 접근에서의 기본 감정

	기쁨	슬픔	사랑	혐오	증오	욕망	감탄	식욕
René Descartes	기쁨 joy	슬픔 sadness	사랑 love		증오 hatred	욕망 desire	감탄 admiration	
Baruch de Spinoza	기쁨 joy	비에 sorrow				욕망 desire		
Thomas Hobbes	기쁨 joy	비탄 grief	사랑 love	혐오 aversion	증오 hate	욕망 desire		식욕 appetite

2) 심리학적 접근에서의 기본 감정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기본 정서(basic emotions)’의 목록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관점의 연구자들은 감정을 몇 개의 감정으로 간주하였다(Kalat & Shiota, 2007, p.38). 이들은 감정 범주를 강조하면서 이러한 감정을 ‘기본’ 또는 ‘개별’ 감정으로 지칭하였다(Shiota & Kalat, 2015, p.25). 이 연구자들이 제시하는 감정의 개수는 소수로, 최소 3개에서 최대 11개에 이르는데, 대부분 5개에서 9개 정도라고 할 수 있다(Plutchik, 2004, p.121).

에크만 Ekman과 프리젠 Friesen(1984)은 어떤 얼굴이 어떠한 감정을 표현하는지를 연구하며 ‘분노(anger)’, ‘슬픔(sadness)’, ‘공포(fear)’, ‘혐오(disgust)’, ‘놀람(surprise)’, ‘행복(happiness)’의 감정을 제시하였다(Kalat & Shiota, 2007, pp.48-52). 이러한 6개 감정은 보편적인 감정이라 하여 많은 심리학자들에 의해 현재까지도 지지받는다(Schacter, Gilbert, Wegner, & Nock, 2016, p.338).

이저드 Izard(1991)는 유아의 얼굴 표정 분석을 진행하면서 ‘기쁨(joy)’, ‘분노(anger)’, ‘슬픔(sadness)’, ‘공포(fear)’, ‘혐오(disgust)’, ‘놀람(surprise)’, ‘흥미(interest)’라는 7개 감정을 선별하기도 했다(Reeve, 2018, p.410). 또한, 플러치크는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의 3개 특징(강도, 유사성, 양극성)과 일차적 감정에 관한 관념을 결합하여 8개 감정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8개 감정에는 ‘기쁨(joy)’, ‘노여움(anger)’, ‘슬픔(sadness)’, ‘두려움(fear)’, ‘혐오(disgust)’, ‘놀라움(surprise)’, ‘수용(acceptance)’, ‘예상(anticipation)’ 등이 포함되었다(Plutchik, 2004, pp.164-166).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심리학적 접근에서의 기본 감정

	기쁨	분노	슬픔	공포	혐오	놀람	행복	흥미	수용	예상
Ekman & Friesen (1984)		분노 anger	슬픔 sadness	공포 fear	혐오 disgust	놀람 surprise	행복 happiness			
Izard (1991)	기쁨 joy	분노 anger	슬픔 sadness	공포 fear	혐오 disgust	놀람 surprise		흥미 interest		
Plutchik (2004)	기쁨 joy	노여움 anger	슬픔 sadness	두려움 fear	혐오 disgust	놀람 surprise			수용 acceptance	예상 anticipation

지금까지 동·서양에서의 감정 분류 방식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희로애락’과 ‘칠정’ 같은 동양적 감정을 중심으로, 감정과 표정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선구자이자, 21세기 영향력 있는 심리학자인 에크만의 6개 감정으로 대변되는 서양적 감정과 다른 학자들의 논의를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감정의 분류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 ‘희’에 해당하는 한국의 감정 단어는 ‘기쁨’이며 이는 에크만의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철학자들과 심리학자인 이저드와 플러치크의 연구에서는 ‘joy’라는 감정 단어로 제시되고 있다.

두 번째, ‘로’에 해당하는 한국의 감정 단어는 ‘노여움’이며 심리학에서는 흔히 ‘분노’로 언급된다. 이는 에크만을 비롯한 심리학자들의 연구에서는 ‘anger’라는 감정 단어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철학자들의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세 번째, ‘애 哀’ 또는 ‘비’에 해당하는 한국의 감정 단어는 ‘슬픔’이며 이는 에크만을 비롯한 심리학자들의 연구에서는 ‘sadness’라는 감정 단어로 나타나고 있다. 철학자인 데카르트의 경우 ‘sadness’, 스피노자는 ‘sorrow(비애)’, 흄스가 ‘grief(비탄)’이라는 감정 단어를 제안하고 있다.

네 번째, ‘락’에 해당하는 한국의 감정 단어는 ‘즐거움’이며 이는 에크만을 비롯한 심리학자들과 철학자들의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섯 번째, ‘구’ 또는 ‘공’에 해당하는 한국의 감정 단어는 ‘두려움’이며 심리

학에서는 흔히 ‘공포’로 언급된다. 이는 에크만을 비롯한 심리학자들의 연구에서는 ‘fear’라는 감정 단어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철학자들의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여섯 번째, ‘애 愛’에 해당하는 한국의 감정 단어는 ‘사랑’이며 이는 에크만을 비롯한 심리학자들의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철학자인 데카르트와 흠스의 연구에서는 ‘love’라는 감정 단어로 나타난다.

일곱 번째, ‘오’에 해당하는 한국의 감정 단어는 ‘싫어함’ 또는 ‘미움’이다. 그런데 사단칠정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를 진행한 한덕웅(2000, p.146)의 분류에 따르면 ‘오’는 ‘혐오’를 말한다. 이는 에크만을 비롯한 심리학자들의 연구에서는 ‘disgust’라는 감정 단어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철학자인 흠스의 연구에서는 ‘aversion’이라는 감정 단어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데카르트와 흠스의 연구에서는 ‘혐오’의 유의어인 ‘증오’가 각각 ‘hatred’, ‘hate’라는 감정 단어로 나타나고 있다.

여덟 번째, ‘욕’에 해당하는 한국의 감정 단어는 ‘욕망’이며 이는 에크만을 비롯한 심리학자들의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철학자들의 연구에서는 ‘desire’이라는 감정 단어로 나타나고 있다.

아홉 번째, ‘경’에 해당하는 한국의 감정 단어는 ‘놀라움’이며 이는 심리학에서는 흔히 ‘놀람’으로 언급된다. 이는 에크만을 비롯한 심리학자들의 연구에서는 ‘surprise’라는 감정 단어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철학자들의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 외에 동양에서만 나타나는 감정들로는 이미 언급된 ‘락’에 해당하는 ‘즐거움’ 외에도 ‘호’에 해당하는 ‘좋아함’, ‘우’에 해당하는 ‘근심’, ‘사’에 해당하는 ‘생각’이 있다. 서양에서만 나타나는 감정들로는 철학자들의 연구에서 ‘감탄’, ‘식욕’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심리학자들의 연구에서 ‘행복’, ‘흥미’, ‘수용’, ‘예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사랑’, ‘미움’, ‘놀라움’ 등 7개의 감정을 동·서양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감정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렇게 분류한 근거는 앞에서 논의한 연구자들의 감정 분류에 대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을 포괄하고 있어서 제주방언의 감정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감정으로 분석하는 데 적합하였기 때문이다. 다음은 기본 감정의 하

위 범주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제주방언의 감정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목록으로 정리할 것이다.

2.2. 기본 감정의 하위 분류

기본 감정의 하위 범주에 대한 선행 연구에는 김향숙(2001), 김은영(2004), 김주연(2007), 최석재(2012), 김해미(2018) 등의 연구가 있다. 선행 연구들을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향숙(2001)은 기본 감정의 영역을 각각의 하위 영역으로 다시 세분화하여 다음과 같이 고찰하였다. 우선 김향숙(2001)의 연구에서 기본 감정의 영역을 6가지로 나누고 하위 범주로 분류하였는데, 여기에서는 기본 감정 6가지 중에서 하위 범주 ‘기쁨’의 감정과 관련된 예시를 보이겠다.²⁴⁾

- ① 즐거움: 근심 없는 기쁜 기분. 기분이 좋아짐. 웃음이나 폭소 상태.
- ② 신명남: 기쁜 감정의 고조. 기분이 좋아짐. 기운이 솟아나는 긍정적인 정서. 어깨춤, 콧노래, 휘파람 등 흥이 나면 춤과 노래가 저절로 나옴.
- ③ 만족감: 자신의 바람, 요구 등에 대한 충족의 결과로 인한 기쁜 감정. 충만한 내적 상태(팽창). 배를 두드리는 상태. 정서의 빈도와 강도가 높은 사람은 환희를 느낌.
- ④ 감동: 최상의 만족. 존재 동기의 충족. 정적 情動(감정 중 怒恐喜悲와 같이 갑자기 일어난 일시적인 급격한 감정)의 빈도와 강도가 높을 때 느끼는 감정. 감동을 받으면 존재 동기가 충족되어 흥분과 짜릿함을 느낌(안신호 1983).
- ⑤ 편안함: 종전의 긴장이 감소되었거나 긴장이 중국적으로 소멸되었을 때 느낌. 편안함에서 요구되는 결핍의 동기가 충족되면 긴장이 이완되어 신체의 근육도 이완된 상태가 됨.
- ⑥ 자신감: 자신에 대해 고양된 자아개념이 형성될 때 느낌. 어떠한 기쁨이 사회적으로 정의되어 자아에 대한 기쁨으로 상승하게 될 때 자부심은 경험된

24) 김향숙(2001)의 기본 감정의 하위 범주는 <표 9>에 제시하였다.

다(이성식 외 1995). 성공 체험시 심리적 충만감의 핵심을 이룸.

- ⑦ 기대감: 세상에 이루어진 것은 모두 희망의 힘으로 된 것으로 실현할 수 있는 소원을 의식하는 것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가진 힘을 자각하는 것이다 (Menninger Karl, 이용호 옮김, 1986).

또한 김향숙(2001)은 ‘기쁨’을 나타내는 ‘기쁨 하위어의 사전적 개념’과 ‘기쁨의 하위 범주’를 알아보기 쉽게 다음과 같이 도표화하였다.

<표 7> 김향숙(2001), 기쁨 하위어의 사전적 개념

사전 종류	기쁨 하위어의 사전적 개념
두산동아 표준국어대사전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쁘다: 마음에 즐거운 느낌이 나다. - 감동: 크게 느끼어 마음이 움직임. - 즐겁다: 마음에 거슬림이 없이 흐뭇하고 기쁘다. - 만족하다: 마음에 흡족하다. - 상쾌하다: 느낌이 시원하고 산뜻하다. - 편안하다: 편하고 걱정이 없이 좋다. - 자신감: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거나 어떤 일이 꼭 그렇게 되리라는 데 대하여 스스로 굳게 믿음. - 희망: 앞일에 대하여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기를 바램.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가능성.
한글학회 우리말큰사전 (19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쁘다: 좋은 기색이 드러나도록 마음에 즐거운 느낌이 있다. - 감동: 느끼어 마음이 움직임. - 즐겁다: 사뭇 기쁘거나 흐뭇하다. - 만족하다: 마음에 모자람이 없어 흐뭇하다. - 상쾌하다: 기분이 시원하고 산뜻하다. - 편안하다: 몸과 마음이 거북하지 않고 걱정 없이 좋다. - 자신감: 어떤 일에 대하여 뜻한 대로 이루어 낼 수 있다고 스스로의 능력을 믿는 굳센 믿음. - 희망: 앞일에 대한 바램, 가능성이나 가망.
동아대백과사전 (1992)	일반적으로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 S 프로이트(1856-1939)는 기쁨을 선천적인 감정의 하나로 육체적인 쾌감이라 설명한다. 피부감각, 포옹, 성감대의 자극 등에 의해 감각적 쾌락이 경험된다.

<표 8> 김향숙(2001), 기쁨의 하위 범주

하위 범주	의미	상태
즐거움	기분이 좋아짐(확대, 팽창)	웃음, 폭소
신명남	기분이 좋아짐	어깨춤, 콧노래, 휘파람

감동	충만한 내적 상태(팽창)	배를 두드림
편안함	결핍의 동기 충족	이완, 잠
자신감	성공 체험시 느끼는 심리적 충만감	으쓱거림
기대감	실현 가능성 자각	밝음

위와 같이 김향숙(2001)의 연구에서는 기본 감정의 영역을 각각의 하위 영역으로 다시 세분화하여 고찰한 후, 기본 감정의 하위 범주를 알기 쉽게 아래와 같이 도표화하였다.

<표 9> 김향숙(2001), 기본 감정의 하위 범주

기본 감정	하위 범주
기쁨	즐거움, 신명남, 만족감, 감동, 편안함, 자신감, 희망
슬픔	고통, 절망, 외로움
분노	화, 격분
두려움	적극적 두려움: 공포 소극적 두려움: 부끄러움, 죄책감
사랑	애정, 그리움
미움	증오, 질투

김은영(2004)²⁵⁾은 감정 동사를 어휘 의미의 기능이 감정 발생의 원인에 초점이 있는가, 혹은 감정 주체의 감정 발산에 초점이 있는가에 따라서 원인 중심 감정 동사와 대상 중심 감정 동사로 분류하고 있다.

김주연(2007)²⁶⁾의 연구에서는 인간의 내면에 구조화된 「화(怒)」의 표현 양상을 5단계, 즉 1단계: 「화(怒)」를 일으키는 사건(화의 원인이 되는 사건과 제공자가 존재), 2단계: 「화(怒)」의 정도에 따라 생리적 체험(체온 상승, 심신의 동요), 3단계: 자신의 분노를 억제하려고 시도, 4단계: 억제의 실패(분노의 한계점

25) 김은영(2004), 「국어 감정 동사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26) 김주연(2007), 「감정관련 언어의 표현 양상 - 「화(怒)」를 중심으로-」 『日語日文學研究』 第60輯 韓國日語日文學會.

을 지나면 억제할 수 없다), 5단계: 제공자에게 보복 행위를 한자로 구분하고 있다.

최석재(2012)²⁷⁾는 “감정은 다양성과 정도성이라는 두 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다양성이란 감정의 유형을 말하며 감정을 표현한다면 그 감정은 세분되어야 한다.” 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어떠한 감정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기쁘거나, 슬프거나, 화나는 감정 등 어떤 것인지가 명시되어야지, 그저 「감정이 있다」 고 말할 수는 없다고 덧붙이고 있다. 이와 같이 감정은 학자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구분되어지며, 감정에는 상황에 따른 정도성, 감정의 깊이(강도)나 정도의 세기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감정이란 어떤 상황에 직면하자마자 곧바로 격한 감정이 표출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최석재(2012)의 정도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끌리다」 보다는 「좋아하다」 가, 또 그보다는 「사랑하다」 가 더 강한 감정을 표현한다’고 하는 추상적인 정도성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신체 어휘 관용구에서 나타난 감정 표현을 살펴보면, 「속을 긁다 → 속을 뒤집다 → 속이 터지다 → 속이 부글부글 끓다 → 속에서 천불이 솟다」의 순서로 분노의 크기, 즉 정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김해미(2018)²⁸⁾는 감정 동사는 어휘 간의 의미 연결성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정도성 연구에서는 기본 감정을 중심으로 의미가 유사하다고 여겨지는 어휘를 묶어 슬픔 감정 동사를 분류하였다. 보통 화자는 자신이 느낀 감정을 하나의 서술어로 표현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다양한 감정이 내포되어 있다. 예를 들어 ‘그립다’라는 동사는 전제 상황에 따라 ‘슬프다, 외롭다, 답답하다, 쓸쓸하다, 고독하다, 안타깝다, 아쉽다’ 등의 많은 다른 감정 동사의 의미를 안고 있다. 이처럼 감정 동사는 다른 감정 동사들과 의미상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이를 ‘의미 연결성’이라고 한다. 감정 동사는 어휘 간의 의미 연결성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기본 의미를 중심으로 슬픔 감정 동사를 분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기에 기본 감정에 의미가 유사하다고 여겨지는 어휘를 묶어 영역 분류하고 있다.

27) 최석재(2012), 「어휘의 부류와 감정 표현 관용구의 의미」, 한국어학회 통권 제55호.

28) 김해미(2018), 「감정 동사의 정도성 연구-슬픔 감정을 대상으로」, 한국언어문화학회, 한국언어문화 67권.

위의 연구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를 간단히 ‘슬픔’의 기본 감정만을 정리해보면,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어휘들은 의미상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의미에 따라 슬픔 감정 동사를 분류할 때 ‘슬픔’이라는 기본 의미 뿐만 아니라 복합 감정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복합 감정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들은 다른 감정 동사들과 의미상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슬픔 감정 동사는 ‘슬픔’ 감정의 기본 의미 외에 ‘부끄러움, 외로움, 후회, 허무, 실망, 억울함, 아쉬움, 그리움, 고통, 미안, 위축감, 어색함, 언짢음, 냉담’ 등의 의미와 연결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유사성 및 인접성에 따라 감정언어의 상호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 기본 감정의 하위 범주의 분류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이들 연구 중 김은영(2004)의 연구에서는 ‘감정 동사’로만 분류하였고, 김주연(2007)의 연구에서는 인간의 내면에 구조화된 ‘화(怒)’를 중심으로만 분류해서 보편적인 기본 감정을 분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최석재(2012)의 연구에서는 상황에 따른 정도성, 감정의 깊이(강도)나 정도의 세기를 신체 어휘에 나타난 관용구를 대상으로 하여 감정을 분류하는 데 제약이 있었고, 김해미(2018)의 연구에서는 ‘슬픔 감정 동사’를 대상으로만 연구하여서 기본 감정을 분류하는 데는 부족하였다. 하지만 김향숙(2001)의 연구에서 시행된 유형별 분류는 기본 감정의 영역을 각각의 하위 영역으로 다시 세분화하여 고찰한 후, 기본 감정의 하위 범주를 객관적으로 알기 쉽게 도표화²⁹⁾하였기에, 제주방언의 감정 표현을 분류하고 유형화하는 데 가장 타당한 분류라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김향숙(2001)의 유형 분류를 참고하여 감정 표현 중 제주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입버릇처럼 탄식과 곁들어 빈번하게 나타나는 ‘놀라움’을 포함하여 제주방언의 감정 표현을 하위 분류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 제주방언 감정 표현의 하위 범주

기본 감정의 유형	하위 범주
-----------	-------

29) <표 9> 김향숙(2001), 기본 감정의 하위 범주 참조.

기쁨	즐거움, 신명남, 만족감, 감동, 편안함, 자신감, 희망, 반가움, 시원함
슬픔	절망, 고통, 외로움, 안타까움
분노	격분, 화, 나무람, 불만
두려움	적극적 두려움: 공포 소극적 두려움: 죄책감, 부끄러움, 걱정
사랑	애정, 그리움
미움	증오, 질투, 싫음
놀라움	충격, 놀람

Ⅲ. 제주방언의 감정 표현

Ⅲ장에서는 <표 10>에서 제시한 제주방언의 기본 감정의 하위 범주에 의해 감정 표현을 논의할 것이다. 하위 범주에는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사랑’, ‘미움’, ‘놀라움’ 등 7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감정을 다시 품사별로 나누어 논의할 것이고, 이어서 감정은 언어에 의한 직접적인 것과 목소리에 실린 억양, 강세, 운율 등과 동작, 몸짓, 표정 등의 간접적인 것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살펴볼 것이다.

1. 기쁨을 나타내는 표현

「표준국어대사전」은 ‘기쁨’을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으로 정의한다. 이훈구 외(2003)에 의하면, 기쁨은 추상적이고 주관적 판단이어서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일상적으로 개인이 느끼는 기쁨이나 즐거운 감정 같은 정서적 차원과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하는 인지적 차원이 있다고 한다. 개인의 성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업적 및 자신에 대하여 만족하는 경우 ‘기쁨’이라는 감정을 느낀다고³⁰⁾ 한다. 웃음을 야기하는 기쁨은 좋거나 멋진 일이 일어나서 그로 인해 자극을 받은 감정이다. 사람의 기대가 충족되면 기뻐서 일반적으로 웃음과 춤이 절로 나오고 얼굴 표정의 변화에서도 나타난다. ‘기쁨’을 나타내는 하위 범주에는 「즐거움」, 「신명남」, 「만족감」, 「감동」, 「편안함」, 「자신감」, 「희망」, 「반가움」, 「시원함」 등이 있다.

다음은 제주방언 기쁨의 감정 표현에 대하여 구체적인 단어·뜻풀이·예문 등을 제시하면서 감정의 표현 양상과 언어적인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30) 이훈구 외(2003), 「정서 심리학」, 범문사, p.177 인용.

1.1. 명사에 나타난 감정 표현

제주방언에서 기쁨을 나타내는 명사는 다른 감정에 비해 많지 않았다. 명사 자체가 사람의 이름이나 사물, 동물의 이름을 가리키는 품사이다보니 감정 표현을 나타내는 단어는 많지 않았다. 기쁨의 감정을 나타내는 제주방언 명사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2) 눈웃음, 보람, 스망, 상날, 우시게, 우시게소리, 우시겻소리, 우스겻소리, 웃음, 웃음건지, 웃음거리, 웃음벨탁, 웃음벨탁이, 웃음차데기, 웃음차자기, 웃음차제기, 웃음타다기, 웃음타자기, 제수치레, 지꺼짐, 지쁨³¹⁾, 초마수, 훈탁

(2)는 명사에 나타난 감정 표현으로 ‘눈웃음’, ‘우시게소리’, ‘웃음벨탁’ 등은 화자나 행위자의 감정이 바로 분출되는 직접적인 감정 표현으로 나타나고, ‘보람’, ‘스망’, ‘제수치레’ 등은 간접적인 감정 표현으로 나타난다. 몇 가지 예를 통해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 ㄱ. 제주어보전회 선생님덜광 제주어로 우시겻소리³²⁾ 흐명덜 먹단 보난 술이 하영 취흐여전양. (제주어보전회 선생님들과 제주어로 농담하며 먹다 보니 술이 많이 취해서 말이죠.) (용례사전 I, p.320)
- ㄴ. 계도, 서카름 사는 누게네 아방추룩 술 먹영 질에 눅지 안흐난 스망³³⁾이주. (그래도 서쪽 동네 사는 누구네 아버지처럼 길에 눅지 않으니까 다행이지.) (용례사전 I, p.40)
- ㄷ. 말 나온 주멍에 취직턱으로 훈탁³⁴⁾ 사켜. (말 나온 김에 취직턱으로 훈탁 사겠다.) (용례사전 II, p.83)

31) ‘지꺼짐’, ‘지쁨’ 같은 기쁨을 나타내는 실제 단어들은 제주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명사 파생어들도 실제 사용되고 있어서 추가하였다.

32)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528

33)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p.557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381

34)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700

(3ㄱ)은 ‘우시겻소리’의 예로 ‘우시겻소리’는 ‘농담으로 하는 말’의 의미이다. 여기에서는 제주어보전회 선생님들과 제주어로 농담하며 먹다 보니 술이 많이 취했다는 ‘기쁨’의 하위 범주인 ‘즐거움’이 드러나 있다. (3ㄴ)은 ‘스망’의 예로 ‘스망’은 ‘장사에서 이익을 많이 얻는 운수나 어떤 바람이나 일이 잘될 것 같은 느낌이나 조짐’의 의미이다. 여기에서는 ‘술을 먹고 누구네 아버지처럼 길에 놓지 않으니까 다행이다’면서 지나친 음주로 인해 실수를 하지 않는 자신의 남편, 또는 아버지가 남에게 창피하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으니 마음이 편하다는 ‘기쁨’의 하위 범주인 ‘편안함, 만족감’이 드러나 있다. (3ㄷ)은 ‘훈톡’의 예로 ‘훈톡’은 ‘기쁜 일로 한바탕 음식을 차려 내는 대접’의 의미이다. 집안에 기쁜 일이 생기면 잔치를 벌이거나 혹은 밥을 사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풍성히 대접한다. 취직이 되니 기분이 좋아서 훈톡 내겠다는 ‘기쁨’의 하위 범주인 ‘즐거움, 신명남’이 드러나 있다.

1.2. 부사에 나타난 감정 표현

제주방언에서 기쁨을 나타내는 부사는 얼굴 표정의 변화나 모양, 소리, 몸동작 등으로 기쁜 감정이 일어나서 행동 반응이 더 생동감 있게 나타났다. 기쁨의 감정을 나타내는 제주방언 부사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4) 간들간들, 갈갈, 건드랭이, 건들건들, 걸쌩걸쌩, 게삭이, 노고록이, 늑삭이, 들쌩들쌩, 듑박듑박, 듑북듑북, 듑박이, 듑북이, 듑뻑듑뻑, 듑북듑북, 듑뻑이, 듑북이, 듑삭이, 듑색이, 툯쌩툯쌩, 들쌩들쌩, 들쌩들쌩, 들쌩이, 들쌩이, 툯쌩이, 댓댓이, 댓댓이, 댓착, 댓착댓착, 댓탁댓탁, 댓착댓착, 댓탁댓탁, 댓착댓착, 댓탁댓탁, 마직마직, 마직이, 무룩, 무룩무룩, 무룩무룩이, 뵤랑뵤랑, 뵤지란히, 뵤지런히, 바랑바랑, 방글방글, 방긋방긋, 방긋이, 병글병글, 병긋이, 병웃이, 뵤그랭이, 뵤긋뵤긋, 뵤웃뵤웃, 뵤웃이, 뵤삭뵤삭, 뵤색뵤색, 뵤색이, 뵤삭이, 스락스락, 스랑스랑, 스뵤, 스망일이, 산도록이, 살랑살랑, 송굴송굴, 송굴락송굴락, 송굴락송굴락, 씨원씨원, 얼싸덜싸, 코삿이, 허우덜쌩, 헤삭이, 헤삭헤삭, 캐삭캐삭, 해삭해삭, 해쌩해쌩

(4)는 부사에 나타난 감정 표현으로 ‘땡삭땡삭’, ‘허우덕씩’, ‘혜삭혜삭’ 등 동적인 의태어는 직접적인 감정 표현으로 나타나고, ‘건드랭이’, ‘게삭이’, ‘마직이’ 등은 간접적인 감정 표현으로 나타난다. 몇 가지 예를 통해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 ㄱ. 양작흐는 손지 신더레 동고리 새탕 하나 물리난 게삭이³⁵⁾ 좋아홉데다. (우는 손자에게 사탕 하나 입에 넣어주니 병긋이 좋아했어요.)

ㄴ. 잠지폐기에 놀개라도 부떠신디사 그자 들씩들씩³⁶⁾ 나가민 밤새낭이라노난. (영딩이에 날개라도 붙었는지 그저 달씩달씩 나가기만 하면 밤샘이기 때문에.) (용례사전 I, p.28)

ㄷ. 그자 좋아그네 혜삭혜삭³⁷⁾ 웃이명 이 사름도 좋다 저 사름도 좋다 누게라도 다 웃주와주는. (그저 좋아서 게실게실 웃으면서 이 사람도 좋다 저 사람도 좋다 누구라도 높여 대접하는.) (용례사전 I, p.154)

ㄹ. 혼차 중은중은흐곡 빙씩이³⁸⁾ 웃이명 콧놀렐 혼다. (혼자 중얼중얼하고 빙그레 웃으면서 콧노래를 부른다.) (용례사전 I, p.78)

(5ㄱ)은 ‘게삭이’의 예로 ‘게삭이’는 ‘병긋이’의 의미로 좋아서 입이 벌어지는 모양이다.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우는 손자를 달래기 위해 상점에 가서 사탕 하나를 입에 넣어주니 손자가 기분이 좋아 웃는 모습에서 ‘기쁨’의 하위 범주인 ‘즐거움, 만족감’이 드러나 있다. 울며불며 떼를 쓰는 손자에게 사탕은 충만한 내면적 상태로 만족감과 즐거움을 주어 손자로 하여금 병긋이 웃게 만든다. (5ㄴ)의 ‘들씩들씩’의 예로 ‘들씩들씩’은 ‘달씩달씩’의 의미이다. 밖에 나가 친구들과 놀다 보면 영딩이가 달씩달씩 흥겨워서 어깨춤이 저절로 나오는 ‘기쁨’의 하위 범주인 ‘즐거움, 신명남’이 드러나 있다. 제주방언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시청각 이미지가 강하다는 걸 비추어 볼 때, ‘들씩들씩’은 기분이 좋아서 뛰는 ‘모양’을 동반하여 시각적 이미지를 동반하여 담고 있다. 또한 ‘브랑브랑’은 ‘마른 빨감

35)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p.57

36)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p.289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153

37)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p.881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716

38)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p.474

에 불이 붙어 거칠지 않고 알맞게 타는 모양'의 의미로 불이 타는 '모양'과 '소리'를 동반한 시청각적 이미지를 느낄 수 있다. (5ㄷ)의 '해삭해삭'의 예로 '해삭해삭'은 '해프게 웃는 모양'의 의미이다. 좋은 사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기쁨을 감추지 못해 입 모양이 저절로 벌어진다. 이는 '기쁨'의 하위 범주인 '즐거움, 반가움'이 드러나 있다. 여기서도 동의적 표현이 빈번히 드러나는데, '해삭해삭'도 '해삭해삭, 캐삭캐삭, 해썩해썩'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해삭해삭'의 예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웃음은 팽창의 느낌과 물리적인 상관관계가 있어서 (Lakoff.G.& M. Johnson 1980) 기분이 좋으면 얼굴이 웃음으로 인해 바깥으로 확장된다."³⁹⁾ (5ㄷ)의 '빙섹이'의 예로 '빙섹이'는 '소리 없이 부드럽게 웃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의 의미로 '기쁨'의 하위 범주인 '즐거움, 만족감'이 드러나 있다. 이처럼 웃음은 얼굴 표정의 변화나 소리로 마음을 나타내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하는 수단이 된다. 그 외에도 '스뫏⁴⁰⁾'은 '사뫏'의 의미로 중세국어 15세기 문헌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 동사에 나타난 감정 표현

제주방언에서 기쁨을 나타내는 동사는 만족과 평온을 체험한 충만한 내면적 상태 등으로 나타나서, 주로 '-ㅎ다', '-나다'와 결합하여 나타났다. 기쁨의 감정을 나타내는 제주방언 동사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6) 거두대기다, 거두다, 건불리다, 걸썩거리다, 걸썩걸썩하다, 기십세우다, 노넘ㅎ다, 미두ㅎ다, 미더ㅎ다, 들썩거리다, 들썩들썩하다, 들썩이다, 들썩하다, 드룩지다, 방긋ㅎ다, 방긋방긋ㅎ다, 병긋병긋ㅎ다, 병긋ㅎ다, 병긋ㅎ다, 병웃병웃ㅎ다, 병웃ㅎ다, 본에나다, 스망일다, 사불사불ㅎ다, 선세마트다, 성금나다, 성오르다, 송굴락송굴락ㅎ다, 송굴송굴ㅎ다, 송굴락ㅎ다, 세월나다, 시통나다, 세통나다, 시통싸다, 시세나다, 우찬ㅎ다, 웃다, 웃음발탁ㅎ다, 웃임벨탁ㅎ다, 웃지다, 이리승당ㅎ다, 줄세나다, 지꺼지다, 지뻐지다,

39) 김향숙(2001), <한국어 감정표현 관용어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재인용.

40) 淨照는 萬法을 스뫏 비취시고.(정조는 만법을 사뫏 비추시고.) (《월인석보》 19:75)

지뻐하다, 초마수하다, 추어주다, 출세하다, 친부뜨다, 친부찌다, 폭신평신타다, 폭신평신타다, 폭신평신타다, 폭신평신타다, 혼뜩내다, 혼뜩먹다, 해신평신타다, 캐신평신타다, 해신평신타다

(6)은 동사에 나타난 감정 표현으로 행위자의 행동에서 바로 분출되는 ‘기신평신타다’, ‘병긱병긱하다’, ‘지꺼지다’ 등은 직접적인 감정 표현으로 나타나고, ‘미더하다’, ‘스망일다’, ‘시세나다’ 등은 간접적인 감정 표현으로 나타난다. 몇 가지 예를 통해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 ㄱ. 두린 우리 딸 순떡일 메뉴리로 받아쥬 고맙수다. 새스방이 넘이 미두 현⁴¹⁾ 춤말로 노고록후우다게. (철없고 모자란 우리 딸 순떡이를 며느리로 받아주니 너무 고맙습니다. 신량이 너무 흡족해서 마음이 넉넉합니다.) (용례사전 I, p.98)

ㄴ. 금메달을 딴 갑돌인 잘도 시세나노난,⁴²⁾ 매날 이레저레 즈르지게 텅기게 웨여쥬주. (금메달을 딴 갑돌이는 아주 인기가 높아져서 매일 이리저리 바쁘게 다니게 되었지요.) (용례사전 I, p.249)

ㄷ. 집도 하간 세간덜토 오고생이 기냥 싹고 이녁 몸도 살안 신 게 넘이 지꺼전⁴³⁾ 놀아짐직 후엿다. (집에 모든 살림도구들도 온전히 그냥 있고 자기 몸도 살아 있는 게 너무 기뻐서 날아갈 것 같았다.) (용례사전 I, p.139)

ㄹ. 정성드런 회스일에 열신평신타난 높은 사름광 직원덜신디 시통나게⁴⁴⁾ 인정도 받고 추그림도 받곡 했다. (정성들여서 회사일에 열신평신타 하니까 높은 사람과 직원들에게 인기를 얻고 귀하게 되어 인정도 받고 부추김도 받고 했다.) (용례사전 II, p.69)

(7ㄱ)은 ‘미두하다’의 예로 ‘미두하다’는 ‘마음에 차게 미덥고 흡족하여 안심

41)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p.395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289
 42)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p.548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447
 43)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p.782
 44)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448

되다'의 의미이다. 부족함이 많은 딸을 며느리로 받아주고 신랑이 매우 미덥고 부족함 없이 흐뭇하다는 감정이 내포되어 있는 '기쁨'의 하위 범주인 '즐거움, 만족감'이 드러나 있다. (7ㄴ)은 '시세나다'의 예로 '시세나다'는 '어떤 것이 가치를 인정받아 인기를 얻거나 찾는 사람이 많아 명성을 얻게 되다'는 뜻으로 금메달을 딴 갑돌이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져서 여러 감정이 내포되어 있는 '기쁨'의 하위 범주인 '즐거움, 신명남, 감동'이 드러나 있다. (7ㄷ)은 '지꺼지다'의 예로 '지꺼지다'는 '기뻐하다, 일이 잘되어 만족한 상태로 있다'의 의미이다. 목숨을 잃을 정도로 힘든 일이 닦혔다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기 몸도 살아 있다는 게 너무 기쁘다는 '기쁨'의 하위 범주인 '즐거움, 만족감'이 드러나 있다. (7ㄹ)은 '시통나다'의 예로 '시통나다'는 '때가 잘 들어맞아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 잘 팔려 나가거나 귀하게 되다'의 의미이다. 회사일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다 보니 인기를 얻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 복합적인 감정이 내포되어 있는 '기쁨'의 하위 범주인 '즐거움, 만족감, 신명남, 자신감, 희망'이 드러나 있다. 이외에도 '지꺼지다⁴⁵⁾'는 '기뻐하다'의 의미로 중세국어 15세기 문헌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친부뜨다'는 '친할 수 있도록 사귀다'의 의미로 '친해지도록 붙으다'는 '상태'를 나타내고, '기십세우다'는 '담기를 드러내다'의 의미로 기를 세우는 '모양'을 나타내는 시각적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1.4. 형용사에 나타난 감정 표현

제주방언에서 기쁨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음식 맛이 푸짐하여 입속에 감돌거나, 사물의 상태, 성질 등을 나타내며 주로 '-흐다'와 결합하여 나타났다. 기쁨의 감정을 나타내는 제주방언 형용사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 45) ① 婆羅門의 말을 護彌 듣고 깃거 須達이 아들을 쫓을 얼유려 터니. (바라문의 말을 호미가 듣고 기뻐하여 수달의 아들에게 딸을 시집보내려 하더니.) (《월인천강지곡》 상: 149)
 ② 西征에 功이 일어늘 所獲을 다 도로주샤 仁義之兵을 僚佐ㅣ 깃스뵈니. (서정에 공이 이루어지거늘 소획을 다 도로주시어 인의지병을 요좌가 기뻐하니.) (《용비어천가》 41장)
 ③ 神通力으로 樓우희 느라 올라 耶輸入 알피 가 셔니 耶輸ㅣ 보시고 흐너 ㄹ론 분별흐시고 흐너 ㄹ론 깃거 구쳐 니러 절흐시고 안즈쇼셔 흐시고. (신통력으로 누 위로 야수의 앞에 가서 서니, 야수가 보시고 한편으로는 염려하시고 한편으로는 기뻐 억지로 일어나 절하시고 앉으소서 하시고.) (《석보상절》 6:3)

(8) 간드랑하다, 갈갈하다, 건건하다, 건뎅다, 건드럽다, 건드렁하다, 팔팔하다, 팔다, 귀늑하다, 기똥차다, 기십중다, 기십중다, 늑하다, 늑하다, 노고록하다, 늑삭하다, 다복하다, 든직하다, 듨듨하다, 듨박듨박하다, 듨박하다, 듨복듨복하다, 듨삭하다, 듨직하다, 등겁다, 딱라지다, 들미용하다, 들크름하다, 들큼하다, 들코름하다, 들콤하다, 들하다, 녀시근하다, 덕시그랑하다, 덕시랑하다, 덕시근하다, 딱근하다, 뎡뎡하다, 뎡뎡하다, 또릿또릿하다, 물착하다, 문착하다, 물축하다, 물탁하다, 문착하다, 물착하다, 물축하다, 물탁하다, 물착하다, 물축하다, 물탁하다, 마직하다, 마직마직하다, 멘도롱하다, 멘뜩하다, 메뜩하다, 무던하다, 무룩하다, 벵디다, 벵랑지다, 보람나다, 바람지다, 반조롱하다, 반주롱하다, 반지롱하다, 반쫘롱하다, 반쫘롱하다, 반쫘롱하다, 반쫘롱하다, 벤조롱하다, 벤주롱하다, 벤지롱하다, 벤지롱하다, 벤쫘롱하다, 벤쫘롱하다, 베끄다, 베지근하다, 부리부리하다, 불세나다, 슻스스하다, 소스소스하다, 스망일우다, 사글사글하다, 서글서글하다, 사블사블하다, 산도록하다, 산도롱하다, 삼삼하다, 삼도롱하다, 상끗하다, 선선하다, 순하다, 씨원하다, 아귀차다, 아귀중다, 아도록하다, 아노록하다, 아늑하다, 으망지다, 으뎡차다, 어진어진하다, 어질다, 오도났하다, 오소록하다, 오시록하다, 우습다, 이리승당하다, 즈미나다, 즈미지다, 지뿌다, 지뿌다, 진득하다, 촌촌하다, 줍하다, 착실하다, 착하다, 코삿하다, 코소롱하다, 코송하다, 코시롱하다, 코싱하다, 쿠수롱하다, 쿠송하다, 쿠송하다, 쿠시롱하다, 쿠싱하다, 쿠지다, 폭하다, 풀하다, 푸지근하다, 푸지다, 폭삭하다, 푼두롱하다, 푼드랑하다, 푼푼하다, 해삭하다, 해삭해삭하다, 허끈하다

(8)은 형용사에 나타난 감정 표현으로 형용사의 특성상 성질이나 상태, 존재의 품사이므로 모두 간접적인 감정 표현에 해당된다. 몇 가지 예를 통해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 ㄱ. 노루 딱린 막뎡이 3년 우러먹은뎡 허연계, 도세기도 췌도 아니고 지다리도 아닌 그 막뎡이가 얼메나 듨삭듨민⁴⁶⁾ 경덜 곶아나신고이. (노

루 때린 막대기가 3년 배어나온다고 하던데, 돼지도 소도 아니고 오소리도 아닌 그 막대기가 얼마나 푸짐하면 그렇게 말을 했었을까.) (용례사전 I, p.208)

- ㄴ. 쉼 질루멍 송애기 나고 질루고, 이추룩 흥멍 쉼 키우멍 잘도 즈미져 션.⁴⁷⁾ 그때 생각흐른 잘도 즈미나. (소 키우면서 송아지 낳고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소 키우면서 잘도 재미있었어. 그때 생각하면 아주 재미있어.) (세화리 24, p.141)
- ㄷ. 그뻘 드룻느물이 맛이 셔서. 코시롱훈게⁴⁸⁾ 맛도 좋아. (그뻘 들나물이 맛이 있었어. 고소한 게 맛도 좋아.) (세화리 24, p.125)
- ㄹ. 빵 흥쌀 주렌 흥난 물착흥게⁴⁹⁾ 끈찬 줍데다게. (빵 조금 달라고 하니 까 마음에 들게 듬뿍하게 끊어서 주더라고요.)
- ㅁ. 모인 줍쌀을 먹어가민, 흰죽은이 심심흥고 그 죽은 흥쌀 베지근훈⁵⁰⁾ 맛이 이셔. (모인 줍쌀을 먹다 보면, 흰죽은 심심하고 그 죽은 줍 깊은 맛이 있어.) (신촌리 21, p.352)
- ㅂ. 돛궤기 먹으민 늠삭흥지 안흥여? 밧도 멜 걸름을 맥여취사 늠삭행⁵¹⁾ 곡식이 잘나는 거라. (돼지고기 먹으면 늠삭하잖아. 밧도 멀치 걸름을 먹여취야 늠삭해서 곡식이 잘 나는 거야.) (신촌리 21, p.112)

(9ㄱ)은 ‘듬삭하다’의 예로 ‘듬삭하다’는 ‘기름기가 많은 국(羹)같은 것을 먹을 때 입안에 맛이 돌아 푸짐하게 느껴지다’의 의미이다. 여기에서는 ‘노루 때렸던 막대기 삼 년 동안 우려먹는다’는 제주속담도 있듯이 노루를 때렸던 막대기를 삼 년 동안 우려먹어도 느끼한 기름기가 오랫동안 남아 있다는 지나친 과장인데, 두고두고 자랑거리로 내세워 우려먹는 현상을 드러내고 있는 감정으로 ‘기쁨’의 하위 범주인 ‘즐거움, 만족감’이 드러나 있다. (9ㄴ)은 ‘즈미나다’의 예로 ‘즈미나다’는 ‘재미있다’의 의미이다. 옛날 소 키우면서 송아지가 새끼를 낳고 키우는 재미

46)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p.281

47)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555

48)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p.832

49)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228

50)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340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717

51)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141

가 있었다는 ‘기쁨’의 하위 범주인 ‘즐거움, 만족감’이 드러나 있다. (9ㄷ)은 ‘코시롱하다’의 예로 ‘코시롱하다’는 ‘맛이나 냄새가 비위에 맞아 고소하다’의 의미이다. 들나물이 고소하고 맛도 좋다고 하는 충만한 상태이며 ‘기쁨’의 하위 범주인 ‘만족감’이 드러나 있다. ‘코시롱하다’도 ‘코소롱하다, 코송하다, 코싱하다, 쿠수롱하다, 쿠송하다, 쿠승하다, 쿠시롱하다, 쿠싱하다, 쿠지다’ 등 동의적 표현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훈구 외(2003)에 의하면 체험주의는 인간의 이성이 지각이나 신체 감각을 통한 경험은 물론 문화적·사회적 경험에 의해 동기화된다고 보는 관점에서 언어 현상을 설명하였듯이,⁵²⁾ 이처럼 기쁨 때는 인간의 신체·생리적 변화와 주관적인 감정 변화는 이처럼 체험주의와 관련성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ㄹ)은 ‘물착하다’의 예로 ‘물착하다’는 ‘마음에 차게 빈 곳 없이 듬뿍하다’의 의미이다. 상대방에게 빵을 조금 달라고 하니까 마음에 들게 듬뿍하게 많이 끊어 주니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쁨’의 하위 범주인 ‘즐거움, 만족감’이 드러나 있다. 여기에서 ‘물착하다’도 ‘문착하다, 물축하다, 물탁하다, 문착하다, 물착하다, 물축하다, 물탁하다, 물착하다, 물축하다, 물탁하다’ 등 동의적 표현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9ㄱ)은 ‘베지근하다’의 예이며, ‘베지근하다’는 ‘고기 따위를 끓인 국물 같은 것이 깊은 맛이 있다’는 의미이다. 모인 좁쌀을 먹다 보면, 흰 죽은 심심하고 모인 좁쌀 넣어서 끓인 죽은 깊은 맛이 난다는 ‘기쁨’의 하위 범주인 ‘즐거움, 만족감’이 드러나 있다. (9ㄴ)은 ‘늠삭하다’의 예이며, ‘늠삭하다’는 ‘음식에 감칠맛이 있어 그 맛이 입안에 넘치다’는 의미이다. 기름진 돼지고기를 먹으면 ‘늠삭하다’며, 발에도 멸치 거름을 뿌려줘야 곡식이 잘 난다는 ‘기쁨’의 하위 범주인 ‘즐거움, 만족감’이 드러나 있다.

또한 ‘반조롱하다’는 ‘사람이 생김새나 마음씀이 빈틈이 없이 꼭 차다’의 의미로 ‘반주롱하다, 반지롱하다, 반조롱하다, 반쭈롱하다, 반찌롱하다, 반찌롱하다, 벤조롱하다, 벤주롱하다, 벤지롱하다, 벤지롱하다, 벤조롱하다, 벤쭈롱하다’ 등 동의적 표현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들미용하다’는 ‘설탕 따위를 혀끝에 대었을 때, 어느 정도 단맛을 느끼다’의 의미로 약간 달콤한 ‘느낌’을 나타내며, ‘어진어진하다’는 ‘매우 어질다’의 의미로 어진 사람의 ‘상태’를 나타낸다. ‘아도록하다’는 ‘주변이 알맞게 가려져 마음에 안정을 줄 만큼 아늑하다’의 의미로 아늑하

52) 이훈구 외(2003), 「정서 심리학」, 범문사, p.177 인용.

고 안정된 ‘상태’와 ‘느낌’이 나타나 있다. ‘사글사글하다’는 ‘사람의 성정이 과묵하지 않고 붙임성도 있고 명랑하고 시원시원하며 말도 부담 없이 잘한다’는 의미로 말하는 ‘모양’인 시각적 이미지와, 말하는 ‘소리’인 청각적 이미지를 동시에 나타내는 시청각적 이미지로 전달된다. 이외에도 ‘뜨그릉하다’⁵³⁾, ‘늠삭하다’⁵⁴⁾, ‘뜨근하다’⁵⁵⁾, ‘베지근하다’⁵⁶⁾, ‘코시릉하다’⁵⁷⁾는 전통 제주인이 아니면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감지하지도 못하는 어느 외국의 언어처럼 생소하고 독특한 말맛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5. 감탄사에 나타난 감정 표현

제주방언에서 기쁨을 나타내는 감탄사는 주로 입버릇처럼 나오는 관습적 표현이 많은데, 주로 반갑거나 좋을 때, 상대방의 말에 옳다고 여기거나 인정할 때 등으로 나타났다. 기쁨의 감정을 나타내는 제주방언 감탄사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10) ㄴ, 곧다마다, 게, 게메, 게메게, 게메마씀, 게메마썸, 게똤마썸, 게똤마씀, 기, 기여, 기여기여, 기여게, 얼싸덜싸, 얼씨구, 얼씨구나, 예, 예게, 읍서, 읍서게, 이여싸나, 잘관, 잘관다리, 잘관다리여, 잘관이여, 제나, 제나대나, 제나싸나, 제나게, 호고말고, 흙맘

(10)는 감탄사에 나타난 감정 표현으로 화자의 직접 발화나 행위가 모두 직접적인 감정 표현에 해당된다. 몇 가지 예를 통해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3) 움직이는 모습이 느린 듯하나 침착하고 차분하게 뚜벅뚜벅하다,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220

54) 바라던 일이 잘 이루어져 마음에 모자람 없이 만족스러워하다,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141

55) 사람이 침착하고 의젓하다,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145

56) 고기 따위를 끓인 국물 같은 것이 깊은 맛이 있다,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p.441

57) 맛이나 냄새가 비위에 맞아 고소하다,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p.832

- (11) ㄱ. 아버지, 밥 든 출려 낫수다양. ㄱ⁵⁸. (아버지, 식사 전부 차려 냈어요. 그래.) (용례사전 I, p.9)
- ㄴ. 고팡에 신 낫냥푼이를 ㄱ전 간 “이것도 받읍네까?” ㅎ난 옛장수 입이 “기여게⁵⁹” ㅎ삭ㅎ명 옛을 쫄란 두 줌이나 줌데다. (창고에 있는 낫양푼을 가지고 가서 “이것도 받나요?” 하니 옛장수 입이 “그래” ㅎ별쪽 벌어지면서 옛을 잘라서 두 줌이나 줘어요.) (용례사전 I, p.39)
- ㄷ. 요적이 보리씨 ㅎ솔만 꾸어줍센 ㅎ여도 이녁도 족음직ㅎ덴 ㅎ명 잘도 ㅎ쁜 그 하르방, 쉼 아판 밧 못 갈암젠 소도리 나선게 에이 그거 잘관다리어.⁶⁰ (보리씨를 조금 빌려 달라고 하여도 자신도 적을 듯 하다며 인색하게 굴었던 그 할아버지가, 소가 아파서 밧을 못 간다는 소문이 났던데 에이 그거 잘됐다.) (용례사전 I, p.17)

(11ㄱ)은 ‘ㄱ’의 예로 ‘ㄱ’는 ‘그래, 응, 그렇지’의 의미이다. 밥을 다 차려 냈다는 말에 아버지는 ‘그래, 응, 그렇지’라고 대답하고 있다. 아랫사람의 행위나 말하는 것을 보고, 들은 이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기쁨’의 하위 범주인 ‘즐거움, 만족감’이 드러나 있다. (11ㄴ)은 ‘기여게’의 예로 ‘기여게’는 ‘기여’에 ‘게’라는 첨사가 첨가되어 ‘오냐, 그래, 그래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하게 긍정의 심리가 반영된다. 옛을 먹고 싶은 아이가 창고에 있는 낫양푼을 옛장수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도 받냐?” 고 묻자 “그래” 하고 답하면서 옛장수가 만족하여 입이 ㅎ별쪽 벌어지는 모습에서 ‘기쁨’의 하위 범주인 ‘즐거움, 만족감, 반가움’이 드러나 있다. (11ㄷ)은 ‘잘관다리어’의 예로 ‘잘관다리어’는 ‘알미운 사람이 잘못하여 큰코다쳤을 때 속이 시원하게 내지르는 말’의 의미이다. 여기서 보리씨를 조금 빌려 달라고 하여도 자신도 적을 듯 하다며 인색하게 굴었던 그 할아버지가, 소가 아파서 밧을 못 간다는 소문을 듣고는 에이 그거 잘됐다는 ‘기쁨’의 하위 범주인 ‘시원함’이 드러나 있다. 이외에도 ‘기여기여’는 ‘오냐오냐, 그래그래’의 의미로 긍정

58)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p.118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2
 59)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p.116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92
 60)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566

의 강조인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이는 듯한 강한 시각적 ‘느낌’과, ‘잘관이여’는 ‘얌미운 사람이 잘못하여 큰코다쳤을 때 속이 시원하게 내지르는 말’로 속시원하게 잘 됐다’는 ‘마음’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기여계’는 ‘기여’에 ‘계’라는 첨사가 첨가되어 ‘오냐, 그래, 그래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하게 긍정의 심리가 반영되어 어느 외국의 언어처럼 생소하고 독특한 말맛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품사별로 정리한 ‘기쁨’의 감정 단어 개수를 보니, 사용 빈도는 형용사>부사>동사>감탄사>명사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 ‘기쁨’을 나타내는 감정 단어 개수

품사 기본 감정	명사	부사	동사	형용사	감탄사	합계
기쁨 개수	23	75	59	138	31	326

2.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

「표준국어대사전」은 ‘슬픔’을 ‘슬픈 마음이나 느낌’으로 정의한다. 슬픔의 개념에는 ‘고통’이 공통적으로 수반되며, 발생의 원인이 실패에서 오는 슬픔을 ‘절망’이라 하고 인간사회에서의 고립을 ‘외로움’이라 한다. 슬픔의 대표적인 표현 형태는 울음이다. 죽음·이별·실연·실직 등의 슬픈 상황에서는 눈물이 공통적으로 수반된다. “울음은 눈물의 시각적 요소와 울음소리의 청각적 요소의 결합이다. 소리내어 우는 것은 감정의 주체가 당면한 입장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당하고 있는 절박한 사정을 바깥세상에 알리려는 추가적인 의도가 있다고 한다. 그 요청의 목적은 고통 해소를 바라며 고통이 신호하는 위험을 다루는데 필요한 도움을 얻기 위한 것이다.”⁶¹⁾ 슬픔을 나타내는 하위 범주에는

61) 김향숙(2001), <한국어 감정표현 관용어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재인용.

「절망」, 「고통」, 「외로움」, 「안타까움」 등이 있다.

다음은 제주방언 슬픔의 감정 표현에 대하여 구체적인 단어·뜻풀이·예문 등을 제시하면서 감정의 표현 양상과 언어적인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1. 명사에 나타난 감정

제주방언에서 슬픔을 나타내는 명사는 슬픔의 정도를 주로 절망적인 상황과 울음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슬픔의 감정을 나타내는 제주방언 명사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12) 노정복사, 눈물즈베기, 들멘목심, 들멘목숨, 만인목숨, 만인목심, 복물, 빈복다리, 벙주생이, 벙주시, 빙주시, 혈복다리, 설룬어멍, 세한숨, 시름초, 양작, 양작다리, 양작쉬, 양작쟁이, 우념, 우념소리, 주리벙, 줄초상, 포송년, 혼탄(恨歎)

(12)는 명사에 나타난 감정 표현으로 직접적인 표현은 없고, 간접적인 표현으로만 나타나 있다. 몇 가지 예를 통해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3) ㄱ. 무사 요조금은 전이 답지 안흐연 날 봐도 ‘쉐 득 웨리듯’ 흐명 속숨 흐영 지나가불곡 날 영 애줏게 흐염수과게. 나가 똑 눈물즈베기⁶²⁾ 흘쳐사 웨쿠과? (왜 요즘은 예전 같지 않고 날 봐도 ‘소 닭 보듯’ 하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지나가 버리면서 날 이렇게 속상케 하나요. 내가 꼭 눈물을 흘려야 하나요?) (용례사전 I, p.30)
- ㄴ. 는 안적 두려노난 시상 알 날 멀엇저. 느네 삼춘은 빈복다리⁶³⁾ 아니가게. (너는 아직 어리니까 세상 알 날이 멀었어. 너희 삼춘은 빈복한 사람 아니냐.) (용례사전 I, p.182)
- ㄷ. 그르헤도 넘은헤도 포송년⁶⁴⁾ 이란게 올히도 또시 송년이 듨직흐연

62)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135

63)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p.471

죽들어젓저. 농사도 심들언 못흐쿠다원. (제작년도 작년도 거듭되는 흉년이더니만 올해도 또 흉년이 들 것 같아서 걱정돼요. 농사도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용례사전 I, p.226)

ㄹ. 죽 썰 먹고, 애기덜 주리벙⁶⁵⁾ 옛날은 주리벙 흐는 애기가 하난에. 주리벙흐는 애기덜 썰게기 행은에 춤지름 툄랑 썩 맥이민. (죽 썰서 먹고 아기들 ‘주리벙’. 옛날은 ‘주리벙’ 하는 아기가 많으니까. ‘주리벙’ 하는 아기들 썰고기 해서 참기름 발라 구워서 먹이면.) (온평리 23, p.319)

(13ㄱ)은 ‘눈물즈베기’의 예로 ‘눈물즈베기’는 ‘눈물방울’을 시각화시켜 이르는 말로 눈물방울의 ‘모양’을 나타내는 시각적 이미지를 동반하며 전달된다. 서로 좋아했던 연인이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감정이 식어져 예전 같지 않고 ‘소 닭보듯’ 하며 지나가 버리니 너무 속상한 감정이 내포되어 있는 ‘슬픔’의 하위 범주인 ‘절망, 고통, 외로움’이 드러나 있다. (13ㄴ)은 ‘빈복다리’의 예로 ‘빈복다리’는 ‘복을 타고나지 못하여 무슨 일이든지 잘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런 사람은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감당하기 힘든 무게로 다가오면서 ‘슬픔’의 하위 범주인 ‘절망, 고통,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13ㄷ)은 ‘포송년’의 예로 ‘포송년’은 ‘거듭되는 흉년’으로 농사도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는 근심 걱정이 내포되어 있는 ‘슬픔’의 하위 범주인 ‘절망, 고통’이 드러나 있다. (13ㄹ)은 ‘주리벙’의 예로 ‘주리벙’은 ‘갓난애가 어머니로부터 젖이 모자라 제대로 얻어먹지 못해 생긴 병’의 의미이다. 옛날 제주 사람들은 주리벙 걸린 아기들에게는 썰고기에 참기름을 발라서 먹였다고 한다. 자식을 가진 어머니로서는 마음이 몹시 아플 수밖에 없는 ‘슬픔’의 하위 범주인 ‘절망, 고통,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2.2. 부사에 나타난 감정 표현

64)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p.688

65)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597

제주방언에서 슬픔을 나타내는 부사는 상실감으로 인한 절망과 긴장이 지속되고, 신체 부위의 손상 정도에 따라 슬픔의 강도와 고통이 더 세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슬픔의 감정을 나타내는 제주방언 부사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14) ㄱ웃ㄱ웃, 골골, 그랑그랑, 꺾꺾, 깡악깡악, 기릿기릿, 느랏이, 느랏이, 느룻느룻, 느룻느룻, 놀씩놀씩, 놀씩이, 노긋노긋, 메랑이, 멍멍멍멍, 바지 지, 바지직바지직, 바직바직, 스세부득, 시름시름, 시추렁이, 아따이, 울 멍시르멍, 울러이, 울라이, 울엄직울엄직, 울각울각, 와작작, 와작작와작작, 와씩, 와씩와씩, 와지지, 와지직와지직, 와직와직, 즈죽즈죽, 훌강훌강, 할강할강, 훌그랑훌그랑, 흥악흥악, 허닥허닥, 흥글랑흥글랑, 히어뜩이

(14)은 부사에 나타난 감정 표현으로, ‘멍멍멍멍’, ‘울엄직울엄직’, ‘허닥허닥’ 등 동적인 의태어는 직접적인 감정 표현으로 나타나고, ‘스세부득’, ‘아따이’, ‘히어뜩이’ 등은 간접적인 감정 표현으로 나타난다. 몇 가지 예를 통해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5) ㄱ. 우리 어멍 굴개기로 등따리 탁 두디려. 졸암덴. 경흐민 막 울멍시르 멍⁶⁶⁾ 김질메곡 경흐멍 커왓수다. (우리 어머니는 호미로 등을 탁 때려. 그렇게 하면 막 울며불며 김매고 그렇게 하면서 커 왔습니다.) (온평리 23, p.40)
- ㄴ. 놀씩이⁶⁷⁾ 앓안 마농 다듬암서라. (나른히 주저앉아서 마늘을 다듬고 있더라.)
- ㄷ. 일구의 두굼치가 와씩⁶⁸⁾ 아팠다. (일구의 등 위쪽 부분이 따끔 아팠다.) (용례사전Ⅱ, p.187)
- ㄹ. 썩썩하는 그덜 문지기만 혀여도 와직와직⁶⁹⁾ 아프고. (시큰시큰하는

66)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p.693

67)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p.207

68)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p.683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521

69)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522

그곳을 만지기만 해도 따끔따끔 아프고.) (용례사전Ⅱ, p.72)

(15ㄱ)은 ‘울멍시르멍’의 예이며 ‘울멍시르멍’은 ‘울며불며’의 의미이다. 여기에서 일을 하다가 깜박 졸면 어머니는 졸지 말라고 호미로 등을 때리면 아파도 울며불며 발에서 김을 매며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다는 것이다. ‘울며불며’ 하다보면 얼굴은 뒤범벅이 되고, 눈물을 흘리다 보면 저절로 콧물도 나오기 마련인데 ‘슬픔’의 하위 범주인 ‘절망, 고통’이 드러나 있다. (15ㄴ)은 ‘늘씩이’의 예이며 ‘늘씩이’는 ‘나른히’의 의미이다. 기운이 없이 앉아서 마늘을 다듬는 모습에서 ‘슬픔’의 하위 범주인 ‘절망, 외로움’이 드러나 있다. (15ㄷ)은 ‘와씩’의 예이며 ‘와씩’은 ‘통증이 심하게 따끔한 풀’의 의미이다. 여기서는 등 위쪽 부분이 따끔하게 아팠다는 데서 ‘슬픔’의 하위 범주인 ‘고통’이 드러나 있다. (15ㄹ)은 ‘와직와직’의 예이며 ‘와직와직’은 ‘상처에 자극이 심한 약을 금방 발랐을 때나, 뜨거운 것에 금방 데었을 때와 같이 따끔따끔하게 아픈 풀’의 의미이다. 상처가 깊어서 만지기만 하여도 따끔따끔 아프다는 감정이 내포되어 있는 ‘슬픔’의 하위 범주인 ‘고통’이 드러나 있다. ‘와직와직’은 ‘와씩’의 고통보다 더 크다. 여기서도 동의적 표현이 빈번히 드러나는데 ‘와씩, 와씩와씩, 와직와직, 와지직와지직, 와지지, 바직바직, 바지직바지직, 바지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신체 부위의 손상 정도에 따라 ‘와씩<와씩와씩<와지지<와직와직<와지직와지직<바지지<바직바직<바지직바지직’ 등 고통의 강도도 더 세지고 있다. 이외에도 ‘멥멥멥’은 ‘아기가 보채면서 잇따라 우는 소리’를 의미한다. 불평 많은 ‘소리’와 아기가 우는 ‘모양’을 나타내는 시청각적 이미지를 동반하며 전달하고 있다.

2.3. 동사에 나타난 감정 표현

제주방언에서 슬픔을 나타내는 동사는 주로 ‘-헛다’와 결합하여 나타났으며, 신체적 경험을 토대로 슬픔의 감정 등을 표현하고 있다. 슬픔의 감정을 나타내는 제주방언 동사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16) ㄹ웃ㄹ웃헛다, 국기다, 가불다, 가불우다, 골골거리다, 골골헛다, 골벙들

다, 골빙들다, 귀얌이다, 글강거리다, 느랏느랏하다, 느큰하다, 늘씩늘씩하다, 날억버리다, 노긏노긏하다, 노정복사하다, 눈깜야리다, 눈어쁘다, 느끼리다, 느러지다, 니알리다, 더을하다, 똥피다, 목돌아지다, 목숨그차지다, 목숨끓어지다, 목숨타지다, 몸긏지다, 목즈르다, 몸살하다, 몸져눅다, 무에여지다, 물그리다, 뱃데끼다, 복먹다, 복물먹다, 복쟁이먹다, 봉먹다, 벌적치다, 벌작치다, 벌작하다, 벌적하다, 뽕걸리다, 스세부득하다, 사례들다, 생발알리다, 생손알리다, 섭섭하다, 세한숨쉬다, 속상하다, 속섹이다, 속타다, 쪽타다, 숨비치다, 숨그차지다, 시름시름하다, 심빱심빱하다, 실리다, 실게그차지다, 실게끈어지다, 실게창지그차지다, 실게창지끈어지다, 췌우다, 양작치다, 양작하다, 야게걸다, 야게돌아지다, 야게뉘우다, 야게뱃뚜다, 애그차지다, 애끈어지다, 애들다, 애먹다, 애좏다, 애좏추다, 애통그차지다, 애통끈어지다, 애통터지다, 애창지끈어지다, 애카다, 애카지다, 얼들다, 얼먹다, 얼똥싸다, 얼똥싸게하다, 얼뻘이다, 얼치다, 오장그차지다, 오장끈어지다, 오장창지그차지다, 오장창지끈어지다, 울랏을랏하다, 우널다, 울다, 울명시르명하다, 울어절이다, 울어시르다, 울각을각하다, 울호리다, 유을다, 을강거리다, 읍슬하다, 읍실하다, 업쓸하다, 업셀하다, 읍셀하다, 잉잉하다, 줍무치다, 줄고생하다, 줄초상나다, 췌끼다, 지근거리다, 지근지근하다, 지근돌다, 지근대다, 지근털다, 접새하다, 제통하다, 축뱃리다, 칭칭하다, 혀여먹다, 흘강거리다, 흘강흘강하다, 흘그랑거리다, 흥글랑흥글랑하다, 할강거리다, 할강할강하다, 할그랑거리다, 할근거리다, 할근돌다, 허기버치다, 허닥허닥하다, 헤똥하다, 헤똥갈라지다, 흘강거리다, 흘갱이받치다, 흘갱이하다, 흘그랑거리다, 흘근거리다, 흘근돌다, 흘짜거리다, 흘짜흘짜하다, 흥글랑흥글랑하다, 히여똥하다

(16)은 동사에 나타난 감정 표현으로, 행위자의 행동에서 바로 분출되는 ‘시름시름하다’, ‘울명시르명하다’, ‘흘짜흘짜하다’ 등은 직접적인 감정 표현으로 나타나고, ‘눈깜야리다’, ‘속상하다’, ‘유을다’ 등은 간접적인 감정 표현으로 나타난다. 몇 가지 예를 통해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7) ㄱ. 아무것도 투약 안 한 중이 둘은 구석에서 숨만 불락불락하던 사을 후제 그웃그웃흐명⁷⁰⁾ 죽어신디. (아무것도 투약 안 한 쥐 둘은 구석에서 숨만 가쁘게 쉬다가 죽었는데.) (용례사전Ⅱ, p.174)
- ㄴ. 갑돌이가 손 흥글명 “갑순아 사랑한다.” 웨울르는 TV 소꿍 갑돌이를 보난 갑순이는 가슴이 애통그차전⁷¹⁾ 밤새낭 양양 울었주. (갑돌이가 손 흔들면서 “갑순아, 사랑한다.” 소리치는 TV 속 갑돌이를 보니 가슴이 너무 상해서 속이 터질 듯이 밤새 엉엉 울었지요.) (용례사전Ⅰ, p.207)
- ㄷ. 날이 딱삿닥 얼엇다 야빈다시러와노난 우리 손진 요작이 고뿔이 또 시 제통흐연⁷²⁾ 흘착흘착흐염선게 이젠 문 낮인 생인고라 밥도 잘 먹없수다게. (날이 따뜻했다 추웠다가 요망스러운 짓을 하니까 우리 손자는 요전번에 감기가 또 재감염돼서 콧물을 흘리고 있던데 이제는 다 나았는지 밥도 잘 먹고 있습니다.) (용례사전Ⅰ, p.251)
- ㄹ. 느 목소리가 홀강홀강흐는⁷³⁾ 거 보난 기관지가 안 좋은 생이여이. (너 목소리가 안 좋은 거 보니 기관지가 안 좋은 모양이다.) (용례사전Ⅰ, p.270)

(17ㄱ)은 ‘그웃그웃하다’의 예로 ‘그웃그웃하다’는 ‘몹시 숨이 차서 가쁘다’의 의미이다.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투약 안 한 쥐가 숨만 가쁘게 쉬는 모습에서 ‘슬픔’의 하위 범주인 ‘절망, 고통,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17ㄴ)은 ‘애통그차지다’의 예로 ‘애통그차지다’는 ‘마음이 너무 상하여 속이 터질 듯하다’의 의미이다. 사랑하는 갑돌이의 모습을 본 갑순이가 마음의 상처로 인한 아픔을 신체 내부 기관의 손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슬픔’의 하위 범주인 ‘절망, 고통,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애통그차지다’도 ‘애통끈어지다, 애통터지다, 실게그차지다, 실게끈어지다, 실게창지그차지다, 실게창지끈어지다, 애그차지다, 애끈어지다, 애창지끈어지다, 오장그차지다, 오장끈어지다, 오장창지그차지다, 오장창지끈어지다’ 등 동

70)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p.125

71)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p.607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484

72)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585

73)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700

의적 표현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17ㄷ)은 ‘제통하다’의 예로 ‘제통하다’는 ‘나왔던 병이 다시 도져서 앓게 되다’의 의미로 감기가 다시 도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겨울철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감기가 나아가다 조금만 방심하면 다시 도지기 쉬운 병이라서 여기에서는 손자를 걱정하는 조부모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데, ‘슬픔’의 하위 범주인 ‘절망,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17ㄹ)은 ‘홀강홀강하다’의 예로 ‘홀강홀강하다’는 ‘목에 가래가 끓어 숨을 가쁘게 쉬면서 기운 없이 할딱거리며 가르랑거리다’의 의미이다. 기관지가 안 좋으면 목에 가래가 끓고 숨도 가쁘게 쉬게 되는데, ‘슬픔’의 하위 범주인 ‘고통,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홀강홀강하다’도 ‘을강거리다, 글강거리다, 흘강거리다, 흘그랑거리다, 흘그랑거리다, 할강거리다, 할그랑거리다, 할근거리다, 할근돌다, 흘강거리다, 흘근거리다, 흘근돌다’ 등 동의적 표현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어떤 단어를 갖다 놓아도 뜻이 통하고 감정도 거의 비슷하다. 이외에도 ‘올다⁷⁴⁾’는 중세국어 15세기 문헌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얼똥싸다’는 ‘힘든 일이나 예상치 못한 일로 몸이나 마음이 감당하기 어려운 괴로움을 당하다’의 의미로 얼이 담길 정도의 ‘느낌’을 나타내는 시각적 이미지를 강하게 동반하며 전달된다.

2.4. 형용사에 나타난 감정 표현

제주방언에서 슬픔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정신적 고통과 신체에서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였고, 주로 ‘-하다’와 결합하여 나타났다. 슬픔의 감정을 나타내는 제주방언 형용사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18) 간곤하다, 갈쿠랑하다, 걸쿠랑하다, 고단하다, 고뉘다, 궤뉘다, 궤롭다, 느랏하다, 느랏하다, 놀썩하다, 녹신녹신하다, 눈어쁘다, 눈청웃다, 딱하다, 메랑메랑하다, 메랑하다, 맥사리웃다, 맥웃다, 못준디다, 복삭하다, 복삭하다, 빈복하다, 서난하다, 불쌍하다, 서불쌍하다, 서우리하다, 서럽다, 서롭다, 설롭다, 섧다, 숨부뜨다, 숨바쁘다, 시랑시랑하다, 시름제우다, 아웨

74) 行宮에 도즈기 들어 님그미 올어시닐 赴援設疑 호샤 도즈기 도라가니. (행궁에 도적이 들어 임금이 우시겨를 부원설의하시어 도적이 돌아가니.) (《용비어천가》 33장)

웁다, 애똥다, 애설롭다, 애벗뜨다, 애삭하다, 애석하다, 액긋다, 오곰벗뜨다, 오곰븐뜨다, 어지렁하다, 어지렁칩지렁하다, 울엄직울엄직하다, 와쌉와쌉하다, 와직와직하다, 와지직와지직하다, 와지지하다, 을을하다, 얼얼하다, 바직바직하다, 바지직바지직하다, 바지지하다, 웨롭다, 을큰하다, 지치다, 피렁하다, 푸르죽죽하다, 혁숙하다, 혁숙편편하다, 헬쑥하다, 후지근하다, 휘지근하다, 휘주근하다, 흑지근하다, 흘그산이지다, 히어뜩하다, 히어질하다, 히여질하다

(18)은 형용사에 나타난 감정 표현으로 모두 간접적인 표현으로만 나타나 있다. 몇 가지 예를 통해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9) 가. 오늘은 아척 인척생이 모듬소본 글렌 구들문 을안 보난, 느랏헝게⁷⁵⁾ 뉘뉘서 느시 오몽을 못헝쿠덴 헝관테. (오늘은 아침 일찍 모듬벌초 가자고 방문을 열었더니, 축 늘어지게 누워서 도저히 움직이지 못하겠다고 해서.) (용례사전 I, p.65)
- 나. 요자기 알동네 개똥이 큰아방이 조통스고로 돌아가섯텐 들어지난 갑제기 기분이 늘쌉헝연⁷⁶⁾게마는 안직도 나 므심이 폐와지질 안 헝없저게. (요전번 아랫동네 개똥이 큰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으니까 갑자기 기분이 가라앉아서 아직도 내 마음이 펴지지 않을는구나.) (용례사전 I, p.275)
- 다. 사름덜광 헝디 상량식⁷⁷⁾을 베틀던 일구는 뜨가뜨가헝명 섭지그랑헝 생각도 들고 그 독이 눈어쁘기도⁷⁸⁾ 헝주만 느랑 꿈에 시꾸던 이녁 집을 짓어지는 코삿헝 므음이 더 컷다. (사람들과 함께 상량식을 보던 일구는 조마조마하면서 섬뜩한 생각도 들고 그 닭이 가련하고 안타깝기도 했지만 늘 꿈에 나타나던 자기 집을 짓는 흡족한 마음이 더 컷다.) (용례사전 II, p.145)

75)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p.194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139

76)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p.207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107

77) 집의 완성 단계에 집안의 평안을 비는 의식, 「제주어용례사전 II(양전형2021)」, p.144

78)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136

르. 주눅이 쉼우난 와싹흐다⁷⁹게. (지네 물리니까 따끔하네요.)

(19ㄱ)은 ‘느랏흐다’의 예로 ‘느랏흐다’는 ‘힘이 다 빠져 축 늘어지다’라는 의미이다. 기운이 없는 것이니 ‘맥없다’와 거의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무기력으로 활력을 잃게 되면 행동의 양이 감소되고 기운이 약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슬픔’의 하위 범주인 ‘절망,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19ㄴ)은 ‘눌싹흐다’의 예로 ‘눌싹흐다’는 ‘힘든 일을 하고 나서 힘이 다 빠져 나른하다’의 의미이다. 개똥이 큰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말에 충격을 받아 힘이 다 빠져 나른할 수밖에 없는 ‘슬픔’의 하위 범주인 ‘절망,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19ㄷ)은 ‘눈어쁘다’의 예로 ‘눈어쁘다’는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가련하고 안타깝게 느껴지다’의 의미이다. 여기에서는 상량식 때 닭을 제물로 바치는 모습을 보고 닭을 바라보는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이 내포되어 ‘슬픔’의 하위 범주인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19ㄹ)은 ‘와싹흐다’의 예로 ‘와싹흐다’는 ‘주사 따위를 맞아 따끔하다’의 의미이다. 지네에 물리니까 따끔하다는 데서 ‘슬픔’의 하위 범주인 ‘고통’이 드러나 있다. ‘와싹흐다’도 ‘와싹와싹흐다, 와지지흐다, 와직와직흐다, 와지직와지직흐다, 바지지흐다, 바지직바지직흐다, 바직바직흐다’ 등 동의적 표현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불쌍흐다⁸⁰, 웨롭다⁸¹, 섣다⁸², 서난흐다⁸³’는 중세국어 15세기 문헌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서난하다’는 ‘가난하고 서럽다’는 뜻으로 가난하고 서러운 ‘상황’을 나타내는 시각적 이미지를 동반하며 전달된다. ‘메랑메랑흐다’⁸⁴ ‘메랑흐다’⁸⁵는 전통 제주인이 아니면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감지하지도 못하는 어느 외국의 언어처럼 생소하고 독특한 말맛이

79)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522

80) 布施흐기를 즐겨 艱難흐며 어엿븐 사름을 쥐주어 거리칠썩. (보시하시기를 즐겨 간난하며 불쌍한 사람을 쥐여 주어 구제하므로.) (《석보상절》 6:13)

81) 우리 어시아드리 외롭고 입게 드외야 人生 즐거븐 쁘디 업고 주구를 기드리노니.(우리 모자가 외롭고 괴롭게 되어 인생에 즐거운 뜻이 없고 죽는 것을 기다리니.) (《석보상절》 6:5)

82) 비록 사름미 무레 사니고도 중싱 마도 묻호이다 섣본 人生이. (비록 사람의 무리에 살고도 짐승 만도 못합니다. 서러운 인생이.) (《석보상절》 6:5) 섣고 애받븐 쁘디여 누를 가줄빘가 사름이라도 중싱만 묻호이다. (서럽고 애달픈 마음이며 누구를 비교할까 사람이라도 짐승만 못하오이다.) (《월인천강지곡》 상:143)

83) 家人이 닐오디 艱難호 지비 어드리 오래 供養호려뇨. (가인이 이르되 가난한 집이 어떻게 오래 공양하겠느냐? (《월인석보》 22:13)

84) 피부 따위가 탄력을 잃어 힘없이 물렁물렁하다,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253

85) 피부 따위가 탄력을 잃어 물렁하다,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253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5. 감탄사에 나타난 감정 표현

제주방언에서 슬픔을 나타내는 감탄사는 주로 아프거나 힘들 때, 안타까운 일이 생겨서 탄식하는 소리 등으로 나타났다. 슬픔의 감정을 나타내는 제주방언 감탄사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20) 아가, 아가기어, 아야, 아야기여, 아여기여, 아여나야더리, 아야나야더리, 아여뎡어리, 아여시상, 아여시상에, 아여시상의, 아이고나어멍아, 아이고머니, 아이고멍아, 애가, 애게게, 애게, 어불쌍, 아불쌍, 아차불쌍, 어차불쌍, 어차불쌍, 어풀싸, 어풀쌍, 어쑹원, 어쑹원이라가민, 쑹원, 쑹원이라가민, 예쑹원, 허쑹원, 잉잉, 앵앵, 앵앵, 히힝

(20)은 감탄사에 나타난 감정 표현으로, 화자의 직접 발화나 행위가 모두 직접적인 감정 표현으로 나타난다. 몇 가지 예를 통해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ㄱ. 술 취허영 걸어가당 시상엿 것덜 뭇 무신 원수인 생인고라, 아무상 웃이 발로도 차불곡 손에 심어지는 걸로 막 못아불당 이녁도 혼디 다치명 “아가기여86!” 흐는 덩드렁마께형! (술 취해서 걸어가다 세상 엿 것들 모두 무슨 원수인 모양인지라, 까닭 없이 차버리고 손에 집히는 것으로 막 부수다가 자신도 함께 다치며 “아이 아파라!” 하는 덩드렁마께형! (용례사전 I, p.154)

ㄴ. 아이고나어멍아87, 아접씨 나 이 빠스 못 느리믄 광절허여지쿠다. (아이고, 나 이 버스 못 내리면 정신이 미칠 것 같습니다.) (용례사전 I, p.55)

86)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p.569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468

87)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p.580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474

- ㄷ. 어불쌍⁸⁸⁾, 큰일났네. 손에 몽둥이라도 들렁 오컬. (아빨싸, 손에 몽둥이라도 들고 올걸.) (용례사전Ⅱ, p.284)
- ㄹ. 아여시상에⁸⁹⁾, 그 가짜는 당신이 밥을 먹여준 중이 아니우파게. 아이고 딱흠도..., (세상에 그 가짜는 당신이 밥을 먹여준 쥐잖아요. 아이고 딱함도...,) (용례사전Ⅲ, p.92)

(21ㄱ)의 ‘아가기여’의 예이다. ‘아가기여’는 ‘아가’에 ‘기여’가 덧붙은 꼴로 꼬집히거나 찢리거나 하여 아플 때 내는 소리, ‘아이쿠야’ 따위의 의미이다. 술 취해서 걸어가다 세상에 불만이 많아 까닭 없이 차버리고 손에 잡히는 대로 무언가를 막 부수다가 자신도 다치게 되어 “아이 아파라!”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아픔의 감정이 내포되어 있는 ‘슬픔’의 하위 범주인 ‘고통’이 드러나 있다. (21ㄴ)은 ‘아이고나어멍아’의 예로 ‘아이고나어멍아’는 ‘아이고’에 ‘나 어멍아’를 덧붙은 것으로 ‘어마나, 아이구머니’의 의미이다. 버스가 내릴 곳을 세우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자 할머니가 갑자기 당황해서 나오는 소리인데 ‘슬픔’의 하위 범주인 ‘절망,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이는 상황에 따라 ‘아이고씨어멍아’ ‘아이고씨아방아’ 등 다른 말로도 바꿀 수 있다. (21ㄷ)은 ‘어불쌍’의 예이다. ‘어불쌍’은 잘못된 일이나 언짢은 일을 알게 된 때에 누우쳐 탄식하는 소리로 ‘아빨싸’의 의미이다. 길을 가다가 무서운 짐승 등이 나오자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몽둥이라도 들고 올 걸 하는 ‘슬픔’의 하위 범주인 ‘절망,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어불쌍’도 ‘아불쌍, 아차불쌍, 어차불쌍, 어차불쌍, 어풀싸, 어풀쌍’ 등 동의적 표현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21ㄹ)은 ‘아여시상에’의 예이다. ‘아여시상에’는 남의 처참한 사정을 보고서 가엾게 여겨 내는 소리로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따위의 의미이다. ‘쥐뿔’에 대한 옛날이야기의 한 부분인데, 피를 써서 주인 행세를 한 그 가짜가 주인이 밥을 먹여준 ‘쥐’라는 사실에 안타까워서 내는 소리로 ‘슬픔’의 하위 범주인 ‘절망,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이외에도 ‘아여나야더리’는 일이 딱하게 되었을 때 ‘아이고 참 딱하기도 하네’ 정도의 뜻으로 나도 어쩔 수 없는 표정의 ‘느낌’을 나타내는 시각적 이미지를 동반하며 전달된다. 또한 ‘어쑹원’⁹⁰⁾은 전통 제주인이 아니

88)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p.623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492
 89)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p.579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473

면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감지하지도 못하는 어느 외국의 언어처럼 생소하고 독특한 말맛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품사별로 정리한 ‘슬픔’의 감정 단어 개수를 보니, 사용 빈도는 동사>형용사>부사>감탄사>명사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 ‘슬픔’을 나타내는 감정 단어 개수

품사 기본 감정	명사	부사	동사	형용사	감탄사	합계
슬픔 개수	25	42	144	71	34	316

3. 분노를 나타내는 표현

「표준국어대사전」은 ‘분노’를 ‘분개하여 몹시 성을 냄, 또는 그렇게 내는 성’으로 정의한다. 또한 ‘성’이란 ‘노엽거나 언짢게 여겨 일어나는 불쾌한 감정’으로 정의한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노를 느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숨겨진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니라, 우리를 화나게 한 상황, 상대방, 사건들에 관심을 둔다(Coulter, 1979:127).⁹⁰⁾ 만약 우리가 누군가의 행동에 분노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행동이 일어나는 맥락 가운데서 의미 있는 행동을 알아차리고 그에 의미 있는 방식으로 반응한다. 곧 다른 이의 말과 행동에서 분노를 보고, 그에 대하여 그에게 변명을 하든지, 회피하든지, 되받아치든지 하는 반응을 하게 된다. 이 또한 처음에 분노한 상대방이 알아차릴 수 있는 방식으로 행해진다. 그러다가 얼굴이 붉어진다든지, 목소리 톤이 올라간다든지, 여러 가지 신체상의 변화를 동

90) 아랫사람이 한 일이 마음에 차지 않아 낭패를 당했을 때 안타까워 내는 소리로 ‘어 이게 웬일이야, 어찌 이럴 수가’ 정도의 뜻,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493

91) 하홍규(2017), 「분노(怒)」 표현의 단계와 정도성에 관한 고찰-한·일 양국어의 신체 어휘 관용구를 중심으로-日本語教育研究 第38輯, p.203 재인용.

반하는 경우가 많다. ‘분노’를 나타내는 하위 범주에는 「격분」, 「화」, 「나무람」, 「불만」 등이 있다.

다음은 제주방언 분노의 감정 표현에 대하여 구체적인 단어·뜻풀이·예문 등을 제시하면서 감정의 표현 양상과 언어적인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3.1. 명사에 나타난 감정 표현

제주방언에서 분노를 나타내는 명사는 사용 빈도가 아주 높게 나타났다.⁹²⁾ 특히, 신체를 하대하고 상대방을 나무라는 얄잡는 속된 표현과 동의적 표현이 다양한 형태로 빈번하게 나타났다. 분노의 감정을 나타내는 제주방언 명사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22) 국재기, 국췌기, 국취기, 국주와기, 국취애기, 국즈배기, 국저배기, 국주애기, 국취애기, 국취왜기, 굽굽다리, 굽테가리, 굽다가리, 가닥질, 간세다리, 간꼭다리, 간국다리, 가달머리, 가달춤, 가름도세기, 거슴손, 거심손, 거짓칼쟁이, 거러지, 건트집, 걸렁바쉬, 걸바지, 걸바치, 걸뽕이, 게와시, 고래백정, 구눔, 구석바치, 구석지기, 구석당장, 구성질, 구쟁이질, 구숭, 군눔, 굴레, 굴레산이, 궤약쟁이, 개옴다리, 개슴다리, 걸바시, 개차반이, 개차반이짓, 과닥, 과닥질, 광질다리, 광질다리, 술광질다리, 술광질다리, 구글레기, 굴투매기, 굴툑, 굴툑다리, 굴툑쟁이, 구똥배기, 귀똥기, 귀똥배기, 귀똥박이, 귀똥베기, 귀똥이, 귀아다리, 귀야다리, 귀야지, 귀예기, 귀통이, 꿇것, 꼬락사니, 꼬라지, 꼬락지, 꼬레, 풀데가리, 풀상아리, 풀약사니, 꿰다리, 꿰둥이, 꿰부리, 꿰쉬, 꿰쉬다리, 꿰주시, 꿰보, 나닥사니, 나무림, 년눔, 노네기, 노름쟁이, 노토매, 노토매기, 눈망둥이, 눈갈이, 눈께알이, 눈망귀, 눈망탱이, 눈망둥이, 느렁쟁이, 느렁테, 느르쉬, 늑다리, 늑쟁이, 늑격바리, 늑다리, 늑바리, 늑쟁이, 늑으니, 다보세, 답달, 답도리, 더펼개, 더풀개, 데가리, 득가리, 득쟁이, 다가리, 다강이, 다쟁이, 대가리, 대강이, 대쟁이, 대구리, 대굿박, 대망쟁이, 대망이, 대맹이, 대맹이, 더가

92) 기쁨 23개, 슬픔 25개, 분노 600개, 두려움 33개, 사랑 22개, 미움 22개, 놀라움 15개.

리, 더강이, 더갱이, 더망세기, 더망생이, 더멩이, 데강이, 데구리, 데곳박,
 데곳박이, 데망세기, 데망생이, 데망이, 데멩이, 도둑쟁이, 돌패기, 돛두루
 붕이, 돛두루웨, 돛두웨, 돛뚜림, 돛즘, 돛데멩이, 돛대加里, 동녕질, 동녕
 바치, 동녕아치, 두갓싸움, 두루붕이, 두루웨, 두레, 두루훤, 두리훤, 두루
 멩청이, 두롱싸움, 둔충다리, 뒷손, 웨놈, 뚜림, 똥푸데, 멩근년, 멩근년,
 멩근놈, 멩근놈, 막므음, 막므슴, 막섬, 막말, 말버렁거지, 말버르쟁이, 말
 버르쟁이, 말썸쟁이, 말썸쟁이, 말장시, 말쟁이, 말쟁이, 머굴챙이, 머굴챙
 이, 무굴챙이, 무굴챙이, 머똥이, 멩청다리, 매닥질, 매질, 모가지, 모고마
 지, 모게기, 모감지, 모그마지, 목고디, 목다리, 모냥게, 모냥다리, 모양다
 리, 모냥세, 몰멩다리, 몹썰놈, 몹썰짓, 못난거, 못난것, 못웬놈, 몽니, 몽
 니다리, 몽니쟁이, 무충다리, 물쿠시, 맏복쟁이, 맏주시, 머드럼질, 물토세
 기, 미아들놈, 밀고다리, 밀세다리, 밀추시닭은거, 불초와리, 불초와리, 붕
 붕이, 불딱이, 불딱이꾼, 붓쟁이, 븨쟁이, 붓쟁이, 반두루웨, 발모듬치기,
 발꼽데기, 발꼽대기, 발꼽대기, 발목다리, 발목에기, 발모게기, 밥장쉬, 발
 질, 발길질, 밥추시, 밥충, 밥푸데, 병게, 벳부기, 배따지, 배떼기, 배야뎡
 이, 배야쟁이, 배야지, 배통이, 벳다지, 벳보곰지, 벳복, 벳부기, 벳떼기,
 배야뎡이, 배야지, 벳토막이, 벳통이, 벳통이, 벳보기, 벳복, 벳복지, 벨락
 쉬, 벨락쉬질, 부에, 부에토메기, 부엿짐, 북두메기, 불도독놈, 불썸둥이,
 범벅쉬, 불따귀, 불망대기, 불망대기, 불망뎡이, 불치, 불치머리, 불튼가
 리, 불타구니, 불타귀, 불태기, 불타加里, 불탁사니, 불탁서니, 불닥사니,
 불타加里, 빗주시, 빗쟁이, 뽕게질, 뻘암데기, 뻘암다귀, 뻘야망데기, 뻘암
 다구리, 뻘암다, 뻘닥사니, 술토메기, 살런다리, 상긔것, 상뚜림, 상판데
 기, 상판이, 서늱다가리, 서늱데加里, 서늱세, 서늱게, 섬창아리, 섬창지,
 섬토막, 섬토멕기, 섬토멕이, 세격년, 세격놈, 세염창지, 세염창아리, 썸토
 막, 썸토멕이, 썸창아리, 썸창지, 생과닥, 생군융, 생그깃말, 생떼거지, 생
 아연, 생야단, 생어거지, 생억지, 생어거지쟁이, 생언강, 생염살, 생트짐,
 성질머리, 소도리, 소도리쟁이, 소도리질, 속창지, 손꼽데기, 손꼽대기, 손
 꼽대기, 손목다리, 손모개기, 홀모개기, 장모개기, 장목다리, 풀모개기, 풀
 목다리, 홀목다리, 홀목이, 술푸데, 싱쟁이질, 씨양이질, 씨양이질, 썩쟁이

질, 썩engi, 썩engi질, 썩engi질, 술광절다리, 승계다리, 승계쟁이, 승구데기,
 솟놈, 솟다리, 솟봉테, 솟봉이, 솟봉테, 솟사름, 식충다리, 심술, 심술다리,
 심술쟁이, 심으쟁이, 심웃, 쉼즈, 싸움바락질, 싸움박질, 싸움쟁이,
 씹부게, 쉼우데기, 쉼올레기, 아가리, 아구리, 아귀, 아가리질, 아구리질,
 아귀드툼, 아귀싸움, 아연쟁이, 아연다리, 야게, 욱심쟁이, 욱쟁이, 으구리,
 으그락쉬, 이그락쉬, 옥박쉬, 옥쉬, 옥쉬다리, 옥쥼, 옥쥼바시, 옥쥼다리,
 옥둥이, 옥둥이, 옥사구리, 옥은슬게, 역사구리, 역사우리, 역쉬, 역쥼다리,
 읊치, 읊치까리, 악다구리, 악다구리질, 악매, 악바리, 악살, 악살다귀,
 악살대기, 악살쟁이, 악심꽃, 양작쉬, 양작다리, 야그락쉬, 야기염다리,
 야냥게, 야냥, 야단방망이, 야빈닥, 야속다리, 야속쟁이, 야슴치기, 어거짓꾼,
 억지꾼, 억지다리, 억지둥이, 억질둥이, 으뜸성, 으뜸쉬, 어중기, 어지림탕쉬,
 억담, 억지, 억지치기, 억질, 언강다리, 언강쉬, 언강쟁이, 얼랑쉬,
 얼합쉬, 엄살다리, 엄피, 엉둥머리, 궁둥쥐배기, 궁둥패기, 엄팽이, 엉덩짝,
 엉덩파기, 엉둥패기, 엉치, 엉둥이, 잠지패기, 여산쟁이, 요망다리,
 요망쟁이, 요빈닥, 옥데기, 옥도기, 옥디기, 옥지기, 옥심꾸레기, 옥질,
 용심, 우김다리, 우김성, 액흔일, 웨올레기, 울똥쉬, 웨올름, 으름장, 입허주,
 와달, 즈깁이, 즈깁이, 저깁이, 즈드랑이, 즈드랭이, 좃깁이, 즈깁이,
 저깁이, 저드랑이, 저드랭이, 적깁이, 젓강이, 젓깁이, 제강이, 존다니,
 좃출다리, 줍푸데, 줍주웨기, 줍제기, 자근테, 자드락쉬, 자부세, 자뵤세,
 짜보세, 작산놈, 작산것, 잡놈, 졸문다리, 졸문쟁이, 주둥아리, 죽쉬다리,
 죽쉬, 중기, 지랄, 질타당년, 짓고생, 짓망신, 쪼다가리, 썩engi질, 차추와리,
 차츄와리, 촌두웨, 촌빙신, 초라니, 초라대기, 초란이, 철타산이, 철데가리,
 출람생이, 코막쉬, 코막쟁이, 코멜씩이, 코벨레기, 큰체, 툃대기, 털어봉,
 태작, 태작질, 터투와리, 터투아리, 터터와리, 판고집다리, 판굴툃다리,
 판무식, 판무식다리, 판무식쟁이, 패닥질, 패락쉬, 포마시, 포마쉬, 포쉬,
 포시, 포신, 푸마시, 핑계다리, 핑계쟁이, 푼쉬, 풍언다리, 혼다니, 혼다니,
 허천둥이, 허풍쉬, 허풍다리, 허풍쟁이, 헛어탕쉬, 헛고생, 헛나이, 헛소리,
 헛손, 헛손질, 헛입, 헛질, 호랑가달, 호랭이질, 호스아치, 호스쟁이,
 흑경, 핫병, 핫병, 핫짐, 해, 휘, 후레아들, 후리아들, 호로즈식, 훌테

순이, 훗공론, 흘그세, 흘그쉬, 히멍이

(22)는 명사에 나타난 감정 표현으로, ‘씨양이질’, ‘악다구리질’, ‘욕질’ 등은 화자나 행위자의 감정이 바로 분출되는 직접적인 감정 표현으로 나타나고, ‘똥니쟁이’, ‘서늱다가리’, ‘출람생이’ 등은 간접적인 감정 표현으로 나타난다. 몇 가지 예를 통해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3) 가. 아이털은 스춘지간인디 잘 놀당도 가당오당 죽재기⁹³⁾추룩 손콰으로 죽주멍덜 잘 드툰다게. (이 애들은 사춘지간인데 잘 놀다가도 가다 오다 할퀴기 잘하는 사람처럼 손툰으로 할퀴면서 잘 다투어요.) (용례사전 I, p.308)

나. 가인 가닥질이 잘도 씨고 쩡앵이질광 양작쉬에다 쿨툰다리⁹⁴⁾에다 스고몽치랏다. (그 애는 장난이 아주 심하고 씨양이질과 큰소리로 울부짖고 심술부리는 사람에다 사고몽치였다.) (용례사전 II, p.47)

다. 이제 그만 만나젠 헛멍 나 삐암테길⁹⁵⁾ 줄기는 브름에 나도 몰르게 경 웨엇저게. (이제 그만 만나겠다고 하면서 내 뺨을 때리는 바람에 나도 몰르게 그렇게 됐어.) (용례사전 I, p.83)

라. 그런 식이지. 막 악바리⁹⁶⁾ 담덴 헛거지. 불각제기랑.(그런 식이지. 막 악바리 같다고 한 거지. 불각제기⁹⁷⁾랑.) (신춘리 21, p.125)

마. 큰놈이 오늘 아척 수대폰을 안 사주민 흑폴 안 가켄 헛멍 생어거지⁹⁸⁾ 를 써가난 부에똤싸전 이신디. (큰아들이 오늘 아침 휴대폰을 안 사주면 학교에 안 가겠다고 하면서 터무니없이 어거지를 부리니 화가 나 있는데.) (용례사전 I, p.258)

바. 느 오몽흐는 꼬락사니⁹⁹⁾가 그거 똤고? 유을언 맥사리 웃인 느똤유

93)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p.126

94)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77

95)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379

96)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p.584

97) 고기 이름이 아니라, 옛날 어른들이 물질하는 사람을 ‘불각제기’라 불렀다고 함. 「제주어구술자료집-신춘리 21」, p.125

98)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420

99)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97

우레기 답다원. (너 움직이는 꼴이 그게 뭐니? 야위어서 맥없는 배
추시레기 같다.) (용례사전 I, p.269)

(23ㄱ)은 ‘꺾재기’의 예이다. ‘꺾재기’란 ‘손톱으로 할퀴기를 잘하는 사람’을 뜻한다. 아이들이 사춘지간에 잘 놀다가도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며 싸우는 모습에서 ‘분노’의 하위 범주인 ‘격분, 화, 불만’이 드러나 있다. ‘꺾취기’도 ‘꺾취기, 꺾취애기, 꺾즈배기, 꺾재기, 꺾저배기, 꺾주애기, 꺾취애기, 꺾취왜기’ 등 동의적 표현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걸바시’는 ‘가난하고 의지할 곳이 없어 돌아다니면서 얻어먹는 사람’을 일컬으며 ‘걸바지, 걸바치, 걸뱅이, 게와시, 거러지, 걸렁바쉬, 동녕바치, 동냥아치’ 등 동의적 표현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23ㄴ)은 ‘굴퉁다리’의 예이다. ‘굴퉁다리’란 ‘노여움을 걸로 드러내지 않고 심술을 부리며 무언의 반항을 잘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장난이 아주 심하고 씨양이질과 심술부리는 아이였다는 데에서 ‘분노’의 하위 범주인 ‘화, 나무람, 불만’이 드러나 있다. ‘굴퉁다리’ 외에도 접미사 ‘-다리, -둥이, -쉬, -와리, -쟁이’ 등이 명사에 붙어서 상대방을 나무라거나 불만을 나타내는 분노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¹⁰⁰⁾ ‘썰앵이질’은 ‘어린 아이가 무언가를 보채면서 안달하는 것, 다른 사람의 의견에 제 주장을 고집하며 이러쿵 저러쿵 따지면서 결정을 미루게 하는 일’의 의미인데, 여기서도 ‘썰쟁이질, 싱쟁이질, 씨양이질, 썰앵이질, 썰앵이질, 씨

100) 굵굵다리, 간세다리, 간곡다리, 간국다리, 개움다리, 개슴다리, 고집다리, 굴퉁다리, 귀아다리, 귀야다리, 꿰다리, 꿰쉬다리, 늑다리, 무충다리, 욱심다리, 흙세다리, 흙쟁이다리, 언강다리, 밀고다리, 밀세다리, 모냥다리, 모양다리, 목다리, 멍청다리, 몽니다리, 도망다리, 봉근다리, 팻뱅다리, 건풍다리, 죽쉬다리, 식충다리, 심술다리, 핑계다리, 우김다리, 빈복다리, 헐복다리, 광질다리, 광질다리, 살런다리, 술광질다리, 술광질다리, 솟다리, 승계다리, 몰맹다리, 몰명다리, 멍게다리, 억지다리, 억질다리, 좇춤다리, 구눔다리, 군용다리, 궁흥다리, 아연다리, 억취다리, 옥쉬다리, 옥취다리, 양작다리, 야기염다리, 야속다리, 언강다리, 엄살다리, 요망다리, 웨고집다리, 존꿰다리, 줄문다리, 죽쉬다리, 허풍다리, 풍언다리, 펠롱다리, 팻뱅다리, 간세쟁이, 건풍쟁이, 거짓갈쟁이, 굴특쟁이, 귀막쟁이, 궤약쟁이, 노름쟁이, 느렁쟁이, 늑쟁이, 말버르쟁이, 말버르쟁이, 말썸쟁이, 말썸쟁이, 말쟁이, 말쟁이, 맷복쟁이, 몽니쟁이, 멍게쟁이, 승계쟁이, 아연쟁이, 악살쟁이, 야속쟁이, 싸움쟁이, 심으쟁이, 심술쟁이, 억지쟁이, 언강쟁이, 허풍쟁이, 요망쟁이, 우김쟁이, 핑계쟁이, 도둑쟁이, 욱쟁이, 욱심쟁이, 빗쟁이, 줄문쟁이, 고집쟁이, 승계쟁이, 코막쟁이, 격대쉬, 걸렁바쉬, 걸작쉬, 걸작쉬, 귀막쉬, 꿰쉬, 막쉬, 느르쉬, 드름쉬, 밥장쉬, 범벅쉬, 벨락쉬, 봉그쉬, 봉근쉬, 야그락쉬, 양작쉬, 어름쉬, 얼랑쉬, 얼합쉬, 죽쉬, 어지림탕쉬, 언강쉬, 허풍쉬, 헐어탕쉬, 이그락쉬, 으그락쉬, 옥박쉬, 옥쉬, 역쉬, 울웨쉬, 자글락쉬, 포마쉬, 패락쉬, 펠롱쉬, 펠롱쉬, 푼쉬, 헐어탕쉬, 흘그쉬, 헛대쉬, 헛대쉬, 간세둥이, 걸작둥이, 꿰둥이, 불썸둥이, 봉근둥이, 허천둥이, 억지둥이, 억질둥이, 옥둥이, 터투와리, 터투아리, 터투와리, 버부와리, 차추와리, 차츄와리, 불초와리, 불초와리.

양이질’ 등 동의적 표현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식충다리’는 ‘밥을 지나치게 욕심을 내며 많이 먹는 사람’을 뜻하며, ‘먹기만 하는 ‘충’에게 하는 욕이며 ‘상황’과 ‘형태’를 나타내고 있고, ‘터투와리’는 ‘잔소리를 하거나 쓸데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을 얹잡아 일컫는 말’로 쓸데없는 ‘소리’와 ‘모습’을 나타내는 시칭각적 이미지를 동반하며 전달하고 있다. (23ㄷ)은 ‘빼얌데기’의 예로 ‘빼얌데기’는 ‘뺨’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상대방에게 너무 실망하여 이제 그만 만나겠다고 발화하면서 상대방의 뺨을 때리는 행동에서 ‘분노’의 하위 범주인 ‘격분, 화, 불만’이 드러나 있다. ‘빼얌데기’도 ‘빼얌다귀, 빼야망데기, 빼얌다구리, 빼얌닥’ 등 동의적 표현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옥쉬’는 ‘피가 많고 임시방편에 능한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을 얹잡아 이르는 말’의 의미인데, ‘옥박쉬, 옥박쥐, 옥쉬다리, 옥쥐바시, 옥쥐다리, 옥둥이, 옥둥이, 옥사구리, 옥쥐, 역사구리, 역삭구리, 역쥐다리’ 등 동의적 표현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23ㄹ)의 ‘악바리’의 예로 ‘악바리’는 ‘말은 일을 끈덕지고 억척스럽게 해나가는 사람’의 의미이다. 힘든 물질을 하는 해녀들을 ‘악바리’ 같다고 하는 데서 ‘분노’의 하위 범주인 ‘격분, 화, 불만’이 드러나 있다. (23ㄱ)은 ‘생어거지’의 예로 ‘생어거지’는 ‘터무니 없는 어거지’의 의미이다. 큰아들이 휴대폰을 안 사주면 학교에 안 가겠다고 터무니없이 어거지를 부리는 모습에서 ‘분노’의 하위 범주인 ‘화, 불만’이 드러나 있다. 여기에서 접두사 ‘생-’이 붙으면 ‘가당치 않은, 거짓의, 길들이지 않은’ 등의 뜻을 지녀서 상대방을 나무라거나 얹잡는 감정이 더 격하게 나타난다.¹⁰¹⁾ (23ㄴ)은 ‘꼬락사니’의 예로 ‘꼬락사니’는 ‘꼴’의 낮은말로 움직이는 꼴이 야위어서 맥없는 배추 시레기 같다는 데서 ‘분노’의 하위 범주인 ‘화, 나무람, 불만’이 드러나 있다.

이외에도 ‘꿨다리’는 ‘피가 많은 사람’의 뜻으로 ‘꿨둥이, 꿨부리, 꿨쉬, 꿨쉬다리, 꿨주시, 꿨보’ 등 동의적 표현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숫봉테’는 ‘분수를 모르는 사람’의 뜻으로 ‘숫놈, 숫다리, 숫봉테, 숫봉이, 숫봉제, 숫사름’ 등으로 동의적 표현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귀통이’는 ‘귀의 주변’의 뜻으로 ‘귀똥배기, 구똥배기, 귀똥배기, 귀똥박이, 귀똥배기, 귀똥이, 귀아다리, 귀야다리, 귀야지, 귀예기’ 등으로 동의적 표현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굽데가리’는 ‘사리를 판단하는 능력’을 뜻하며

101) 생과닥, 생군용, 생그깃말, 생떼거지, 생아연, 생야단, 생어거지, 생억지, 생어거지쟁이, 생언강, 생업살, 생트집.

‘곱다가리, 썸창아리, 썸토맥이, 세염창지, 섬창아리, 섬창지, 섬토막, 섬토맥기, 섬토맥이, 세염창아리, 썸창지, 썸토막’ 등 동의적 표현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또한 ‘늪다리’는 ‘늪은이’를 얹잡아 이르는 말로 ‘늪쟁이, 늪쟁이, 늪쟁이, 늪으니, 늪다리, 늪격바리, 늪바리’ 등 동의적 표현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똥데가리’는 ‘좋지 못한 것, 하찮은 것’의 뜻으로 접두사 ‘똥’으로 시작되는 ‘똥데맹이, 똥두웨, 똥두루붕이, 똥두루웨, 똥두럼, 똥줍’ 등 동의적 표현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파생어로 된 ‘분노’의 감정 표현이 있는데, ‘판무식’, ‘헛손’, ‘술푸데’, ‘부에 토메기’ 등이 있다. ‘판무식’은 접두사 ‘판-’이 결합된 파생어인데, 접두사 ‘판-’은 ‘순전히, 완전히’ 따위의 뜻을 지녀서 나타난다.¹⁰²⁾ ‘헛손’은 접두사 ‘헛-’이 결합된 파생어인데, 접두사 ‘헛-’은 ‘참되지 못한, 쓸데 없는 실속 없는, 보람 없는 잘못된’ 따위의 뜻을 지녀서 나타난다.¹⁰³⁾ ‘술푸데’는 접미사 ‘-푸데’가 결합된 파생어인데, 접미사 ‘-푸데’는 ‘지나치게 먹거나 마시는 사람을 얹잡아 이르는 말’로 상대방을 나무라고 얹잡는 감정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¹⁰⁴⁾ ‘부에토메기’는 접미사 ‘-토메기’가 결합된 파생어인데, 접미사 ‘-토메기’는 명사에 붙으면 상대방을 나무라고 얹잡는 표현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¹⁰⁵⁾

지금까지 명사에 나타난 분노 감정 표현을 살펴보면, 감정이 거칠고 고조된 면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신체를 하대하고 상대방을 나무라면서 얹잡는 속된 표현과 동의적 표현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데가리’는 주로 동물의 머리통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나, 사람의 ‘머리’의 뜻으로 쓰일 때는 ‘머리’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데가리’는 거의 30여 개가 되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¹⁰⁶⁾ 또한 ‘불때기’는 ‘불’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나타나고,¹⁰⁷⁾ ‘벧부기’는 ‘배(腹)’를 낮잡아 이르는 말로 나타난다.¹⁰⁸⁾ ‘엉덩짝’도 ‘엉덩이’의 낮잡아

102) 판무식, 판무식다리, 판무식쟁이, 판고집다리, 판굴뚝다리.

103) 헛손, 헛손질, 헛넉, 헛노릇, 헛고생, 헛질, 헛나이, 헛소리.

104) 술푸데, 밥푸데, 똥푸데, 줍푸데.

105) 부에토메기, 썸토메기, 술토메기.

106) 득가리, 득쟁이, 다가리, 다강이, 다쟁이, 대가리, 대강이, 대쟁이, 대구리, 대긋박, 대망쟁이, 대망이, 대맹이, 대맹이, 더가리, 더강이, 더쟁이, 더망세기, 더망쟁이, 더맹이, 데강이, 데구리, 데긋박, 데긋박이, 데망세기, 데망쟁이, 데망이, 데맹이.

107) 불따귀, 불망대기, 불망데기, 불망맹이, 불치, 불칫머리, 불퓌가리, 불타구니, 불타귀, 불태기, 불타가리, 불탁사니, 불탁서니, 불닥사니, 불타가리.

108) 배따지, 배떼기, 배야맹이, 배야쟁이, 배야지, 배툽이, 벧다지, 벧보곰지, 벧복, 벧부기, 벧떼기,

이르는 말로 나타나고,¹⁰⁹⁾ ‘주둥이’는 사람의 ‘입’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주둥아리, 주둥머리, 주둥패기’ 등으로 나타난다. ‘귀똥배기’는 ‘귀’를 낮잡아 이르는 말로 ‘귀통이, 구똥배기, 귀때기, 귀똥박이, 귀똥배기, 귀똥이, 귀아다리, 귀야다리, 귀야지, 귀예기’ 등으로 나타나고, ‘삐얌데기’는 ‘뺨’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삐야망데기, 삐얌, 삐얌다구리, 삐얌다귀, 삐얌닥, 삐얌망데기’ 등으로 나타난다. ‘눈망둥이’도 욕을 할 때, 인상에 따른 ‘눈’을 아주 나빠 이르는 말로 ‘눈갈이, 눈깨알이, 눈망귀, 눈망탱이, 눈망둥이’ 등으로 나타나고, ‘모가지’는 ‘목’을 비속하게 이르는 말로 ‘모고마지, 모게기, 모감지, 모그마지, 목고디, 목다리’ 등으로 나타난다. 또한 ‘야게’는 ‘모가지’의 다른 제주방언으로 ‘야가기, 야가지, 야게기, 야께기, 야게’ 등으로 나타나고, ‘코막쟁이’는 ‘코’를 속되게 이르는 말로 ‘코멜썩이 코벨레기’ 등으로 나타난다. ‘손꼽데기’는 ‘손’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손꼽대기, 손꼽대기’ 등으로 나타난다. ‘발꼽데기’는 ‘발’을 얕잡아 이르는 말로 ‘발꼽대기, 발꼽대기’ 등으로 나타난다. ‘아가리’는 ‘입’을 비속하게 이르는 말로 ‘굴레, 굴레산이, 아구리, 아귀’ 등으로 나타나고, ‘즈깁이’는 ‘겨드랑이’의 낮은말로 ‘즈깁이, 즈깁이, 즈드랑이, 즈드랭이, 좃깁이, 즈깁이, 저깁이, 저드랑이, 저드랭이, 적깁이, 젓깁이, 젓깁이, 제깁이’ 등으로 나타난다. ‘손목다리’는 ‘손목’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손모개기, 홀모개기, 장모개기, 장목다리, 풀모개기, 풀목다리, 홀목다리, 홀목이’ 등으로 나타나고, ‘발목다리’는 ‘발목’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발목예기, 발모개기’ 등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제주방언이 투박하고 거친 어휘가 많다는 것은 섬이라는 환경과 정서의 차이도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외부로부터 수많은 침략과 수탈,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제주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온통 저항과 방어 의식이 강하다보니 어투가 더 격해지고 투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주방언은 감정언어이든 일반언어이든 독특하다. 국어학자들이 제주방언을 언어학적으로 형태를 분석하고 풀이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제주방언으로 소통하고 살아온 전통 제주인이 아니면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언어들도 상당히 많다. 바꿔 말하면 제주방언은 어느 외국의 언어처럼 독특하고 생소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또한 제주방언은 말맛이 깊다. 그런 깊은 말맛은 제주방언으로

베야뎡이, 베야지, 베토막이, 베통이, 베통이, 뱃보기, 뱃북, 뱃북지.
109) 엉둥머리, 궁둥취배기, 궁둥패기, 엄쟁이, 엉덩썩, 엉덩파기, 엉둥패기, 엉치, 엉둥이, 잠지패기.

소통되고 이해되는 사람만이 온전히 느낄 수 있다. 표준어의 어떤 어휘를 가지고 제주방언으로 대체하여 소통할 때 화자나 청자가 느끼는 언어의 깊은 맛은 어떤 언어와는 견줄 수 없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 예를 들어보면 ‘머굴챙이(생각이 답답하게 모자란 사람이나 제 생각만 하는 사람이나, 귀가 먹은 사람을 얹잡아 이르는 말)’, ‘물쿠시(심술을 잘 부리는 사람)’, ‘돌패기(인정머리 없는 놈)’, ‘범벅쉬(사리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 ‘물토세기(살찐 사람, 욕심쟁이)’, ‘불썰둥이(이른바 성이 불완전하여 이중으로 된 사람)’, ‘병계(바보)’ 등이다.

또한 제주방언은 다른 지역보다 몽골어 차용이 많고 한자어가 많이 쓰이는 게 특징이다. 많은 선비가 유배나 제주에 부임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미루어 짐작하는 바지만, 이는 제주어에 선비 문화가 많이 반영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¹¹⁰⁾ 강영봉(2007)에서는 ‘골총, 구기, 구녕, 서답, 승시, 테물’ 등이 ‘고총(古塚), 구구(九九), 궁흉(窮凶), 세답(洗踏), 흉사(凶事), 흉악(凶惡), 퇴물(退物)’ 등이 한자어 또는 한자음에서 온 어휘라 했다.¹¹¹⁾ 또한 제주도와 몽골은 사신을 파견할 때 제주 성주를 동행하게 한 1266년부터 고려에 귀속되는 1367년까지 100년 동안 관계를 맺는다. 100여 년간 제주와 몽골이 가졌던 접촉과 교류는 대립과 갈등 관계로 이어진 경우도 적지 않았으나, 상당수의 몽골족이 제주에 들어와 정착하고, 제주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살았다. 이때 제주와 몽골의 교류는 직접적이며,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제주와 몽골의 교류가 이루어짐에 따라 목축업이 크게 성행하고, 인구 규모도 확대되는 등 제주 사회가 크게 변모하였다. 또한 몽골문화의 영향이 확인되는 국제적 위상의 사찰도 세워졌다.¹¹²⁾ 이처럼 제주와 몽골의 관계는 3대에 해당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몽골어가 제주어의 한 켠을 이루고 있음은 당연한 일이다. 예를 들면 ‘가달머리’는 ‘가달’의 낮은말로 ‘가닥’과 같은 뜻이며, ‘가달춤’은 ‘가달’의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심하게 하는 지나친 놀이를 얹잡아 일컫는 말’이다. 여기서 ‘가달’은 몽골어 차용어로 ‘하자갈(qajagar)’에서 온 말이다. ‘하자갈’에서 ‘ㅎ’과 ‘ㄱ’은 서로 넘나든다. ‘징기스칸’ 하는 사람도 있고, ‘징기스한’ 하는 사람도 있다. ‘징기스칸’이든 ‘징기스한’이든 같은 사람이니

110) 강영봉·김순자·김미진(2020), 「제주어 길라잡이」, 각, pp.269-270 인용.

111) 고동호 외(2014), 「제주방언 연구의 어제와 내일」, 제주발전연구원, p.322 인용.

112) 전경수 외(2013), 「탐라사의 재해석」, 제주발전연구원, p.203 인용.

‘하자갈’이 ‘가달’이 됨은 자연스럽다.¹¹³⁾

3.2. 부사에 나타난 감정 표현

제주방언에서 분노를 나타내는 부사는 같은 말을 거듭 반복함으로써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는 어휘들이 많았다. 반복 표현은 주로 의성어나 의태어에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 이는 흉내 대상의 다채로움을 보다 생동감 있게 표현하거나, 혹은 감정 상태를 격하게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고 있다. 분노의 감정을 나타내는 제주방언 부사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24) 가드락가드락, 가들락가들락, 가락, 가락가락, 곤당곤당, 거들락거들락, 개작개작, 객객, 갠죽갠죽, 껍괵, 까들락까들락, 놀뭇놀뭇, 대군대군, 들국들국, 뵈득뵈득, 바락, 바락바락, 바그그, 바득바득, 벨딱벨딱, 불치락불치락, 북북, 불딱불딱, 불딱불딱, 불룩불룩, 불쑥불쑥, 봉당봉당, 뵈뵈, 뵈당뵈당, 뵈진뵈진, 뵈진뵈진, 불착불착, 불치락, 불치락불치락, 백백, 쉬틀리민, 실구룻실구룻, 실구룻이, 실긋실긋, 싹탁싹탁, 싹트락싹트락, 양죽양죽, 엄방덤방, 여붓지, 응응, 응을랑응을랑, 응장응장, 응진응진, 응은응은, 앙은앙은, 응은응은, 으뵈록스뵈록, 으든에고든에, 와쌩파쌩, 와작작, 와작작와작작, 울딱, 울딱울딱, 울락, 자드락자드락, 쩍쩍, 조진조진, 지그무찌, 지그뭇이, 지그뭇지그뭇, 지근지근, 차작차작, 커실락커실락, 커싱커싱, 크싱크싱, 코질락코질락, 커들락커들락, 거들락거들락, 타들락타들락, 터들락터들락, 콧, 파쌩, 패들락패들락, 파들락파들락, 패락패락, 껍, 피쌩, 흘긋이, 흘긋흘긋, 흘금흘금, 흘긋흘긋, 흘끔흘끔, 흘끗흘끗, 히끗히끗, 히뵈히뵈, 헬긋헬긋, 힐긋힐긋

(24)는 부사에 나타난 감정 표현으로, ‘불딱불딱’, ‘커실락커실락’, ‘패락패락’ 등 동적인 부사는 직접적인 감정 표현으로 나타나고, ‘쉬틀리민’, ‘여붓지’, ‘으든에고든에’ 등은 간접적인 감정 표현으로 나타난다. 몇 가지 예를 통해 사용 양상을

113) 강영봉·김순자·김미진(2020), 「제주어 길라잡이」, 각, p.274 인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5) ㄱ. 경허여 낱 웬수덜 곶이 불딱불딱¹¹⁴⁾ 돌아삿당도 뒷녘날 또시 만나지
민 막 반가왕 허멍덜 곶이 잘 놀곡. (그렇게 해놓고 원수처럼 감정이
틀어져 돌아섰다가도 다시 만나면 반가워 하면서들 같이 잘 놀
고.) (용례사전 I, p.308)
- ㄴ. 이 하르방, 늣다리가 입만 살앙 옹을랑옹을랑¹¹⁵⁾ 호랭이질 흐는 거
보라. (이 할아버지, 늣은이가 입만 살아서 자꾸 잔소리하면서 으박
지르는 것 보라.) (용례사전 II, p.193)
- ㄷ. 거 눈 흘긏흘긏¹¹⁶⁾ 흘 거 시냐? 이디서 손 잡으라. 경허영 화애 시켜
불곡 경 헤나서. (그거 눈 흘금흘금 할 거 있니? 여기서 손 잡아라.
그래서 화해시키고 그렇게 했었지.) (태흥리 30, p.297)
- ㄹ. 가이신디 뭐센 곶으민 괘들락괘들락¹¹⁷⁾ 용심만 내여마썸. (그 애한
테 뭐라고 하면 괘들락괘들락 화만 냅니다.) (용례사전 II, p.29)

(25ㄱ)은 ‘불딱불딱’의 예로 ‘불딱불딱’은 ‘성질이 급하여 조금만 하면 성을 별
컱별컱 내는 꼴’의 의미이다. 손자들이 잘 놀다가도 무언가에 토라져 원수같이
성을 별컱별컱 내며 싸우는 모습에서 ‘분노’의 하위 범주인 ‘격분, 화, 불만’이 드
러나 있다. ‘불딱불딱’도 ‘불착불착, 불치락불치락, 불탁불탁, 벨치락벨치락, 벨딱벨
딱, 벨착벨착’ 등 동의적 표현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25ㄴ)은 ‘옹을랑옹을
랑’의 예로 ‘옹을랑옹을랑’은 ‘시끄럽게 자꾸 잔소리를 해대는 꼴’의 의미이다. 할
아버지가 자꾸 잔소리하며 으박지르는 모습에서 ‘분노’의 하위 범주인 ‘격분, 화,
불만’이 드러나 있다. ‘옹을랑옹을랑’도 ‘옹장옹장, 옹옹, 옹진옹진, 앙은앙은, 옹은
옹은, 옹은옹은’ 등 동의적 표현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25ㄷ)은 ‘흘긏흘긏’
의 예로 ‘흘긏흘긏’은 ‘경계의 눈초리로 흘금흘금 흘기며 살펴보는 꼴’의 의미로
사람이 서로 살아가면서 사이 안 좋게 살아갈 필요가 있느냐며 손잡고 서로 화

114)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362

115)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465

116)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732

117)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682

해시키는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서는 서로 감정이 격해져 눈을 흘기는 모습에서 ‘분노’의 하위 범주인 ‘격분, 화, 불만’이 드러나 있다. ‘흘긋흘긋’은 ‘실긋실긋, 들긋들긋, 흘긋흘긋, 헬긋헬긋, 흘금흘금, 흘끔흘끔, 흘끗흘끗, 힐긋힐긋, 히끗히끗, 힐끗힐끗, 실구룣이, 흘긋이, 실구룣실구룣’ 등 동의적 표현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25ㄷ)은 ‘꽤들락꽤들락’의 예로 ‘꽤들락꽤들락’은 ‘조금만 하면 성을 벌컥벌컥 내는 꼴’의 의미로 그 애에게 무슨 말만 하면 성을 벌컥벌컥 내는 모습에서 ‘분노’의 하위 범주인 ‘격분, 화, 불만’이 드러나 있다. ‘꽤들락꽤들락’도 ‘꽤들락꽤들락, 파들락파들락, 폰들락폰들락, 푸들락푸들락’ 등 동의적 표현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커싱커싱’은 ‘기회만 있으면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일마다 성질을 부리는 꼴’을 의미하며 트집 잡는 ‘모양’과 ‘소리’를 느끼게 시청각적 이미지를 동반하며 전달하고 있다. ‘붕당붕당’은 ‘하는 일이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듣기 싫게 중얼거리며 불평하거나 잔소리하는 꼴’을 의미하며 불평하는 ‘소리’와 ‘모양’을 나타내고, ‘울딱울딱’은 ‘갑자기 한꺼번에 성질이나 불길이 일어나 걸잡지 못하게 번지는 꼴’을 의미하며 걸잡지 못하는 성질의 ‘모습’을 나타내고, ‘거들락거들락’은 ‘거떡거리는 꼴’을 의미하며 거떡거리거나 잘난 척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앙죽앙죽’은 ‘듣기 싫게 되풀이해서 소리치거나 꾸짖는 꼴’을 의미하며 듣기 싫게 되풀이 하는 ‘소리’와 ‘모양’을 나타내고, ‘벨딱벨딱’은 ‘갑자기 노하여 성깔을 부리는 꼴’로 노하여 성질을 부리는 ‘모양’과, ‘타들락타들락’은 ‘말할 때 소리가 매끄럽게 이어지지 못하고 더듬더듬하는 꼴’을 의미하며, 말할 때 울퉁불퉁 불만의 ‘소리’와 ‘모양’을 나타내는 시청각적 이미지를 동반하며 전달되고 있다.

3.3. 동사에 나타난 감정 표현

제주방언에서 분노를 나타내는 동사는 사용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¹¹⁸⁾ 주로 ‘-흐다’, ‘-거리다’, ‘-대다’는 흥내말과 결합하여 새로운 말을 만드는 예가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접두사 ‘처-’, ‘피-’, ‘헛-’, ‘생-’, ‘죽-’ ‘죽어-’, ‘짓-’ 등이 붙으면 감정이 거칠고 상대방을 나무라거나 알잡는 표현이 더 강해지면서 내

118) 기쁨 59개, 슬픔 144개, 분노 356개, 두려움 60개, 사랑 36개, 미움 83개, 놀라움 50개.

부 감정이 더 격하게 나타났다. 분노의 감정을 나타내는 제주방언 동사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26) 가들락거리다, 가딱거리다, 가들락가들락하다, 가락가락하다, 꺾주다, 곤당곤당하다, 가닥질하다, 가닥하다, 가타부타하다, 간곡하다, 간국하다, 간세하다, 과닥질하다, 과닥하다, 과락과락하다, 객객거리다, 갠죽갠죽하다, 거들락거들락하다, 거리밀다, 거슴손하다, 건트집걸다, 건트집하다, 구성질하다, 구생이질하다, 구송하다, 구실리다, 구슬리다, 구시리다, 꼬슬리다, 꼬슬우다, 꾸슬리다, 꾸실롭다, 꾸실리다, 군농부리다, 게죽거리다, 게작거리다, 게작게작하다, 게죽게죽하다, 광들리다, 광미치다, 광질들리다, 광절놀다, 광절하다, 광절들리다, 굴레질하다, 굴푹부리다, 내데끼다, 내동뎡이치다, 내들루다, 내부찌다, 내올리다, 내장들입하다, 내푹치다, 내후리다, 내훈들다, 내훈들르다, 내췌네췌하다, 내장들입하다, 네씩하다, 냉기리다, 노다시리다, 노망하다, 늡대다, 늡드다, 낫북히다, 눈꼴하다, 눈꼴하다, 눈놀못하다, 는태다, 답드리하다, 답도리하다, 답들이하다, 답들이하다, 답달하다, 대군대군하다, 대판싸움하다, 독살피우다, 돛두웨질하다, 돛두웨짓하다, 돛뚜럼질하다, 돛홍이다, 두루싸다, 두루싸불다, 웨걸러지다, 웨다끄다, 뒷손벌리다, 뒷손질하다, 뒷손짓하다, 들러다, 데끼다, 들러데끼다, 들러쑤다, 뜯려못다, 뜯려먹다, 따따부따하다, 따주다, 뜯려부수다, 뜯려지다, 뜯리다, 떠덕거리다, 막말하다, 막보다, 머드럼질하다, 머똥이하다, 매카지다, 메카지다, 메다부찌다, 메어다부찌다, 메닥질하다, 매질하다, 맥카지다, 맥카지다, 모감지심다, 몽니부리다, 미쳐가다, 미치다, 벅득상아리다, 마드드하다, 발모듬치기하다, 발질하다, 발질거리하다, 발착하다, 반미치다, 북맥이다, 봉맥이다, 베기우다, 베베짜하다, 베채우다, 벨딱거리다, 벨착거리다, 벨딱벨딱하다, 벨딱하다, 벨라지다, 벨락벨락하다, 부룩부룩하다, 부수닥질하다, 부수대기다, 부시대기다, 부에나다, 부에내다, 불룩불룩하다, 불축불축하다, 불질르다, 봉당봉당하다, 봉당봉당하다, 봉당봉당하다, 봉장봉장하다, 봉진봉진하다, 봉얼봉얼하다, 봉을랑봉을랑하다, 증은증은하다, 봉봉거리다, 봉봉거리다, 봉

진거리다, 붕진들다, 뽕게치다, 빼얌뜨리다, 성올르다, 성가시롭다, 세깍
 차다, 생아연하다, 생야단하다, 생억지하다, 생어거지하다, 생엄살하다,
 생트집하다, 생핑계하다, 승보다, 승악하다, 승구데기털다, 쉬틀리다, 식
 식하다, 실겨보다, 실구릇실구릇하다, 실구릇하다, 실그릇실그릇하다, 실
 곳실곳하다, 실기다, 심술부리다, 심이풀다, 싱겅이하다, 싹다, 쌍욕하다,
 쌍내다, 쉼우데기다, 쉼올르다, 쉼여앗다, 아가리질하다, 아귀드투다, 아
 귀드툼하다, 아귀싸움하다, 아가리싸움하다, 아당하다, 야귀염하다, 악살
 하다, 악쓰다, 앙을랑앙을랑하다, 앙은앙은하다, 앙주끄다, 앙죽앙죽하다,
 앙앙하다, 앙탈하다, 앙얼하다, 어거지쓰다, 울딱하다, 울르다, 울름장하
 다, 웅얼털다, 웅상조합하다, 웅웅하다, 웅웅거리다, 웅을랑거리다, 웅을
 랑웅을랑하다, 웅장거리다, 웅장웅장하다, 웅진거리다, 웅진웅진하다, 억
 설르다, 억지부리다, 억지쓰다, 얼합지다, 얼합치다, 엄탁하다, 엄피놓다,
 엄피하다, 엄잡다, 와달쓰다, 요망부리다, 요망피우다, 요빈닥질하다, 요
 빈닥하다, 욱들리다, 욱디기나다, 욱질하다, 욱하다, 용심나다, 용심내다,
 웨올르다, 웬장치다, 으름장하다, 으먹다, 욱백이다, 으서르다, 으설르다,
 으저리다, 을근대다, 입빼쭈하다, 입씨름하다, 즈그극하다, 준다니하다,
 줍무치다, 줍아틀우다, 자들아지다, 자들자들하다, 잡도리하다, 정체빠지
 다, 정체웃다, 젓눈질하다, 조진조진하다, 졸르다, 주주싸다, 죽살하다, 줄
 호랑하다, 좇박다, 쉼여박다, 쉼여지르다, 지근거리다, 지근지근하다, 지
 득걸다, 지랄빙하다, 지랄치다, 짓이기다, 짓부수다, 짓부수닥질하다, 짓
 부수대기다, 짓죽이다, 짓패다, 좇박다, 좇앗다, 좇어든다, 좇어담다, 좇어
 뭇다, 츄불락하다, 차불락하다, 처두드리다, 처먹다, 처뭇다, 처맞다, 처담
 다, 처입다, 처욕하다, 체대기다, 칭원하다, 크싱크싱하다, 커싱커싱하다,
 큰냥하다, 큰체하다, 트다지다, 트라지다, 타발하다, 타작하다, 태작하다,
 탓하다, 트집잡다, 트집하다, 패다끄다, 패닥질하다, 패락지다, 패락패락
 하다, 퍼뭇다, 퍼먹다, 퍼두드리다, 퍼부수다, 퍼붓다, 퍼쓰다, 퍼욕하다,
 퍼맞다, 포마시하다, 포부뜨다, 푸근대다, 피짜하다, 하시하다, 허대다, 허
 우튼다, 허위여가다, 허위여들다, 허주나다, 허주내다, 헛입놀리다, 행실
 작내다, 호랑가달하다, 흑경하다, 혼불놓다, 화들다, 왜나다, 휘나다, 왜내

다, 휘내다, 후닥닥하다, 후려굴기다, 후려갈기다, 후려야단하다, 후리데기다, 후림대하다, 훈다니하다, 훈다락하다, 훈두왁하다, 홀터야단하다, 홀텅거리다, 홀테순이하다, 흥이다, 휘다올리다, 흘긱흘긱하다, 흘기다, 흘기려보다, 흥글어텅기다, 히맹이하다

(26)은 동사에 나타난 감정 표현으로 행위자의 행동에서 바로 분출되는 ‘거들락거들락하다’, ‘부수닥질하다’, ‘좃어못다’ 등은 직접적인 감정 표현으로 나타나고, ‘맥카지다’, ‘성가시롭다’, ‘허주나다’ 등은 간접적인 감정 표현으로 나타난다. 몇 가지 예를 통해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7) 가. 멜 거릴 땐 탕! 돌 데끼민 거 누게냐? 흐민 원담 다운 사름덜이 용심내고¹¹⁹⁾, 원담 하나 답지도 안하고 멘딱 돌 데끼고. (멸치 뜰 땐 탕! 돌 던지면 거 누구냐? 하면, 원담 쌓은 사람들이 화를 내고, 원담 하나 쌓지도 안 하고 모두 돌 던지고.) (신촌리 21, p.297)
- 나. 아신, 밧일이라도 시기민 혼차 뤼센산디 붕당붕당흐멍¹²⁰⁾ 호록기 들 아나불곡 흐여신디. (동생은 밧일이라도 시키면 혼자서 무슨 말인지 중얼중얼하면서 재빨리 달아나버리고 했는데.) (용례사전 I, p.207)
- 다. 삐얌뜨렸수덴¹²¹⁾. 이거 온 디가 어디라렌 누굴 애멕이젠 흐멍 이 따 위짓을 흐멍 귀똥베길 뜨렸수덴 흐난. (뺨을 때렸습니다고. 이거 온 데가 어디라고 누굴 애먹이려고 하면서 이따위 짓을 하냐고 귀통일 때렸습니다고 하니까.) (온평리 23, p.43)
- 르. 경 안 행 싸와집니까게. 아녕 거 헛젠 헤사 싸움이 돼주. 게난 경흐 난 나가 쌌젠¹²²⁾ 경 흡디가? 쌌젠 경 해도 건 도리가 아납주. (그렇게 안 해서 싸워집니까. 안 한 거 했다고 해야 싸움이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내가 싸우려고 그렇게 합디까? 싸우려고 그렇게 해도 그건 도리가 아니지요.) (온평리 23, p.75)

119)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p.687

120)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367

121)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p.480

122)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p.561

- 口. 누게가 아명 구실려도¹²³⁾ ㄱ딱도 안ㅎ는 돌탱이우다게. (누구가 아무리 피어도 까딱도 안 하는 돌덩이입니다.) (용례사전Ⅱ, p.201)
- ㅂ. 이쪽이서 가민 산쪽엔 물엄젠 이제 답달ㅎ명¹²⁴⁾ 심어다 낱. (이쪽에서 가면 산쪽엔 문다고 답달하면서 잡아다 놔서.) (태흥리 25, p.38)
- ㅅ. 이젠 기냥 오란 그자 초가집덜 다 불질러불고¹²⁵⁾ 젊은 사름덜은 기냥 막 현장이서 사살시켜불고 해가지고. (이제는 그냥 와서는 그저 초가집들 다 불질러버리고 젊은 사람들은 그냥 현장에서 사살시켜버리고 해서.) (수망리 15, p.28)

(27ㄱ)은 ‘용심내다’의 예로 ‘용심내다’는 ‘몹시 언짢거나 못마땅하여 노여움을 나타내다’의 의미이다. 여기에서는 원담 쌓을 때 전혀 돕지도 않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니 애쓰게 원담 쌓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원담¹²⁶⁾’이란 ‘해변 조간대(潮間帶)에 만(灣)을 이루는 듯한 곳에 돌담을 축조해 놓고 밀물을 따라 몰려든 고기떼를 썰물이 나면 그 안에 가둬놓아 쉬 잡을 수 있게 장치해 둔 곳’을 말하는데, 제주 사람들의 공동체 정신으로 서로 쌓은 원담을 전혀 돕지도 않은 사람이 애쓰게 쌓아놓은 돌을 물에 던져버리는 모습에 매우 화를 내는 감정이 내포되어 있는 ‘분노’의 하위 범주인 ‘화’가 드러나 있다. (27ㄴ)은 ‘붕당붕당ㅎ다’의 예로 ‘붕당붕당ㅎ다’는 ‘하는 일이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듣기 싫게 중얼거리며 불평하거나 잔소리하다’의 의미이다. 발일을 시키면 동생이 하기 싫어서 듣기 싫게 중얼중얼 불평하면서 재빨리 달아나곤 했다는 ‘분노’의 하위 범주인 ‘화, 불만’이 드러나 있다. ‘붕당붕당ㅎ다’는 ‘붕당붕당ㅎ다, 붕당붕당ㅎ다, 붕장붕장ㅎ다, 붕진붕진ㅎ다, 붕얼붕얼ㅎ다, 붕을랑붕을랑ㅎ다, 붕붕거리다, 붕붕거리다, 붕진거리다, 붕진들다’ 등 동의적 표현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27ㄷ)은 ‘빼얌뜨리다’의 예로 ‘빼얌뜨리다’는 ‘뺨 때리다’의 의미이다. 화가 많이 나서 뺨을 때리는 데서 ‘분노’의 하위 범주인 ‘격분, 화, 불만’이 드러나 있다. (27ㄹ)은 ‘쌈다’의 예로 ‘쌈다’는 ‘싸우다’의 의미이다. ‘쌈다’의 중세 어휘는

123)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p.91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72

124)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162

125)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697

126)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p.687

‘사호다, 싸호다¹²⁷⁾’로 15세기 중세국어 문헌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이 안 한 짓을 했다고 하면 화가 나서 싸움이 된다는 ‘분노’의 하위 범주인 ‘격분, 화, 불만’이 드러나 있다. (27口)은 ‘구실리다’의 예로 ‘구실리다’는 ‘그럴 듯한 말로 남을 피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다’의 의미이다. 여기에서는 누가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피어도 까딱도 안 한다는 데서 ‘분노’의 하위 범주인 ‘나무람, 불만’이 드러나 있다. ‘구실리다’도 ‘구슬리다, 구시리다, 꼬슬리다, 꼬슬우다, 꾸슬리다, 꾸실롭다, 꾸실리다’ 등 동의적 표현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27ㅂ)은 ‘답달흐다’의 예로 ‘답달흐다’는 ‘다그쳐 케묻다’의 의미로 사람들을 잡아다 놓고 뉘달하는 데서 ‘분노’의 하위 범주인 ‘격분, 화, 불만’이 드러나 있다. (27ㅅ)은 ‘불질르다’의 예로 ‘불질르다’는 ‘불지르다’의 의미로 초가집들을 다 불지르고 젊은 사람들은 현장에서 다 죽어버렸다며 제주 4·3사건 때의 모습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분노’의 하위 범주인 ‘격분, 화, 불만’이 드러나 있다. 이외에도 ‘뚫두뚫질흐다’는 ‘어리어리하고 모자란 사람처럼 행동하다’의 의미로 ‘뚫두뚫질흐다, 뚫두뚫질흐다, 뚫두뚫질흐다, 뚫뚫이다’ 등 동의적 표현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옹옹흐다’는 ‘불만을 가지고 투덜거리다’의 의미로 ‘옹옹거리다, 옹을랑거리다, 옹을랑옹을랑흐다, 옹장거리다, 옹장옹장흐다, 옹진거리다, 옹진옹진흐다’ 등 동의적 표현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으름장흐다’는 ‘으름장을 놓다’의 의미로 ‘으름장흐다, 우름장흐다, 우림창흐다, 울름장흐다, 울림장흐다, 울림창흐다’ 등 동의적 표현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아가리질흐다’는 ‘거칠게 말하거나 욕하다’를 나쁘게 이르는 말로 거칠게 욕하는 ‘소리’와 ‘모양’을 나타내고, ‘앙을랑앙을랑흐다’는 ‘투덜대며 잔소리를 심하게 하다’의 뜻으로 투덜대며 잔소리하는 ‘소리’와 ‘모양’을 나타내며, ‘홀터야 단흐다’는 ‘정신을 차릴 수 없이 야단치다’의 의미로 정신없이 야단하는 ‘소리’와 ‘모양’을 나타내는 시청각적 이미지를 동반하며 전달된다. 이외에도 ‘뵉카지다¹²⁸⁾, ‘떠덕거리다¹²⁹⁾, ‘뵉득상아리다¹³⁰⁾, ‘자들자들흐다¹³¹⁾, ‘크싱크싱흐다¹³²⁾’는 전통

127) 싸호는 한소를 두 소내 자비시며. (方鬪巨牛 兩手執之, 싸우는 황소를 두 손에 잡으시며.) (《용비어천가》 52장)

128) 몹시 속이 상해 애가 타다, 애가 잦아질 정도로 발버둥치고 몹부림치다,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256

129) 자기가 잘난 척하며 으스스대며 떠들어대다,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216

130) 어떤 일에 강한 집착을 보며 이를 악물고 텀비는 모습을 하다,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제주인이 아니면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감지하지도 못하는 어느 외국의 언어처럼 생소하고 독특한 말맛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주방언에서 분노를 나타내는 동사는 대체적으로 화가 나면 자신의 감정을 알리거나 상대방을 위협하기 위해 눈 모양이 사나워지며 목소리가 커지고 언행이 공격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접두사 ‘줏-’과 ‘줏어-’는 ‘마구, 닥치는 대로’의 뜻을 지녀서 ‘줏박다, 좃았다, 좃어담다, 좃어뭇다’로 나타나고, 접두사 ‘처-’는 ‘마구, 힘껏, 닥치는 대로’ 따위의 뜻을 지녀서 ‘처두드리다, 처먹다, 처뭇다, 처맛다, 처박다, 처담다, 처입다, 처욕하다’ 등으로 나타난다. 접두사 ‘퍼-’는 ‘마구, 함부로’의 뜻을 지녀서 ‘퍼먹다, 퍼두드리다, 퍼쓰다, 퍼욕하다, 퍼맛다’ 등으로 나타나서 상대방을 공격할 때는 큰소리로 악을 쓰며 달려들거나 대어드는 행동과 말에서 격분의 감정이 더 격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특이한 점이 반복어와 흉내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주방언은 같은 말을 거듭 반복함으로써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는 어휘들이 아주 많다. 반복 표현은 주로 의성어나 의태어에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 이는 흉내 대상의 다채로움을 보다 생동감 있게 표현하거나, 혹은 감정 상태를 격하게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고 있다. 또한 제주방언 ‘-하다’, ‘-거리다’, ‘-대다’는 흉내말과 결합하여 새로운 말을 만드는 예가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제주방언 ‘-하다’, ‘-거리다’, ‘-대다’가 갖는 의미 외에 반복의 의미를 더 가지고 있어, 흉내형식의 의미가 동작성인지 상태성인지에 관계없이 흉내말과 결합하여 반복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4. 형용사에 나타난 감정 표현

제주방언에서 분노를 나타내는 형용사는 모욕적으로 느껴지거나 분하다는 감정 등으로 나타났고, 주로 ‘-하다’와 결합하여 나타났다. 분노의 감정을 나타내는

2007)」, p.298

131) 한마디도 물러섬이 없이 남을 약올리면서 말을 많이 하다,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562

132) 트집을 잡으려고 기회를 엿보면서 성질을 부리다,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658

제주방언 형용사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28) 가드락하다, 가지락하다, 케쌌하다, 케약하다, 귀질기다, 느실다, 놀세우다, 말베삽다, 말사깍다, 못됐다, 몰멧스럽다, 몰멧하다, 몽니긋다, 무충하다, 물정어둡다, 분쉬모르다, 분쉬웃다, 분하다, 송구막작하다, 심술긋다, 싸무랍다, 알랑하다, 액하다, 엄창웃다, 얼토당토아니하다, 오고불통하다, 오고하다, 옥심싸무랍다, 옥심쩌다, 옥다, 읊치웃다, 우김쩌다, 우터하다, 쫘쫘하다, 코질락하다, 패락지다, 패랍다, 패랍다, 껍하다, 껍하다, 험하다

(28)은 형용사에 나타난 감정 표현으로, 형용사의 특성상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품사이므로 모두 간접적인 감정 표현에 해당된다. 몇 가지 예를 통해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9) ㄱ. 사름 봐지민 “밥은 먹읍데가? 난 돛케기에 곤밥 먹언마씀” 흐멍 벵름에 비니루 퍼택이는 소리로 자랑하는 그 말베사와노난¹³³⁾ 마을회관이서라도 놀당 자일 뵈려져가문 어드레 확 스로기고정 한다게. (사람 보이면 “밥은 먹었나요? 저는 돼지고기에 쌀밥 먹었어요.” 하면서 바람에 비닐 파닥이는 소리로 자랑하는 그 입이 재고 가벼우니까 마을회관에서라도 놀다가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어디로 확 사라지고 싶어진다.) (용례사전 I p.304)
- ㄴ. 아모 웨구도 엇이 못뉜 짓덜만 흐는 호스아치에다 분쉬웃인¹³⁴⁾ 년놈덜이다. (아무 생각도 없이 못뉜 짓들만 하는 사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다 사리분별 없는 년놈들이다.) (용례사전 II, p.60)
- ㄷ. 게메이, 이 엘록훈¹³⁵⁾ 시상 견단 거난 벵레기 굿뉜 신을 벗어데껴뉜 가실 거라. (글쎄 말야. 이 더러운 세상 걸었던 거니까 눈에 거슬리다고 신을 벗어 던져두고 갔을 거야.) (용례사전 I, p.121)

133)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239

134)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p.461

135)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p.607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485

르. 물? 물이 폐락진¹³⁶⁾ 물도 식고 순흔 물도 이서. (말? 말이 사나운
말도 있고 순한 말도 있어.) (신촌리 21, p.250)

(29ㄱ)은 ‘말베삽다’의 예로 ‘말베삽다’는 ‘입(말)이 재고 가볍다’의 의미로 여기에서는 너무 자기만 잘난척하고 자랑하는 모습에 마을회관에서 놀다가도 보게 되면 슬쩍 사라져버리고 싶어진다는 ‘분노’의 하위 범주인 ‘나무람’이 드러나 있다. (29ㄴ)은 ‘분쉬웃다’의 예로 ‘분쉬웃다’는 ‘분수없다’의 의미이다. 아무 생각이 못된 짓들만 하는 사치를 좋아하고 사리분별 없는 사람들을 나무라는 데서 ‘분노’의 하위 범주인 ‘나무람’이 드러나 있다. (29ㄷ)은 ‘엘록ㅎ다’의 예로 ‘엘록ㅎ다’는 ‘찌찌하고 더럽다’의 의미이다. 세상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여러 사람들로 인해 상처를 받고 울분이 터져 가끔은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 인생의 허무를 느끼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죽으면서도 더러운 세상을 걸었던 자신의 신발도 벗어두고 갔을 거라는 복합적인 감정이 내포되어 있는 ‘분노’의 하위 범주인 ‘화, 불만’이 드러나 있다. (29ㄹ)은 ‘폐락지다’의 예로 ‘폐락지다’는 ‘성질이 신경질적이고 사납기 때문에 다루기가 힘들다’의 의미이다. 키우는 말도 성질이 사나운 말도 있고 순한 말도 있다는 ‘분노’의 하위 범주인 ‘나무람, 불만’이 드러나 있다.

3.5. 감탄사에 나타난 감정 표현

제주방언에서 분노를 나타내는 감탄사는 상대방이 하는 일이 마음에 차지 않아서 편찬하거나 나무랄 때 등으로 나타났다. 분노의 감정을 나타내는 제주방언 감탄사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30) 나들년, 나들눔, 나야, 나야더리, 내야더리, 네야, 네야더리, 넌자, 네에기, 넌장, 넌장아더리, 머식게라, 메, 메계라, 메시계라, 뭇게라, 무사, 으따, 온나, 읍다, 웃나, 웃다, 아따, 애따, 어따, 업다, 예따, 으따가라, 온나가라, 읍다가라, 웃나가라, 웃다가라, 아따가라, 애따가라, 애따가라, 어따가라, 업다가라, 예따가라, 아여아여, 아영아영, 아이고아이고, 아이강아이

136)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p.857

강, 아이공아이공, 애애, 예끼, 원, 츠마가라, 츠마도가라, 험다, 험다가라,
헛다, 헛다가라

(30)은 감탄사에 나타난 감정 표현으로, 화자의 직접 발화로써 모두 직접적인
감정 표현에 해당된다. 몇 가지 예를 통해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1) ㄱ. 어멍 아방 식게 합제흐카양? 메¹³⁷⁾, 식게흐는 거 경 에려우냐? (어
머니 아버지 제사 합제할까요? 메, 제사하는 게 그리 어렵니?)
- ㄴ. 어머니, 경 돈 하영 벌영 누게 주쿠과? 메께라¹³⁸⁾, 느 무신 말 험디?
(어머니,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누구에게 줄 건가요? 메께라, 너는
무슨 말을 하느냐?)
- ㄷ. 츠마가라¹³⁹⁾, 어른안티 경 버릇엇이 대들어시냐? 나가 뭐 잘못도 안
헤신디, 막 욱흐난마썸. 츠마가라, 어떻흐난 말대답이고? (차마, 어른
에게 그렇게 버릇없이 대들었느냐? 내가 뭐 잘못도 안 했는데 아주
욕하니까요. 감히, 어째서 말대답이냐?)
- ㄹ. 야인 아척부떠 무신 썰테기 웃인 소리고? 느네 아방 만이만 흐민 질
이주. 무사¹⁴⁰⁾? (얘는 아침부터 무슨 썰데없는 소리냐? 너희 아버지
만큼만 하면 제일이지. 왜?) (용례사전 I, p.28)
- ㅁ. 으따가라¹⁴¹⁾, 건 무신 말이고. 먼저 앓는 사람이 임제주기. (아따, 그
건 무슨 말이야. 먼저 앓는 사람이 주인이지.) (용례사전Ⅲ, p.32)

(31ㄱ)은 ‘메’의 예로 ‘메’는 ‘무엇이야, 웬일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일
이야’ 따위의 뜻을 지닌 의미로, 부모 제사를 한꺼번에 지내자는 의견을 제시하
고 있다. 이에 상대방은 ‘메’를 사용하여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상대방의 발화가 너무 못마땅하고 상식 밖이라 ‘분노’의 하위 범주인 ‘화, 나무람,

137)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252

138)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288

139)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p.823

140)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273

141)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464

불만'이 드러나 있다. (31ㄴ)은 '메꺼라'의 예로 '메꺼라'는 '무언가 말이야, 웬일이야'의 따위의 뜻을 지닌 의미로, 어머니가 쉬지 않고 일을 하는 부지런함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여 일을 적당히 하고 쉬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에 돈을 벌어서 누구를 주겠냐고 하자, 상대방의 말이 너무 어이없고 생똥맞다는 의미로 '메꺼라'를 발화하고 있다. 즉 화자의 말에 동의할 수도 없고 화자가 생각하는 것만큼 돈도 많이 벌지 못한다는 뜻으로 '내가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아니야.'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분노'의 하위 범주인 '화, 나무람, 불만'이 드러나 있다. (31ㄷ)의 '츠마가라'의 예로 '츠마가라'는 '남이 하여서는 안 될 일을 하였을 적에 못마땅하게 여겨서 내는 소리'의 의미로 청자의 입장에서 화자의 언행이 기대 이하이거나 엉뚱할 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때 표준어는 '차마', '감히'에 해당된다. 화자는 청자의 행동이 아주 못마땅함을 강조하면서 '츠마가라'를 발화하고 있다. 이때 '츠마가라'는 청자의 행동이 무례하고, 예상 밖임을 나무라고 책망하는 의미로 쓰였다. 즉 화자는 상대방의 태도를 나무라면서 다시는 어른에게 버릇없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충고를 하며 복합적인 감정이 내포되어 있는 '분노'의 하위 범주인 '화, 나무람, 불만'이 드러나 있다. (31ㄹ)은 '무사'의 예로 '무사'는 물음을 나타내는 '왜, 어째서' 따위의 의미이다. 화자가 아버지 흉을 보자 청자는 너희 아버지 만큼만 하면 제일이다면서 '무사'를 발화하고 있다. 이때 '무사'는 청자의 행동이 무례하고 나무라면서 책망하는 여러 감정의 의미로 '분노'의 하위 범주인 '화, 나무람, 불만'이 드러나 있다. (31ㅍ)은 '으따가라'의 예이다. '으따가라'는 '으따'에 '가라'가 덧붙여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에 '부정, 놀라움, 나무람' 따위의 뜻을 나타내려 할 때 앞에 쓰이는 말로 주로 반어적으로 쓰이는 의미이다. 여기서 '으따가라'는 나무람, 빈정거림, 반어, 또는 상대방의 생각에 대한 강한 공감과 동조를 표현하기도 한다. 상대방이 할머니가 앓은 자리는 비싼 돈을 내야만 앓을 수 있는 자리라고 말하자, 할머니는 '으따가라'를 발화하며 상대방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정말 그럴 수 있니?' 라는 강한 불만이 내포되어 있다. 먼저 앓은 사람이 주인이라며 상대방을 책망하고 있는 '분노'의 하위 범주인 '나무람, 불만'이 드러나 있다. '으따가라'도 '은나가라, 읍다가라, 웃나가라, 웃다가라, 아따가라, 애타가라, 애타가라, 어따가라, 엷다가라, 예따가라' 등 동의적 표현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전통 제주인이 아니면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감지하지도 못하는 어

는 외국의 언어처럼 생소하고 독특한 말맛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품사별로 정리한 ‘분노’의 감정 단어 개수를 보니, 사용 빈도는 명사>동사>부사>감탄사>형용사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3> ‘분노’를 나타내는 감정 단어 개수

품사 기본 감정	명사	부사	동사	형용사	감탄사	합계
분노 개수	600	92	356	41	52	1,141

4. 두려움을 나타내는 표현

「표준국어대사전」은 ‘두려움(怖)’을 ‘두려운 느낌’으로 정의한다. 이훈구 외(2003)에 의하면 ‘두려움(怖)은 현재 우리 앞에 위협하고 위협적인 자극이 있거나 그것이 일어날 것을 예상할 때 생기는 감정이다.’¹⁴²⁾라고 하고 있다. 「두려움은 신체적 위협이나 위협으로 신체적으로 다쳤다고 느낄 때 일어난다. 또한 사회적 위협으로 거부를 당했거나 창피를 당했거나 무안이나 무시를 당했을 때도 일어난다. 두려움의 감정은 다가올 자신에게 이롭게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고 자신에게 이롭게 작용하길 바라는 감정이 내포되어 있다. 두려움을 나타내는 하위 범주에는 「적극적 두려움-공포」, 「소극적 두려움-죄책감, 부끄러움, 걱정」 등이 있다.

다음은 제주방언 두려움의 감정 표현에 대하여 구체적인 단어·뜻풀이·예문 등을 제시하면서 감정의 표현 양상과 언어적인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42) 이훈구 외(2003), 「정서 심리학」, 법문사, p.107 인용.

4.1. 명사에 나타난 감정 표현

제주방언에서 두려움을 나타내는 명사는 신체적 위험이나 위협을 느꼈을 때, 주로 급박한 상황에서 야기되는 감정으로 예기치 못한 경험 등에서 나타났다. 두려움의 감정을 나타내는 제주방언 명사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32) 겁똥, 겁쉬, 겁재, 겁쟁이, 겁질, 공다리, 광난이, 광난개, 급살, 기정질, 꾸질떡, 눈쌀, 눈톡, 눈소리, 대코쟁이, 뒤창절박, 도깡이주제, 동티, 므슴, 물폐기, 바농코쟁이, 생송장, 송시, 송힘, 췌고지, 엉장질, 액땀, 액막이, 액맥이, 우새, 우세, 즈들메, 찡피

(32)은 명사에 나타난 감정 표현으로, 두려움의 감정을 품고 있으나 정적인 상태로 있으면서 모두 간접적인 감정 표현에 해당된다. 몇 가지 예를 통해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3) ㄱ. 밤이 혼차 걸어오는데, 도깨비불이 확 지나가난 녀미 므스완 걸똥¹⁴³⁾쌌수다게. (밤에 혼자 걸어오는데, 도깨비불이 재빨리 지나가니까 너무 무서워서 겁걸에 똥을 쌌습니다.)
- ㄴ. 우리 딸은 므슴¹⁴⁴⁾ 한 아이라노난 통시에 혼차 못가마씨. (우리 딸은 무서움이 많은 아이라서 변소에 혼자 못갑니다.)
- ㄷ. 메누리야, 요조금 무신 즈들메¹⁴⁵⁾가 이시냐? (며느리야, 요즘 무슨 걱정스러운 일이 있니?) (용례사전 I, p.307)
- ㄹ. 어디 간 들언 보난 액막이¹⁴⁶⁾로 큰 곳 헤사 흐켄 홉디다. (어디 가서 물어보니 액막이로 큰 곳 해야겠다고 하더군요.)
- ㅁ. 손지가 줌 자당도 줌막줌막 놀레어가난 저 공다리¹⁴⁷⁾신디 간 침 맞

143)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46

144)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223

145)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p.793

146)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p.607

147)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65

안 오랏수다. (손자가 잠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라니까 저 침바치에게 가서 침 맞고 왔습니다.)

(33ㄱ)은 ‘겁똥’의 예로 ‘겁똥’은 ‘겁결에 자신도 모르게 싸는 똥’의 의미이다. 캄캄한 밤에 혼자서 걸어오는데 도깨비불이 지나가니까 너무 무서워서 겁결에 똥을 싸다는 것이다. 도깨비불로 인해 갑자기 무서움의 감정을 느끼는 ‘두려움’의 하위 범주인 ‘공포’가 드러나 있다. (33ㄴ)은 ‘막슴’의 예로 ‘막슴’은 ‘무서움’의 의미로 자신의 딸이 겁이 많은 아이라서 변소에 혼자 못 간다는 딸아이의 두려운 감정을 나타내는 ‘두려움’의 하위 범주인 ‘공포’가 드러나 있다. (33ㄷ)은 ‘즈들메’의 예로 ‘즈들메’는 ‘걱정거리가 될 만한 일’의 의미로 며느리의 모습이 어둡고 수척해 보였기 때문에 시부모가 며느리를 걱정하는 마음이 나타나는 ‘두려움’의 하위 범주인 ‘걱정’이 드러나 있다. (33ㄹ)은 ‘액막이’의 예로 ‘액막이’는 ‘액(厄)을 막아 행운이 오기를 기원하는 재차(祭次)이름’의 의미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액막이’는 ‘액이 찾아들 때는 개인이나 한 가족이 그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액막이는 개인이나 가족을 단위로 행하게 되고, 가족적인 행사로 치르게 되며, 한 마을을 대상으로 찾아드는 액을 막고자 할 때는 마을 단위의 동제(洞祭)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였다. 또한 한 가정의 1년 동안의 태평을 빌기 위해서 길일(吉日)을 택하여, 무당·경문쟁이·점쟁이 등을 불러 경을 읽어 액막이를 하기도 한다고 나와 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거나 집안에 근심스러운 일이 생길 때면 재액을 막기 위해 무당을 불러다 큰 굿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두려움’의 하위 범주인 ‘공포, 걱정’이 드러나 있다. (33ㅍ)은 ‘공다리’의 예이며, 여기에서 ‘공다리’는 ‘침바치’의 의미로 손자가 잠을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라니까 침바치에게 가서 침을 맞고 왔다는 ‘두려움’의 하위 범주인 ‘공포, 걱정’이 드러나 있다.

4.2. 부사에 나타난 감정 표현

제주방언에서 두려움을 나타내는 부사는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거나 절박한 상황에서 애써 견디며 발버둥치는 모습 등에서 나타났다. 두려움의 감정을 나타

내는 제주방언 부사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34) 겁세, 겁절에, 겁짐에, 쫑쫑, 끄막끔막, 끄박끔박, 끄벽끔벽, 딱까딱까, 또
까또까, 뽕들랑뽕들랑, 바들랑바들랑, 뽕들락뽕들락, 버둥버둥, 바둥바둥, 발
발, 툭툭, 부루루, 부르륵부르륵

(34)는 부사에 나타난 감정 표현으로, ‘끔막끔막’, ‘딱까딱까’, ‘뽕들랑뽕들랑’
등은 동적인 의태 부사로써 직접적인 감정 표현으로 나타나고, ‘겁세’, ‘겁절에’,
‘겁짐에’ 등은 간접적인 감정 표현으로 나타난다. 몇 가지 예를 통해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5) ㄱ. 토토가 겁절에¹⁴⁸⁾ 달아나단 푸더전 뒤터레 보난. (토토가 겁절에 달
아나다가 넘어져서 뒤쪽으로 보니까.) (용례사전 I, p.80)
- ㄴ. 고양이 앞발로 중일 심젠 주왓주왓 혀여가난 뒤겅음혀단 중이도
겁세¹⁴⁹⁾에 파작 대들명 죽금살금 땀벼 들었다. (고양이가 앞발로 쥐
를 잡으려고 손 팔을 이리저리 내미니까 뒤겅음치던 쥐도 엉겁결에
벌떡 대들면서 죽자사자 땀벼들었다.) (용례사전 II, p.178)
- ㄷ. 고시촌에도 가 보곡 절간이도 가 보곡 벨흔디 텅기명 뽕들랑뽕들
랑¹⁵⁰⁾ 공뽕혀여봐도 나 그릇으론 굴채부지런뽕이 안뽕수다게. (고시
촌에도 가 보고 별난 곳 다니면서 발버둥치면서 안간힘으로 공부를
해도 별소득이 없네요.) (용례사전 I, p.18)

(35ㄱ)은 ‘겁절에’의 예로 ‘겁절에’는 ‘겁결에’의 의미이다. 무서움을 느낀 토토
가 겁결에 달아나다가 넘어지는 ‘두려움’의 하위 범주인 ‘공포’가 드러나 있다.
(35ㄴ)은 ‘겁세’의 예로 ‘겁세’는 ‘엉겁결에’의 의미이다. 고양이가 쥐를 잡으려고
하니까 궁지에 몰린 쥐도 잡히지 않으려고 엉겁결에 죽자사자 땀벼들고 있는데,

148)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46

149)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46

150)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p.475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298

‘두려움’의 하위 범주인 ‘공포’가 드러나 있다. (35ㄷ)은 ‘벼들랑벼들랑’의 예로 ‘벼들랑벼들랑’은 ‘바동바동’의 뜻이며 공무원 시험 보려고 고시촌에도 가보고 별난 곳 다니며 발버둥치면서 안간힘을 써봐도 별소득이 없다는 ‘두려움’의 하위 범주인 ‘걱정’이 드러나 있다.

4.3. 동사에 나타난 감정 표현

제주방언에서 두려움을 나타내는 동사는 도덕적 기준에서 위배되었다고 판단되거나, 어떤 위험한 상황을 감지하여 나타나는 신체적 반응 등으로 나타났다. 두려움의 감정을 나타내는 제주방언 동사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36) 겁나다, 겁똥굴기다, 겁똥싸다, 구체보다, 급살지다, 기십엇다, 기십죽다, 끄막끔막하다, 끄박끔박하다, 꺾막꺾막하다, 꼬막꼬막하다, 깎막깎막하다, 까막까막하다, 끄떡끄떡하다, 끄짜하다, 놔우새하다, 동티나다, 뒤창절박하다, 딱까딱까하다, 딱개딱개하다, 믰슴타다, 믰음줄이다, 불불하다, 불불떨다, 불불털다, 벼들락거리다, 벼들랑거리다, 바들락거리다, 바들랑거리다, 벼들락벼들락하다, 벼들랑벼들랑하다, 바들랑바들랑하다, 부치럼튼다, 부끄럼튼다, 비끄럼타다, 비치럼튼다, 비치럼타다, 부치럽다, 상심하다, 서먹다, 성긱성긱하다, 성느리다, 손부치롭다, 애석다, 애죇다, 애죇추다, 액뻘하다, 액막이하다, 우념하다, 우세당하다, 입부치럽다, 즈들다, 즈들루다, 즈들리다, 즈들아지다, 저푸다, 질허죽다, 질혜죽다, 졸들다, 툯툯하다

(36)은 동사에 나타난 감정 표현으로, 행위자의 행동에서 바로 분출되는 ‘겁똥굴기다’, ‘딱개딱개하다’, ‘벼들락거리다’ 등은 직접적인 감정 표현으로 나타나고, ‘구체보다’, ‘기십엇다’, ‘므슴타다’ 등은 간접적인 감정 표현으로 나타난다. 몇 가지 예를 통해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7) ㄱ. 그걸 비롱이 브레던 부롱이가 확 돌려간게마는 뉘센 곤도 안하고 그

새까맣힌 쉼 뱃다질 빨로 자락 들이받앗주. 경흐난 그 쉼 겹똥굴기 똥¹⁵¹⁾ 뒤도 안돌아보고 터전 돌아나는 거라. (그 모습을 빠끔히 보고 있던 수소가 확 달려가더니만 뭐라고 말도 않고 배를 빨로 힘껏 밀었지. 그러자 그 소는 겹결에 똥을 갈기며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돌아나는 거야.) (용례사전 I, p.149)

ㄴ. 부치럼뜬¹⁵²⁾ 그 예웬신디 죽사니가 들렸젠, 서방이 병계랜, 동네 사람덜이 혼동안 입견지를 흐엿주마는. (부끄럼 타는 그 여자에게 잡귀가 들렸다고, 남편이 바보라고 동네 사람들이 한동안 입질에 오르내렸지마는.) (용례사전 II, p.30)

ㄷ. 동네마다 똑 서먹¹⁵³⁾ 디가 서. (동네마다 꼭 좋지 못한 일이 생기는 곳이 있어.)

ㄹ. 거 무사 남즈덜은 죽은각시 흐민 큰각시 즈들루고¹⁵⁴⁾ 옛날은 경 두드려 패고. 경흐명 살아신디. (거 왜 남자들은 ‘죽은각시’ 얻으면 ‘큰각시’ 괴롭히고 옛날은 그렇게 두들겨 패고. 그렇게 하며 살았는데.) (온평리 23, p.39)

(37ㄱ)은 ‘겹똥굴기다’의 예로 ‘겹똥굴기다’는 ‘겹을 내는 바람에 똥을 싸다’의 의미이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수소가 확 달려가더니만 뭐라고 말도 않고 배를 빨로 힘껏 들이받으니 갑자기 당하는 소는 겹결에 똥을 갈기며 뒤도 안 돌아보고 달아나고 있는 ‘두려움’의 하위 범주인 ‘공포’가 드러나 있다. (37ㄴ)은 ‘부치럼뜬다’의 예로 ‘부치럼뜬다’는 ‘부끄럼타다’의 의미이다. 부끄럼 타는 여자가 한 눈 팔아 동네 사람들 입질에 오르내렸다는 ‘두려움’의 하위 범주인 ‘부끄러움’이 드러나 있다. ‘부치럼뜬다’도 ‘부끄럼뜬다, 비끄럼타다, 비치럼뜬다, 비치럼타다’ 등 동의적 표현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부치럼뜬다¹⁵⁵⁾’는 중세국어 15세기 문헌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꿈막꿈막흐다’는 ‘큰 눈을 잠깐 감았

151)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p.54

152)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p.459

153)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p.507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405

154)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554

155) 딛습으란 아니 닳고 오스로 빗오를 이룰샤 붓그리다니. (마음은 아니 닳고 옷으로 꾸미는 일 이야말로 부끄러운 것이니.) (《월인천강지곡》 상)

다 뒸다 하다'의 의미로 '끄막끄막하다, ㄱ막ㄱ막하다, ㄱ막끄막하다, 까막까막하다, 끄먹끄먹하다' 등 동의적 표현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병게'는 '병게, 병붕이, 붕게' 라고도 하며 표준어로는 '바보'를 일컫는다. 현대말로 '병게친다'는 표현 같으나 전혀 다른 독특한 말맛을 느낄 수 있는 제주방언이다. (37ㄷ)은 '서먹다'의 예이다. '서먹다'는 '연못이나 길 또는 바다의 어느 지역에서 이상하리만큼 좋지 못한 일이 정기적으로 일어나 사람들을 두렵거나 놀랍게 하다'의 의미이다. 동네마다 '서먹는' 곳이 있어서 큰 사고가 나거나 물에 빠져 죽는 경우가 종종 생겨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두려움'의 하위 범주인 '공포, 걱정'이 드러나 있다. (37ㄹ)은 '즈들루다'의 예로 '즈들루다'는 '괴롭히다, 걱정시키다'의 의미이다. 옛날에 남자들은 첩을 두면 조강지처를 못살게 굴며 두들겨 패도 여자들은 꼭 참고 살았다는 '두려움'의 하위 범주인 '걱정'이 드러나 있다. 이외에도 '저푸다¹⁵⁶⁾'는 중세국어 15세기 문헌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4. 형용사에 나타난 감정 표현

제주방언에서 두려움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어떤 위협이 다가올 때 공포를 느끼거나, 너무 잔인하고 처참한 것을 보고 놀라 몸서리가 나고 으스스함을 느끼는 표현 등으로 나타났다. 두려움의 감정을 나타내는 제주방언 형용사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38) 거방지다, 구체시럽다, 구체하다, 기죽다, 늦뜨겁다, 늦부치롭다, 놈부치롭다, 멧습다, 멧섭다, 멧습다, 섬뜩하다, 섬찌그랑하다, 섬찌근하다, 섬찌랑하다, 썩지그랑하다, 엄하다, 저하다, 저으다, 쉹피스럽다, 툭툭하다

(38)은 형용사에 나타난 감정 표현으로, 형용사의 특성상 성질이나 상태 등의 간접적인 감정 표현으로 나타난다. 몇 가지 예를 통해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다

156) ① 이 觀世音菩薩摩訶薩이 저픈 時急흔 어려본 스스 | 에 能히 無畏를 施흔느니. (이 관세음보살마하살이 두려운 시급한 어려운 사이에 능히 무위를 보시하니.) (《월인석보》 19:39)

② 주굽 사로똥 더라 시름이 업거니 저픈 뜨디 어느 이시리잇고.(죽음과 삶을 덜어 버려 시름이 없거나 두려운 마음이 어찌 있겠습니까.) (《월인천강지곡》 상:123)

음과 같다.

- (39) ㄱ. 이장 선거 홀 적이 혼 표도 못 반안 각을 하여노난 낫부치로완¹⁵⁷⁾
어드레 나사질 못^ㅎ쿠다게. (이장 선거할 때, 한 표도 못 받아서 꼴
찌를 하니까 낫부끄러워서 어디에 나사질 못^ㅎ하겠어요.)
- ㄴ. 굴양 몰라 봐사 알주. 그때 생각^ㅎ민 쌌지그랑^ㅎ메.¹⁵⁸⁾ (말로 해서
몰라요 봐야 알죠. 그때 생각^ㅎ하면 쌌해요.) (용례사전Ⅱ, p.393)
- ㄷ. 게난 산사름도 므습고¹⁵⁹⁾ 순경도 므습고 혼난 우린 곱양만 살^ㅎ았주.
(그러니 산사람도 무^ㅅ습고 순경도 무^ㅅ습고 하니까 우리는 숨^어서만
살^ㅎ았지.) (신도리 18, p.62)
- ㄹ. 태연^ㅎ 책 ^ㅎ명도 므음은 톡톡^ㅎ명¹⁶⁰⁾ 궁글거리는 팡에 ^ㅎ앗인 것 곶
앗다. (태연한 척 해도 마음은 불안하여 조바심 일어 흔들거리는
쉽팡에 ^ㅎ앗은 것 곶앗다.) (용례사전Ⅱ, p.80)

(39ㄱ)은 ‘낫부치로웁다’의 예로 ‘낫부치로웁다’는 ‘낫부끄러웁다’의 의미이다. 이장 선거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탓인지, 한 표도 못 받아서 꼴찌를 하니 낫부끄러워서 어디에 나사질 못^ㅎ하겠다는 ‘두려움’의 하위 범주인 ‘부끄러움’이 드러나 있다. (39ㄴ)은 ‘쌌지그랑^ㅎ다’의 예로 ‘쌌지그랑^ㅎ다’는 ‘쌌해다’의 의미이다. 잔인하거나 무서운 장면은 말로 해서는 모르고 직접 눈으로 봐야 알 수 있다면서 그때 생각만 하면 지금도 쌌해다는 감정이 내포되어 있는 ‘두려움’의 하위 범주인 ‘공포’가 드러나 있다. ‘쌌지그랑^ㅎ다’도 ‘쌌지근^ㅎ다, 쌌지랑^ㅎ다, 쌌지그랑^ㅎ다’ 등 동의적 표현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39ㄷ)은 ‘므습다’의 예로 ‘므습다’는 ‘마음에 두려운 느낌이 있다’의 의미이다. 여기서는 4·3사건에 대한 제주 사람들의 증언이다. 4·3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면 산사람도 무^ㅅ습고 순경도 무^ㅅ워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던 ‘두려움’의 하위 범주인 ‘공포, 걱정’이 드러나 있다. (39ㄹ)은 ‘톡톡^ㅎ다’의 예로 ‘톡톡^ㅎ다’는 ‘마음이 불안하여 조바심이

157)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p.209

158)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p.562

159)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p.401

160)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671

일어 마음을 조이다'의 의미이다. 누군가를 기다리며 태연한 척해도 마음은 불안하여 조바심이 일어 흔들거리는 선팅에 앉는 모습에서 '두려움'의 하위 범주인 '걱정'이 드러나 있다.

4.5. 감탄사에 나타난 감정 표현

제주방언에서 두려움을 나타내는 감탄사는 갑자기 닥친 상황에 위협이나 위험을 느껴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된 느낌 등으로 나타났다. 두려움의 감정을 나타내는 제주방언 감탄사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40) 물알로물알로, 베알로베알로, 아고저라, 아이고저라, 아구저라, 아어나여, 아여땡어리, 아여어땡허리, 엇그거, 어츨

(40)은 감탄사에 나타난 감정 표현으로, 모두 화자의 발화로 분출되는 직접적인 감정 표현에 해당된다. 몇 가지 예를 통해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1) ㄱ. 좀네질도 쉬운 게 아니라 물질할 때 수록짓은 수웨기덜이라도 만나민 “물알로물알로¹⁶¹⁾!” 웨울르멍 얼른 돌아나사 허곡. (해녀일도 쉬운 것이 아니라 물질할 때 떼 지은 돌고래들이라도 만나면 “물알로물알로!” 소리치면서 빨리 달아나야 하고.) (용례사전Ⅱ, p.27)

ㄴ. 찬용이는 다정이 말에 “아이구저라¹⁶²⁾” 허멍 말흐는 다정이 기심을 올려주곡 허엿다. (찬용이는 다정이 말에 “아 아 그렇구나” 하면서 말하는 다정이 기를 올려주곤 하엿다.) (용례사전Ⅱ, p.86)

ㄷ. 아어나여¹⁶³⁾, 꺾허게 집이 꺾테정 싯주기. 무시거 허레 영 나사시니? (나도 모르겠네, 차분하게 집이 처박아져 있지. 무엇 하러 이렇게 나

161)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339

162)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474

163)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473

셨니?) (용례사전Ⅲ, p.39)

ㄹ. 아여똥어리¹⁶⁴⁾, 게난 그 집 딸이 아판 죽엇젠 말이가? (아이구 어찌
면 좋아, 그러니까 그 집 딸이 아파서 죽엇단 말이나?)

(41ㄱ)은 ‘물알로물알로’의 예로 ‘물알로물알로’는 ‘바다에서 해녀나 어부들이
돌고래 떼를 만났을 때, 이 돌고래들이 피해 가기를 바라면서 외치는 말’의 의미
이다. 해녀들이 물질할 때 갑자기 돌고래들이 나타나면 ‘물알로물알로’ 소리치는
모습에서 두려움의 감정이 내포되어 있는 ‘두려움’의 하위 범주인 ‘공포, 걱정’이
드러나 있다. (41ㄴ)은 ‘아이구저라’의 예로 ‘아이구저라’는 ‘아아 그렇구나, 아이
고 그렇구나’의 의미이다. 다정이가 하는 안타까운 말에 찬용이는 ‘아이구저라’를
발화하면서 다정기와 공감하며 걱정하는 감정이 내포되어 있는 ‘두려움’의 하위
범주인 ‘걱정’이 드러나 있다. (41ㄷ)은 ‘아어나여’의 예로 ‘아어나여’는 일이 되어
가는 것을 보니 실망하여 내뽕개치듯이 ‘나도 모르겠네’ 정도의 의미이다. 여기에
서는 ‘벼름’에 대한 이야기로 은유적인 표현인데, 바람이 길옆으로 힘없이 꼬꾸라
지는 모습을 보자 숙대낭이 걱정하는 마음에 ‘아어나여’를 발화하면서 차분하게
집이 처박아져 있지. 무엇 하러 이렇게 나섰냐며 바람을 걱정해주는 ‘두려움’의
하위 범주인 ‘걱정’이 드러나 있다. (41ㄹ)은 ‘아여똥어리’의 예로 ‘아여똥어리’는
‘아여어똥허리’의 준말로 ‘아이구 어찌면 좋아’의 의미이다. 아는 사람의 딸이 아
파서 죽었다는 말에 ‘아여똥어리’를 발화하면서 ‘두려움’의 하위 범주인 ‘걱정’이
드러나 있다.

지금까지 품사별로 정리한 ‘두려움’의 감정 단어 개수를 보니, 사용 빈도는
동사>명사>형용사>부사>감탄사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4> ‘두려움’을 나타내는 감정 단어 개수

품사	명사	부사	동사	형용사	감탄사	합계

164)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473

기본 감정						
두려움 개수	33	18	60	20	10	141

5.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

「표준국어대사전」은 ‘사랑’을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로 정의한다. 우리가 흔히 누군가에게 사랑에 빠지거나 사랑을 받으면 얼굴이 좋아졌다는 등 감정 상태를 신체·생리적 현상을 빌어서 표현하곤 한다. 이훈구 외(2003)에 의하면, 감정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생리적 체제는 신경계라고 한다. 신경계는 신체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끊임없이 받아들여서 계산하며 통합하고 저장하고 다시 끄집어낸다. 신경계의 대표적 기관은 뇌로서, 생래적으로 정해져 있는 신경호르몬의 유형들은 세분화된 활성화 지도를 지니고 있어서 매우 본능적이고도 즉각적인 방식으로 정서의 경험을 유도한다는 것이다.¹⁶⁵⁾ 사랑에 빠질 때 인간은 위에서와 같은 신체·생리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사랑하는 대상은 눈앞에서 사라져도 그 대상의 모습은 눈에 남아 있고, 그리워하며 이는 어떤 대상을 보고 싶어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랑을 나타내는 하위 범주에는 「애정」, 「그리움」 등이 있다.

다음은 제주방언 사랑의 감정 표현에 대하여 구체적인 단어·뜻풀이·예문 등을 제시하면서 감정의 표현 양상과 언어적인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5.1. 명사에 나타난 감정 표현

제주방언에서 사랑을 나타내는 제주방언 명사는 사랑의 대상을 귀한 존재로 인식하고, 그 대상에 대한 특별한 감정 등으로 나타냈다. 사랑의 감정을 나타내

165) 이훈구 외(2003), 「정서 심리학」, 범문사, p.47 인용.

는 제주방언 명사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42) 고명딸, 고맹딸, 궤삼봉, 느리스랑, 동공딸, 동공아들, 막둥이, 맘마, 스랑, 생완, 생원, 생완, 생원, 소담옛말, 속정, 수절, 양념딸, 어린냥, 어진이, 연심옛말, 입벗, 치스랑

(42)는 명사에 나타난 감정 표현으로, 사랑의 범주에 속하는 감정을 품고 있으면서 모두 간접적인 감정 표현에 해당된다. 몇 가지 예를 통해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3) 가. 죽은동세만 저치룩 씨어멍네 씨아방 스랑¹⁶⁶⁾만 받곡 우린 어디 저치룩 혼 번 해봐시니 ㅎ멍예. (작은동서만 저렇게 시어머니 시아버지 사랑만 받고 우린 어디 저렇게 한 번 해봤느냐 하면서요.) (온평리 23, p.58)

나. 이 생완¹⁶⁷⁾덜 잘못 걸렸저. (이 아이들 잘못 걸렸네.) (용례사전Ⅱ, p.102)

다. 즈식을 느시 못 나단 느지막하게 봉간 놔둔 동공딸¹⁶⁸⁾은 잘도 애겼다. (자식을 전혀 낳지 못하다가 느지막하게 얻은 귀한 딸은 너무 아꼈다.) (용례사전Ⅱ, p.189)

르. 난 벽으로 숨통이 탁 막아지는 그 조도소 안에서 죽고정치 아니하다. 연심옛말¹⁶⁹⁾을 ㅎ겻다. (난 벽으로 숨통이 탁 막히는 그 교도소 안에서 죽고 싶지 않다. 마음속 간직했던 말을 하겠다.) (용례사전Ⅱ, p.254)

(43가)은 ‘스랑’의 예로 ‘스랑’은 ‘사랑’의 의미이다. 작은동서만 시부모 사랑을 많이 받아서 큰동서 입장에서는 서운해하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작은동

166)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p.557

167)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p.521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420

168)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p.261

169)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505

서만 시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랑’의 하위 범주인 ‘애정’이 드러나 있다. (43ㄴ)은 ‘생완’의 예로 ‘생완’은 ‘어린 아이들을 사랑스럽게 일컫는 말’의 의미이다. 아이들이 장난질이 심해 혼내려고 불러온 어른의 모습에서 느낄 수 있는 ‘사랑’의 하위 범주인 ‘애정’이 드러나 있다. ‘생완’도 ‘생완, 생원, 생원’ 등 동의적 표현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43ㄷ)은 ‘동공딸’의 예로 ‘동공딸’은 ‘귀엽게 모셔 키운 딸’의 의미이다. 자식을 낳지 못하다가 어렵게 딸을 얻었으니, 부모 입장에서 딸을 아주 많이 아끼는 감정이 내포되어 있는 ‘사랑’의 하위 범주인 ‘애정’이 드러나 있다. ‘동공딸’도 ‘양념딸, 고명딸, 고맹딸’ 등 동의적 표현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43ㄹ)은 ‘연심엿말’의 예로 ‘연심엿말’은 ‘어떤 사연으로 마음속 깊이 간직했던 말’의 의미이다. 벽으로 숨통이 탁 막히는 교도소 안에서 죽고 싶지 않다면, 누군가에게 마음속 깊이 간직했던 말을 하겠다는 ‘사랑’의 하위 범주인 ‘애정, 그리움’이 드러나 있다.

5.2. 부사에 나타난 감정 표현

제주방언에서 사랑을 나타내는 제주방언 부사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양과 다정스레 주고 받는 말 등으로 나타났다. 사랑의 감정을 나타내는 제주방언 부사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44) 각뻬, 고근고근, 고붓이, 곱닥이, 그늘케, 선영케, 소곤닥소곤닥, 얼뭇얼뭇, 여붓여붓, 오신도신, 오막오막, 오망오망, 움막, 움막움막, 유수분이, 와랑자랑, 자랑자랑

(44)는 부사에 나타난 감정 표현으로, ‘소곤닥소곤닥’, ‘오신도신’, ‘와랑자랑’ 등은 의태 부사로써 직접적인 감정 표현이고, ‘각뻬’, ‘곱닥이’, ‘유수분이’ 등은 간접적인 감정 표현에 해당된다. 몇 가지 예를 통해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5) ㄱ. 우리 동네 삼촌은 스춘광 잘도 각뻬170)혀여마씨. (우리 동네 삼촌은

사촌과 아주 각별합니다.)

- ㄴ. 두갯이 고근고근¹⁷¹⁾ 잘도 가근ㅎ우다게. (부부가 다정하게 소곤소곤 말하면서 아주 친하네요.)
- ㄷ. 아이덜이 모다얏이민 소곤닥소곤닥¹⁷²⁾ 헛시반시 입을 쉬들 안ㅎ여마 씨. (아이들이 모여 앉으면 소곤닥소곤닥 한순간도 입을 쉬지 않습니다.)
- ㄹ. 그 오빠방 생각ㅎ민 여붓여붓¹⁷³⁾ 옛날 손심영 걸엇던게 튼납니다게. (그 오빠 생각하면 문득문득 옛날 손잡고 걸엇던 것이 생각납니다.)

(45ㄱ)은 ‘각벨’의 예이며, ‘각벨’은 ‘각별’의 의미이다. 사촌 사이가 각별하다는 ‘사랑’의 하위 범주인 ‘애정’이 드러나 있다. (45ㄴ)은 ‘고근고근’의 예이며 ‘고근고근’은 ‘다정스레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을 나타낸 말’의 의미이다. 부부가 다정하게 소곤소곤 말하면서 아주 친한 감정이 내포되어 있는 ‘사랑’의 하위 범주인 ‘애정’이 드러나 있다. (45ㄷ)은 ‘소곤닥소곤닥’의 예이며 ‘소곤닥소곤닥’은 ‘다정하게 즐거운 내용의 말을 낮은 소리로 주고받는 꼴’의 의미이다. 아이들이 모여 앉아 소곤거리며 한순간도 입을 쉬지 않고 말을 주고 받는 모습에서 ‘사랑’의 하위 범주인 ‘애정’이 드러나 있다. (45ㄹ)은 ‘여붓여붓’의 예로 ‘여붓여붓’은 ‘마음속 깊이 간직되어 생각이 간절하게 문득문득 떠오르는 꼴’의 의미이다. 좋아하는 오빠를 생각하면 문득문득 옛날 손잡고 걸엇던 추억이 생각난다는 이성에게서 느끼는 심리적 반응인 ‘사랑’의 하위 범주인 ‘애정, 그리움’이 드러나 있다.

5.3. 동사에 나타난 감정 표현

제주방언에서 사랑을 나타내는 동사는 애뜻한 여운이 눈앞에 보이는 듯하고, 좋아하는 사람의 목소리나 모습이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자꾸 떠오르는 감정 등으로 나타났다. 사랑의 감정을 나타내는 제주방언 동사를 예로 들면 다음

170)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22

171)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51

172)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421

173)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504

과 같다.

(46) 감돌악감돌악하다, 거념하다, 곱다, 궤다, 궤삼봉하다, 그럽다, 그리웁다, 기렵다, 기릅다, 그늘우다, 그느르다, 거늘우다, 기리다, 눈맞다, 눈맞추다, 스랑하다, 스무치다, 수절하다, 우룩맞추다, 어르다, 어르달래다, 어르든지다, 어름썰다, 얼르다, 오망오망하다, 이지암지하다, 으지하다, 이지하다, 의지하다, 인그리다, 인사리하다, 입벗하다, 정들다, 조와싸다, 콤다, 콤지다

(46)은 동사에 나타난 감정 표현으로, ‘감돌악감돌악하다’, ‘그럽다’, ‘스랑하다’ 등은 직접 분출되는 감정 표현이고, ‘그늘우다’, ‘수절하다’, ‘인그리다’ 등은 간접적인 감정 표현에 해당된다. 몇 가지 예를 통해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7) ㄱ. 굴메 들여가명 우룩맞화가명¹⁷⁴⁾ 술상 바위가 문 뿔싸지게 젓가락 장단광 도세기 목돌아지는 놀레도 혀여가명. (갈마들며 어울려 화답해가면서 술상이 다 찌그러지게 젓가락 장단과 돼지 목맨 듯한 소리로 터지게 노래도 해가면서.) (용례사전Ⅱ, p.319)

ㄴ. 어멍 아방은 웬당칩이서 드려온 양제라도 가문을 대물림 혀여살거난 당어멍 당아방추룩 가이를 잘도 궤삼봉혀멍¹⁷⁵⁾ 키와신디. (어머니 아버지는 친척집에서 데려온 양자라도 가문을 대물림해야 하니까 친어머니 친아버지처럼 그 애를 너무 특별하게 사랑하면서 키웠는데.) (용례사전Ⅱ, p.52)

ㄷ. 나 꽃동질 복기 뽕아불지 말양 솔리 어름쓸어¹⁷⁶⁾ 줍서게. (나 꽃대 단숨에 뽕아버리지 말고 살그머니 쓰다듬어 주세요.) (용례사전Ⅰ, p.45)

ㄹ. 조도소 안이서 인그리던¹⁷⁷⁾ 각시광 친구 찬용이가 마중을 나완 똥비 를 부술루완 뿌린 거랏다. (교도소 안에서 그리워하던 아내와 친구 찬

174)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p.690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927

175)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80

176)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492

177)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546

용이가 마중을 나와서 두부를 부스러뜨려 뿌린 거였다.) (용례사전Ⅱ, p.270)

(47ㄱ)은 ‘우룩맞추다’의 예이며, ‘우룩맞추다’는 ‘우룩’에 ‘맞추다’가 연결되어 쓰이는데, ‘날짐승 자웅(雌雄)이 서로 소리 질러 부르며 응하다’는 의미이다. 술집에서 함께 어울려 화답해 가면서 술상이 다 찌그러지게 젓가락 장단에 맞춰 목 터지게 노래를 불렀다는 ‘사랑’의 하위 범주인 ‘애정’이 드러나 있다. 여기에서 ‘우룩’은 《몽어유해》의 親 어버이 우룩(urug)에서 확인할 수 있다.¹⁷⁸⁾ (47ㄴ)은 ‘케삼봉흐다’의 예로 ‘케삼봉흐다’는 ‘특별히 귀여워하거나 사랑하다’의 의미이다. 친척집에서 데려온 양자라도 가문을 대물림해야 하니 친어머니, 친아버지처럼 그 애를 아주 특별하게 사랑하면서 키웠다는 ‘사랑’의 하위 범주인 ‘애정’이 드러나 있다. (47ㄷ)은 ‘어름쓸다’의 예이며 ‘어름쓸다’는 ‘쓰다듬다’의 의미이다. 여기에서는 나 꽃대 단숨에 뽑아버리지 말고 살그머니 쓰다듬어 주라는 시적 허용을 시도하고 있는 ‘사랑’의 하위 범주인 ‘애정’이 드러나 있다. (47ㄹ)은 ‘인그리다’의 예이며 ‘인그리다’는 ‘앓은 사람이 보고 싶은 사람들을 몹시 그리워하다’의 의미이다. 교도소 안에서 늘 그리워하던 아내와 친구 찬용이를 만났다는 ‘사랑’의 하위 범주인 ‘애정, 그리움’이 드러나 있다. 또한 ‘그렵다¹⁷⁹⁾, 스랑흐다¹⁸⁰⁾’도 중세국어 15세기 문헌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4. 형용사에 나타난 감정 표현

제주방언에서 사랑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사랑의 대상이 각별하고, 눈앞에 사라져도 그 대상의 모습이 자꾸 눈에 선하다는 감정 등으로 나타났다. 사랑의 감정을 나타내는 제주방언 형용사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178) 강영봉·김순자·김미진(2020), 「제주어 길라잡이」, 각, p.279 인용.

179) 太子人 어마님이 흰 그러기를 보샤 그리샤뎌 닐어 들이시니. (태자의 어머님이 흰 기러기를 보시어 그리워하심을 일러 들이시니) (《월인석보》 22:17)

180) 아버지 子息 스랑흐르 아니한 스시어니와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길지 앓은 사이이지만) (《석보상절》 6:3)

(48) 각벨하다, 곱다, 곱닥하다, 곱들락하다, 곱드글락하다, 다정하다, 선하다, 선영하다, 우수분하다, 의 좋다, 이뿌정하다, 인즈시럽다

(48)은 형용사에 나타난 감정 표현으로, 모두 간접적인 감정 표현에 해당된다. 몇 가지 예를 통해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9) ㄱ. 가이는, 체암 드려올 땐 막 ㄴ느삭안 불나우 웃엇주마는 그 집이 완 동제로 출려먹어가난 곱드글락호고¹⁸¹⁾ 으망져신디. (그 애는 처음 데리고 올 때는 너무 배리배리해서 볼품이 없었는데 그 집에 와서 특별하게 차린 음식을 먹다보니까 곱고 똑똑하고 야무졌는데.) (용례사전Ⅱ, p.47)

ㄴ. 느네 아방 옷만 뵈려가민 살아난 모습에 눈에 선호다게.¹⁸²⁾ (너희 아버지 옷만 보다보면 살았던 모습이 눈에 분명하게 떠오른다.)

ㄷ. 창보네 아들덜은 재산 따문이 드투지덜 안호난 잘도 의 좋다.¹⁸³⁾ (창보네 아들들은 재산 때문에 다투지 않으니까 아주 정이 두텁네요.)

ㄹ. 그 오라방은 잘도 다정호다얏.¹⁸⁴⁾ (그 오빠는 아주 다정하네요.)

(49ㄱ)은 ‘곱드글락하다’의 예이며 ‘곱드글락하다’는 ‘아주 매끈하고 곱다’의 의미이다. 그 애는 처음 데리고 올 때는 너무 배리배리해서 볼품이 없었는데 그 집에 와서 특별한 음식을 먹다 보니까 곱고 똑똑하고 야무졌다는 ‘사랑’의 하위 범주인 ‘애정’이 드러나 있다. ‘곱닥하다¹⁸⁵⁾’는 중세국어 15세기 문헌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9ㄴ)은 ‘선하다’의 예이며 ‘선하다’는 ‘눈에 어리어 분명하게 떠오르다, 눈에 선하다’의 의미이다. 아버지 옷만 보면 살았을 때, 모습이 눈에 선하게 떠오른다는 ‘사랑’의 하위 범주인 ‘애정, 그리움’이 드러나 있다. (49ㄷ)은 ‘의 좋다’의

181)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p.80

182)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409

183)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p.710

184)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p.218

185) 니 희오 ㄴ죽고 칙칙호샤 상네 光明 거시며 입시웁 비치 붉고 고뵈샤미 頻婆果 | 곶호샤스 이다.(이가 희고 가지런하고 뽁뽁하시어 늘 광명이 계시며 입술의 빛이 붉고 고우심이 빈파과와 같으십니다.) (《월인석보》 19:90)

예이며 ‘의 좋다’는 ‘의 좋다, 서로 정분(情分)이 두텁다’의 의미이다. 창보네 아들들은 재산 때문에 다투지 않으니까 아주 정이 두텁다는 ‘사랑’의 하위 범주인 ‘애정’이 드러나 있다. (49ㄷ)은 ‘다정하다’의 예로 ‘다정하다’는 ‘다정하다’의 의미이다. 그 오빠는 아주 다정하다는 ‘사랑’의 하위 범주인 ‘애정’이 드러나 있다.

5.5. 감탄사에 나타난 감정 표현

제주방언에서 사랑을 나타내는 감탄사는 주로 아기를 돌보면서 단순히 입버릇처럼 섞어나오거나, 어린 아기를 잠재울 때 부르는 노래 등으로 나타났다. 사랑의 감정을 나타내는 제주방언 감탄사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50) 도리도리, 마니마니, 마, 부바, 어부바, 어부아, 어부애, 부아, 부애, 선대선대, 선테선테, 섬메, 섬메섬메, 던대, 던대던대, 던데던데, 또, 또보라, 또바, 또봐, 선달, 선대, 선데, 시, 시이, 아공, 아공아공, 아양, 야의야, 야이야, 예야, 애가, 애강, 애개, 애개개, 애계, 예라, 여라, 엽서, 엽서, 오라게, 왕이자랑왕이자랑, 왕이자랑, 왕의자랑, 왕이자랑왕이자랑, 으까, 응, 응응, 임제, 탕강

(50)은 감탄사에 나타난 감정 표현으로, 발화자가 분출하는 직접적인 감정 표현에 해당된다. 몇 가지 예를 통해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51) ㄱ. “ㅁ¹⁸⁶, 이건 느 반이여” 호명. (“자, 이건 너 몯이다.” 하면서) (용례사전Ⅱ, p.16)
- ㄴ. 똥 아이덜광 놀던 준이가 일구신더레 완 말도 웃이 어부바¹⁸⁷도 호고 독지몰도 탄다. (다른 아이들과 놀던 준이가 일구에게 와서 말도 없이 어부바도 하고 목말도 탄다.) (용례사전Ⅱ, p.140)
- ㄷ. 이거원 들구 혜봐도 바농이 느시 안들어값저. 엽서¹⁸⁸, 나가 호쿠다.

186)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p.337

187)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492

(이거 참 아무리 해봐도 바늘이 전혀 안 들어가네. 제가 하겠습니다.)

(51ㄱ)은 ‘마’의 예이며 ‘마’는 ‘손아랫사람에게 물건을 주면서 하는 소리’의 의미이다. “자, 이건 너 몫이다.” 라고 하며 제삿날 반을 나눠주는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데, ‘사랑’의 하위 범주인 ‘애정’이 드러나 있다. (51ㄴ)은 ‘어부바’의 예이며 ‘어부바’는 ‘어린 아이가 엮어 달라거나 어린 아이를 엮히게 할 때 하는 말’의 의미이다. 다른 아이들과 놀던 준이가 일구에게 와서 말도 없이 어부바도 하고 목말도 탄다는 ‘사랑’의 하위 범주인 ‘애정’이 드러나 있다. ‘어부바’는 ‘부바, 부아, 부애, 부우애, 어부아, 어부애’ 등 동의적 표현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51ㄷ)은 ‘엮서’의 예이며 ‘엮서’는 어른이 하는 일을 그만두게 하거나 양보하게 할 때 쓰는 말. ‘이렇게 하십시오’, 또는 그 일을 그만두면 ‘제가 하겠습니다’, 또는 그 자리를 비켜서면 ‘제가 하겠습니다’ 따위의 뜻을 지닌 말의 의미이다. 어른이 눈이 안 좋아서 바늘에 실을 꿰지 못하고 있을 때, 어린 사람이 ‘엮서’를 발화하면서 제가 하겠다고 하는 ‘사랑’의 하위 범주인 ‘애정’이 드러나 있다. 또한 ‘탕강’은 ‘어린 아이들에게 밑으로 굴러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도록 일깨우는 말’로 전통 제주인이 아니면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감지하지도 못하는 어느 외국의 언어처럼 생소하고 독특한 말맛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품사별로 정리한 ‘사랑’의 감정 단어 개수를 보니, 사용 빈도는 감탄사>동사>명사>부사>형용사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5> ‘사랑’을 나타내는 감정 단어 개수

품사 기본 감정	명사	부사	동사	형용사	감탄사	합계
사랑 개수	22	17	36	12	50	137

188)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510

6. 미움을 나타내는 표현

「표준국어대사전」은 ‘미움’을 ‘미워하는 일이나 미워하는 마음’으로 정의한다. 미움은 대상을 싫어하는 감정이다. 상대방이 너무 지겹고, 불쾌하고, 불만스러울 때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미움의 상대와 관계를 절연하고 싫어한다.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밥맛이 떨어진다거나 배속이 뒤틀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감정 상태를 신체·생리적 현상을 빌어서 표현하곤 한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을 갖게 될 때 인간은 신체·생리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러한 주관적인 감정은 체험주의와의 관련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미움의 정도가 심해지면 그 대상의 존재를 거부하게 된다. 미움을 나타내는 하위 범주에는 「증오」, 「질투」, 「싫음」 등이 있다.

다음은 제주방언 미움의 감정 표현에 대하여 구체적인 단어·뜻풀이·예문을 등을 제시하면서 감정의 표현 양상과 언어적인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6.1. 명사에 나타난 감정 표현

제주방언에서 미움을 나타내는 명사는 어떤 대상에 대한 미운 감정이 생기면, 마음의 문이 닫혀서 시기하며 질투하는 감정 등으로 나타났다. 미움의 감정을 나타내는 제주방언 명사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52) 간교꾼, 갱긱꾼, 갱규꾼, 궂인내, 구진내, 궂약쟁이, 다슴태, 몸서리, 새움, 새움다리, 새움쟁이, 새암바리, 새움다리, 세움다리, 세움쟁이, 시알, 야빈닥, 요빈닥, 요리빈닥, 정내미, 지렁내, 허주

(52)은 명사에 나타난 감정 표현으로, 미움이라는 감정을 품고 있으면서 모두 간접적인 감정 표현에 해당된다. 몇 가지 예를 통해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53) ㄱ. 가이 신더레 가민 긱인내¹⁸⁹⁾가 팡팡 нама씨. (그 애에게 가면 심한 악취가 납니다.)
- ㄴ. 그 성님만 보민 정내미¹⁹⁰⁾ 떨어집니다게. (그 형님만 보면 정나미 떨어집니다.)
- ㄷ. 가인 벗이 잘 돼민 시기만 흐는 새움다리¹⁹¹⁾우다. (그 애는 친구가 잘 되면 시기만 하는 샘바리입니다.)

(53ㄱ)은 ‘긱인내’의 예이며 ‘긱인내’는 ‘심한 악취’의 의미이다. 그 애에게 가면 잘 씻지 않아서인지 심한 악취가 나서 싫다는 ‘미움’의 하위 범주인 ‘싫음’이 드러나 있다. (53ㄴ)은 ‘정내미’의 예이며 ‘정내미’는 ‘정을 얹잡아 이르는 말, 정나미’의 의미이다. 그 형님만 보면 정나미 떨어진다는 ‘미움’의 하위 범주인 ‘싫음’이 드러나 있다. (53ㄷ)은 ‘새움다리’의 예이며 ‘새움다리’는 ‘겉으로 드러날 정도로 시기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의 의미이다. 친구가 잘되면 칭찬도 안 하고 시기만 한다는 ‘미움’의 하위 범주인 ‘질투, 싫음’이 드러나 있다. ‘새움다리’는 ‘새암바리, 새움다리, 세움다리, 세움쟁이, 새움쟁이’ 등 동의적 표현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6.2. 부사에 나타난 감정 표현

제주방언에서 미움을 나타내는 부사는 상대방의 행동이 허황되어 믿음직스럽지 못하거나, 꾀를 부리면서 간사하게 알랑거리는 모습 등으로 나타났다. 미움의 감정을 나타내는 제주방언 부사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54) 간실간실, 갠실갠실, 겐실겐실, 거렁생이, 거렁청이, 갠구룻이, 갠고룻이, 꺨랑꺨랑, 갠글랑갠글랑, 꺨이, 늘지락늘지락, 늘짹늘짹, 늘짹늘짹, 능그렁이, 덜랑이, 두루정이, 두릿두릿, 두작두작, 드러, 드립더, 들강들강, 들떡들

189)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79

190)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p.749

191)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400

떡, 멩멩, 무큰무큰, 문죽문죽, 땀직시리, 배작배작, 버버버, 빅닥빅닥, 빈빈, 실픈깐, 슬픈깐, 아글락아글락, 야그락야그락, 야글야글, 야슬야슬, 야실야실, 얼렁얼렁, 엄창웃이, 자글자글, 자글락자글락, 조대조대, 주왁주왁, 질그랭이, 질탁질탁, 추접시리, 추접이, 편두룽이, 흥글망글, 흥글망글

(54)은 부사에 나타난 감정 표현으로, ‘간실간실’, ‘자글락자글락’, ‘조대조대’ 등은 직접 분출되는 직접적인 감정 표현이며, ‘두루정어’, ‘추접시리’, ‘빈빈’ 등은 간접적인 감정 표현을 나타낸다. 몇 가지 예를 통해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5) ㄱ. 구렷이 뒤이서 게품 더 북으곡 강이소리로 간실간실¹⁹²⁾ 게죽거리멍.

(구렷이 뒤에서 거품 부풀어 오르고 눈웃음 살살 치며 남 혈뜬으면 서.) (용례사전Ⅱ, p.348)

ㄴ. 으라쩨인 이녁네 직장 상사광 직원덜 승을 보멍 실픈깐¹⁹³⁾에도 우시게 소리 맞춰사 흥곡. (여러 성격을 가진 자기네 직장 상사와 직원들 흥을 보면서 하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 농담으로 하는 말 맞춰야 하고.) (용례사전Ⅱ, p.86)

ㄷ. 무사 날 곳이¹⁹⁴⁾ 네겡수과? (왜 저를 나쁘게 생각하나요?)

ㄹ. 낭푼이 하나에 식술덜 돈 모다들영 수까락질 흥는다, 누게라도 하영 거려가민 밥적이 녀이 크텐 야슬야슬¹⁹⁵⁾ 실그뭇실그뭇흥멍 눈꼴도 흥어나십주기. (양푼 하나에 가족들 모두 모여들어서 숟가락질 하는데, 누구라도 많이 뜨면 밥의 양이 너무 크다고 슬금슬금 남의 눈치를 살피면서 눈총도 했었지요.) (용례사전Ⅲ, p.124)

(55ㄱ)은 ‘간실간실’의 예이며 ‘간실간실’은 ‘웃으며 피를 부리면서 간사스럽게 눈웃음을 치는 꼴’의 의미이다. 구렷이 뒤에서 거품 부풀어 오르고 눈웃음 살살 치며 남 혈뜬는 ‘미움’의 하위 범주인 ‘싫음’이 드러나 있다. (55ㄴ)은 ‘실픈깐’의 예이

192)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23

193)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p.545

194)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79

195)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486

며 ‘실픈간’은 ‘무엇을 먹고 싶지 않은 심경(心境), 무슨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심경’의 의미이다. 여러 성격을 가진 직장 상사와 직원들 흉을 보면서 하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 농담으로 하는 말을 맞춰야 한다는 싫은 감정이 내포되어 있는 ‘미움’의 하위 범주인 ‘싫음’이 드러나 있다. (55ㄷ)은 ‘긱이’의 예이며 ‘긱이’는 ‘나쁘게’의 의미이다. 긍정적으로 봐주지 않는 상대방에게 왜 자신을 나쁘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있는 ‘미움’의 하위 범주인 ‘싫음’이 드러나 있다. (55ㄹ)은 ‘야슬야슬’의 예이며 ‘야슬야슬’은 ‘남의 눈치를 슬금슬금 살피거나 남의 속을 알아보기 위하여 꾀를 이리저리 쓰는 꼴’의 의미이다. 양푼 하나에 가족들 모두 모여들어서 밥을 먹던 시절, 누구라도 밥을 많이 뜨면 밥의 양이 너무 크다고 슬금슬금 남의 눈치를 살피기도 하고 눈총도 받았다는 ‘미움’의 하위 범주인 ‘싫음’이 드러나 있다. ‘편두렁이’¹⁹⁶⁾도 전통 제주인이 아니면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감지하지도 못하는 어느 외국의 언어처럼 생소하고 독특한 말맛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3. 동사에 나타난 감정 표현

제주방언에서 미움을 나타내는 동사는 미움의 대상을 직접적으로 분리하거나 제거하고 싶은 감정 등으로 나타났다. 미움의 감정을 나타내는 제주방언 동사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56) 간교부리다, 간상부리다, 간실간실하다, 거실다, 거스다, 거시다, 거실어지다, 거자랑하다, 개슴먹다, 갱교부리다, 갱규부리다, 거느리왕상하다, 거나나다, 게슴먹다, 공쟁이걸다, 구박하다, 긱어지다, 긱어라하다, 긱이네기다, 긱이곤다, 긱이보다, 긱인꼴하다, 긱인체하다, 긱임부찌다, 귀거실다, 꼴싱그리다, 꿩빠다, 늦이네기다, 나쁘다, 나쁘이네기다, 나뻘네기다, 내실러하다, 냉대하다, 네슬르다, 능글능글하다, 능락거리다, 다슴태하다, 다슴테하다, 동녕바치짓하다, 두루정이하다, 두루마롱이하다, 두루하다, 두릿두릿하다, 들먹들먹하다, 들러가다, 들러먹다, 떠덕거리다, 툐라불다, 툐림받다, 마니고개털다, 마니고개하다, 말피막하다, 망해우다, 몸서리일다, 멍멍

196) 정신없이 눈만 멀뚱거리면서 멍하게 하는 꼴,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684

다, 베알르다, 베알흐다, 비위상흐다, 비위틀어지다, 새움흐다, 순벗어지다, 시알흐다, 시투흐다, 실프다, 새움흐다, 새암흐다, 세움흐다, 야그라지다, 야글아지다, 야기부리다, 야빈다흐다, 요리빈다흐다, 요빈다질흐다, 요빈다흐다, 웨대멘흐다, 정내미떨어지다, 정다슬다, 정다시다, 정다실다, 정떨어지다, 정수내미떨어지다, 진저리나다, 쫄리다

(56)는 동사에 나타난 감정 표현으로, ‘간실간실흐다’, ‘능글능글흐다’, ‘두릿두릿흐다’ 등은 직접 분출되는 감정 표현이며, ‘긋어지다’, ‘다슴태흐다’, ‘웨대멘흐다’ 등은 간접적인 감정 표현으로 나타난다. 몇 가지 예를 통해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7) ㄱ. 삼춘은 느랑 간상부리는¹⁹⁷⁾ 소리로 댄 사름을 하시흐멍 땡긴덴 다덜 굴아마썸. (삼춘은 늘 야죽거리는 소리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면서 다닌다고 다들 말합니다.) (용례사전Ⅱ, p.192)

ㄴ. 옛날은 몰방에에 동녕바치 들어강, 몰방에 비니까 줌도 자고 동녕바치짓흐당¹⁹⁸⁾ 자고, 몰방에서 경 그 으식훈 디 밤 곶은 때 연애도 그디 강 흐고. (옛날은 연자매에 거지가 들어가서, 연자매 비니까 잠도 자고 거지짓 하다가 자고, 연자매에서 그렇게 으스스한 데 밤 곶은 때 연애도 거기 가서 하고.) (신촌리 21, p.118)

ㄷ. 기? 느도 이레화룩 저레화룩 불췌완 땡길 땡 동네 초란이덜 입에 끄느리왕상흐여¹⁹⁹⁾나신디이? (그래? 너도 이리저리 부리나케 발정해서 다닐 땡 동네 잘난 척하는 사람들 입에 소문이 났었지.) (용례사전 I, p.26)

ㄹ. 시상인 베라벨 일덜이 합주마썸. 누게 흐꿈 잘흐곡 잘 나가가른 시알흐는²⁰⁰⁾ 일덜도 하곡. (세상은 별별 일들이 많췌. 누구 조금 잘하고 잘 나가면 미워하며 시샘하는 일들도 많고.) (용례사전 I, p.218)

197)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p.26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23

198)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189

199)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p.40

200)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448

(57ㄱ)은 ‘간상부리다’의 예이며, ‘간상부리다’는 ‘쓸데없는 말을 밭살스럽게 지껄이다, 야죽거리다’의 의미이다. 삼촌은 늘 야죽거리는 소리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면서 다닌다는 ‘미움’의 하위 범주인 ‘증오, 싫음’이 드러나 있다. (57ㄴ)은 ‘동녕바치짓하다’의 예로 ‘동녕바치짓하다’는 ‘동냥아치나 거지가 아닌 사람이 그런 일을 할 때, 그것을 나쁘게 이르는 말’의 의미이다. 옛날은 거지짓하다가 연자매에 들어가서 잠도 자고 연애도 했다며 ‘동녕바치짓’에 대한 ‘미움’의 하위 범주인 ‘증오, 싫음’이 드러나 있다. (57ㄷ)은 ‘거느리왕상하다’의 예이며 ‘거느리왕상하다’는 ‘좋지 않은 일로 남의 입에 오르내리다’의 의미이다. 이 말은 ‘거느리다’와 ‘왕상’으로 구성되었는데, ‘거느리다’는 ‘이야기를 할 때, 제3자의 이름을 대거나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라는 뜻을 지니며, ‘왕상’은 ‘잘 정돈되지 아니하여 들떠 어수선하고 엉성한 모양’을 뜻한다. 남의 입방아에 오르다 보면 그게 곧 좋지 않은 소문으로 번지게 마련이라는 뜻이다. 여기에서는 소싯적 이리저리 다닐 때 잘난 척하는 동네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렸다는 ‘미움’의 하위 범주인 ‘싫음’이 드러나 있다. (57ㄹ)은 ‘시알하다’의 예로 ‘시알하다’는 ‘미워하며 시샘하다, 시기하며 질투하다’의 의미이다. 자기보다 잘 되거나 나은 사람을 공연히 미워하고 시샘하는 감정이 내포되어 있는 ‘미움’의 하위 범주인 ‘질투, 싫음’이 드러나 있다.

6.4. 형용사에 나타난 감정 표현

제주방언에서 미움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미움의 대상을 불편한 존재로 인식하여 거부감을 드러내거나, 사이가 나빠지는 감정 등으로 나타났다. 미움의 감정을 나타내는 제주방언 형용사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58) 간상하다, 간지나다, 강팍하다, 거렁청하다, 거작하다, 거칠다, 거칠거칠하다, 고제웃다, 고제벗어지다, 고제빠지다, 게덤부랑하다, 게더분하다, 개지락하다, 갱고룻하다, 갱구룻하다, 냉구룻하다, 갱경ㄹ트다, 거끌거끌하다, 굶다, 귀거실어지다, 귀치아녀다, 궤약하다, 글근대다, 까다롭다, 까드랍다, 깨꼬라지다, 꿈하다, 늦뚜겁다, 네꼴시럽다, 냉냉하다, 늘크랑하다, 덜럽다,

덜롭다, 델롭다, 델럽다, 더롭다, 데럽다, 두루정하다, 두리멍청하다, 두리
 무충하다, 두리몽송하다, 두리송하다, 두리축축하다, 들거리웃다, 들쟁이웃
 다, 매정하다, 목썰다, 밍다, 밍상바르다, 밍성글르다, 밍성블롭다, 밍성바
 르다, 밍성버르다, 밍성블르다, 밍직하다, 불목지다, 시벽벽하다, 싸무랍다,
 아니꼽다, 아니꼽상스럽다, 아니꼽사리어지럽다, 엘록하다, 어긋지다, 옹통
 하다, 우터하다, 율혼지다, 정내미벗어지다, 정떨어지다, 지그뚱하다, 지질
 정나다, 추저분하다, 추접스럽다, 추접하다

(58)은 형용사에 나타난 감정 표현으로 ‘밍다, 밍상바르다, 밍성글르다, 밍성블
 롭다, 밍성바르다, 밍성버르다, 밍성블르다, 밍직하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간접적인
 감정 표현에 해당된다. 몇 가지 예를 통해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59) 가. 에게, 그 에올락진 거 ㄴ정 경히지 말라. 델롭다²⁰¹⁾원. (이게 뭐냐, 작
 고 하찮은 것 가지고 그러지 마라. 더럽다.) (용례사전 I, p.279)
- 나. 월급도 족곡, 흐꿈 인척 들어왔노렌 능력거리는 선배덜 비우맞추는 게
아니꼽상스러원²⁰²⁾ 못 춤으커랍데다. (월급도 작고, 조금 일찍 입사했
 다고 거드럭거리는 선배들 비위 맞추는 게 아니꼬워서 못 참겠더라고
 요.) (용례사전 I, p.122)
- 다. 가는 디마다 밍직흔²⁰³⁾ 말만 곱아텡기난 가이만 보민 문덜 곳어라 홉
 네께. (가는 곳마다 아주 미운 말만 하니까 그 애만 보면 모두 싫어해
 요.) (용례사전 I, pp.57-58)
- 르. 식게칩 아이 잘도 목썰다²⁰⁴⁾. (제삿집 아이 너무 사납다) (용례사전 I,
 p.389)

(59가)은 ‘델롭다’의 예이며 ‘델롭다’는 ‘좋지 못한 것이 묻어 매우 나쁜 상태가
 되다, 마음에 천하게 느껴지는 상태가 되다’의 의미이다. 하찮은 것 가지고 잔소리

201)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172

202)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470

203)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p.399

204)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p.374

하거나 트집을 잡으면 아니꼽고 더럽다는 감정이 내포되어 있는 ‘미움’의 하위 범주인 ‘싫음’이 드러나 있다. ‘텔럽다’는 ‘더럽다, 덜럽다, 덜럽다, 데럽다, 텔럽다’ 등 동의적 표현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59ㄴ)은 ‘아니꼽상스럽다’의 예이며 ‘아니꼽상스럽다’는 ‘아니꼽’에 말할 이의 느낌을 섞은 ‘상스럽다’가 덧붙은 것으로 ‘밧살 맞고 눈에 거슬리는 데가 있다’는 의미이다. 월급도 작고, 거드럭거리는 선배들 비위를 맞추는 게 아니꼽다는 ‘미움’의 하위 범주인 ‘증오, 싫음’이 드러나 있다. (59ㄷ)은 ‘밧직하다’의 예이며 ‘밧직하다’는 ‘아주 밧다’의 의미이다. 말씨가 미운 사람은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미움’의 하위 범주인 ‘싫음’이 드러나 있다. ‘밧직하다’는 ‘밧성바르다, 밧성글르다, 밧성불르다, 밧성버르다, 밧성불르다, 밧상바르다’ 등 동의적 표현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59ㄹ)은 ‘목썰다’의 예로 ‘목썰다’는 ‘하는 짓이 사납고 악하다’의 의미이다. 옛날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에 제삿집 아이는 누구나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그러다보니 제삿집 아이는 기가 세고 사나울 수밖에 없다는 ‘미움’의 하위 범주인 ‘증오, 싫음’이 드러나 있다. 어떤 일에 누구나 수궁하기 어려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상태가 되면 ‘목썰다’라는 표현을 한다. 또한 ‘시벽벽하다’²⁰⁵⁾, ‘지그못하다’²⁰⁶⁾는 전통 제주인이 아니면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감지하지도 못하는 어느 외국의 언어처럼 생소하고 말맛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5. 감탄사에 나타난 감정 표현

제주방언에서 미움을 나타내는 감탄사는 상대방이 꼴사납고 마음에 들지 않아 거리끼고 싫어하는 관습적 표현 등으로 나타났다. 미움의 감정을 나타내는 제주방언 감탄사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60) 마우다, 말다, 말라, 말라게, 무시거, 무시거어평, 아이고게, 아니라마썸, 아니우다, 아니우다게, 씨멜족허라

205) 성정이 무뚝뚝하고 억세다,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p.447

206) 검질기다, 이유를 불문하고 응하지 아니하다,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p.608

(60)은 감탄사에 나타난 감정 표현으로 모두 직접적인 감정의 분출로 나타난다. 몇 가지 예를 통해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1) ㄱ. 어머니, 널랑 이 옷 빨아줍서. 말다²⁰⁷⁾! 느 옷 느가 빨아사주 누게신디 시겜시니? (어머니, 내일 이 옷 빨아주세요. 싫다! 네 옷 네가 빨아야지 누구에게 시키는 거니?)

ㄴ. 그 사람네 이제 다 죽언 원 씨아덜이 엇어. 원 씨멜죽흐라²⁰⁸⁾ 흐명 다 죽여비산다. (그 사람네 이제 다 죽어서 원 ‘씨아들’이 없어. 원 씨멜죽헤라 하면서 다 죽여버려야 한다.) (태흥리 25, p.25)

ㄷ. 순덕야, 학교 갓당오민 자게 밧디 오라이. 마우다!²⁰⁹⁾ 무사 나신디만 오랜 헛수과? (순덕아, 학교 갔다 오면 밧에 와라. 싫어요! 왜 나에게만 오라고 하나요?)

(61ㄱ)은 ‘말다’의 예로 ‘말다’는 손아랫사람의 ‘요구나 시킴’에 ‘거절’이나 ‘싫어함’의 뜻으로 대답하는 말, ‘아니 하겠다’, ‘싫다’ 정도의 뜻을 지닌 말의 의미이다. 딸이나 아들이 어머니에게 자신의 옷을 빨아달라고 부탁하니 어머니는 단번에 싫다고 ‘거절’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미움’의 하위 범주인 ‘싫음’이 드러나 있다. 또한 ‘말다’는 중세 어휘에서 쓰이는 ‘말라²¹⁰⁾’와 ‘행위 금지’를 요구하는 명령문에 쓰이고 청유문에서도 부정으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1ㄴ)은 ‘씨멜죽흐라’의 예로 ‘씨멜죽흐라’는 ‘남에게 험하게 욕할 때 쓰는 말’의 의미이다. 4·3사건 때 씨를 모두 멸족시키기 위해 가족들과 친족들까지 몰살시켰다는 ‘미움’의 하위 범주인 ‘증오, 싫음’이 드러나 있다. (61ㄷ)은 ‘마우다’의 예로 ‘마우다’는 ‘들을 이에게 거절의 뜻으로 하는 말’의 의미이다. 학교 갔다 오면 밧에 오라는 말에 싫다는 감정을

207)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238

208)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461

209)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234

210) ① 너희들히 거슬 뿐 양 말라. (너희들이 거역할 뜻을 갖지 말라.) (《석보상절》 24:12)

② 너희 天人들히 하 슬허 말라. (너희 天人들이 너무 슬퍼 말라.) (《석보상절》 23:8)

③ 願흔돈 어마니미 그려 마르쇼셔. (원하건대 어머님께선 그리워 마십시오.) (《석보상절》 11:20)

표현하는 ‘미움’의 하위 범주인 ‘싫음’이 드러나 있다.

지금까지 품사별로 정리한 ‘미움’의 감정 단어 개수를 보니, 사용 빈도는 동사>형용사>부사>명사>감탄사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6> ‘미움’을 나타내는 감정 단어 개수

품사 기본 감정	명사	부사	동사	형용사	감탄사	합계
미움 개수	22	50	83	73	11	239

7. 놀라움을 나타내는 표현

「표준국어대사전」은 ‘놀라움’을 ‘놀라운 느낌’으로 정의한다. 놀라움은 생각지도 못했을 때, 예상 밖의 일로 인해 놀랐을 때 나타나는 감정이다. 갑작스럽거나 어떤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과 연관이 되어 있으며, 느낌 혹은 자동적인 반응, 심리적인 반응으로 나타난다. 놀라움의 경우 혈압이 상승하거나 호흡 및 맥박이 빨라지며 땀이 나는 것과 같은 상태를 말한다. 또한 심장이 빨리 뛰다가 나 동공이 확장되기도 한다. 놀라움을 나타내는 하위 범주에는 「충격」, 「놀람」 등이 있다.

다음은 제주방언 놀라움의 감정 표현에 대하여 구체적인 단어·뜻풀이·예문 등을 제시하면서 감정의 표현 양상과 언어적인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7.1. 명사에 나타난 감정 표현

제주방언에서 놀라움을 나타내는 명사는 어떤 충격을 받아 몹시 놀랐을 때나, 어린 아이들이 깜짝깜짝 놀라며 일으키는 경기 등으로 나타났다. 놀라움의 감정을

나타내는 제주방언 명사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62) 겁비, 고래장비, 놀랜다리, 날우치, 날쿠시, 녀들이, 녀들임, 몰고사니, 몰고
생이, 몰골, 정세, 줄똥, 휘걸음, 휘돌음, 휘똥

(62)는 명사에 나타난 감정 표현으로 모두 간접적인 감정 표현에 해당된다. 몇
가지 예를 통해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3) ㄱ. 가네 아들은 운전하던 정세²¹¹⁾ 발작하면 흠마 죽을 뻔했어세. (그 사
람 아들은 운전하다가 경기 발작해서 하마터면 죽을 뻔 했어.)
ㄴ. 우리 딸은 녀난 생이라 밤만 되면 매날 줄똥²¹²⁾ 싹수다게. (우리 딸은
낮이 나갔는지 밤만 되면 매일 설사 하네요.)
ㄷ. 한걸히게 놀당 휘걸음²¹³⁾ 혼다이. (한가하게 놀다가 급한 걸음 걷는
다.)
ㄹ. 기지젠 비가 ㄴ늘게 솔솔 느려라마는, 어제 오날은 천동치명 고래장
비²¹⁴⁾가 오랏저원. (그저께는 비가 가늘게 솔솔 내리더니, 어제 오늘
은 천동치면서 고래장비가 오는구나.) (용례사전 I, p.257)

(63ㄱ)은 ‘정세’의 예이며 ‘정세’는 ‘경기(驚氣)’의 의미이다. 운전하다가 갑자기
경기가 나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는 ‘놀라움’의 하위 범주인 ‘충격, 놀람’이 드러나
있다. (63ㄴ)은 ‘줄똥’의 예이며 ‘줄똥’은 ‘놀랐거나 심한 설사가 났을 때, 견잡을 수
없이 자주 갈기는 똥’의 의미이다. 어떤 일로 충격을 받아 낮 나간 딸이 밤만 되면
매일 설사한다는 ‘놀라움’의 하위 범주인 ‘충격, 놀람’이 드러나 있다. (63ㄷ)은 ‘휘
걸음’의 예이다. ‘휘걸음’은 ‘황급한 걸음’의 의미이다. 여기서 ‘휘걸음’이란 활개를
치며 걷는 걸음으로, 아주 바빠 걷는 걸음을 말한다. 한가하게 놀다가 급한 일이 생
겨 빨리 걷게 된다는 ‘놀라움’의 하위 범주인 ‘충격, 놀람’이 드러나 있다. (63ㄹ)은

211)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p.748

212)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602

213)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725

214)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53

‘고래장비’의 예이며, ‘고래장비’는 ‘오랫동안 줄기차게 내리는 비’의 의미이다. 그저께는 비가 가늘게 솔솔 내리더니, 어제 오늘은 천둥치면서 고래장비가 온다는 ‘놀라움’의 하위 범주인 ‘놀람’이 드러나 있다.

7.2. 부사에 나타난 감정 표현

제주방언에서 놀라움을 나타내는 부사는 갑자기 어떤 충격에 정신이 아찔하여 뭐가 뭔지 분간하지 못하거나, 깜짝깜짝 놀라 가슴이 철렁하는 모습 등으로 나타난다. 놀라움의 감정을 나타내는 제주방언 부사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64) ㄱ꼬닥ㄱ꼬닥, 고닥고닥, 고덱고덱, 고들락고들락, **깜짝깜짝**, 금착, 금치락, 금착금착, 금칠락금칠락, 는착는착, 두령청이, 두랑청이, 두령청이, 두령성이, 들각, 들각, 멀롱멀롱, 멀쑥멀쑥, 바당바당, 수시미악, 엄뜩엄뜩, 왈강달강, 왈강왈강, 왈그랑달그랑, 왈크랑왈크랑, 우당우당, 우당탕우당탕, 울렁울렁, 조막조막, 주막주막, 줌막줍막, 줌막, 줌막줍막, 줌막줍막, 줌짝, 줌짝 줌짝, 주물락, 추물락, 툨락툨락, 툨랑툨랑, 탐불랑, 핀찍핀찍, 흙마, 흙마라민, 흙마떼민, 흙마흙마, 화룩화룩, 화룩화룩, 화르룩화르룩

(64)는 부사에 나타난 감정 표현으로, ‘고들락고들락’, ‘왈강달강’, ‘우당탕우당탕’ 등은 직접적인 감정을 나타내며, ‘두령청이’, ‘들각’, ‘흙마떼라민’ 등은 간접적인 감정 표현에 해당된다. 몇 가지 예를 통해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5) ㄱ. 독구는 금착²¹⁵⁾ 노래어지기도 **헉**고 어이침사가리웃곡 **헉**여도 기십이 **푹** 죽언. (독구는 **깜짝** 놀라기도 하고 어이 **없고** 해도 담기가 **푹** 죽어 서.) (용례사전Ⅱ, p.347)

ㄴ. 징심밥 **출령** 오기로 **헉** 죽은년이 **오**끗 **즐**아분 생인고라 **막** **늦**이 줍막 줍막²¹⁶⁾ **오**관테 **후**려 **아**가리질 **헉**여된. (점심밥 준비하고 오기로 한

215)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p.113

216)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603

작은 딸이 그만 좋아버린 모양인지 막 늦게 많이 놀란 듯하며 오길래
마구 옥해두고는.) (용례사전 I, p.58)

- ㄷ. 밧 이염 땡기단 진진히고 징그러운 껍죽이 봐전 추물락²¹⁷⁾ 노래여져
라게. (밭이랑 다니다가 길고 징그러운 껍질을 봐서 깜짝 놀랐어.) (용
례사전 I, p.241)

(65ㄱ)은 ‘금착’의 예로 ‘금착’은 ‘덜컹, 깜짝, 갑자기 놀라거나 겁에 질려 가슴이
내려앉는 모양’의 의미이다.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에 놀라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해
서 담기가 폭 죽었다는 ‘놀라움’의 하위 범주인 ‘놀람’이 드러나 있다. (65ㄴ)은 ‘줍
막줍막’의 예로 ‘줍막줍막’은 ‘몹시 놀라 몸을 연이어 떠는 꼴’의 의미이다. 점심밥
을 준비하고 오기로 한 작은 딸이 그만 잠이 들어 제때 준비해오지 못하자 혼날까
봐 ‘줍막줍막’ 하는 모습에서 ‘놀라움’의 하위 범주인 ‘놀람’이 드러나 있다. (65ㄷ)
은 ‘추물락’의 예이며 ‘추물락’은 ‘깜짝 놀라서 멍뚱하는 모양’의 의미이다. 일하다가
밭이랑에서 길고 징그러운 껍질을 봐서 깜짝 놀랐다는 ‘놀라움’의 하위 범주인 ‘놀
람’이 드러나 있다. 여기서의 인간의 혐오 대상인 뱀의 껍질을 보니 반사적으로 깜
짝 놀라는 감정이 내포되어 있다.

7.3. 동사에 나타난 감정 표현

제주방언에서 놀라움을 나타내는 동사는 어떤 소리나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가슴이 덜컹하고 놀라거나, 얼떨떨한 감정 등으로 나타났다. 놀라움의 감정을 나타
내는 제주방언 동사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66) 고들락고들락하다, 금착하다, 금착금착하다, 금치락하다, 금치락금치락하
다, 금칠락하다, 녀나다, 녀들이다, 눈칭돌아지다, 놀랍다, 놀래다, 느낌하
다, 는착는착하다, 는착하다, 두랑청하다, 두령청하다, 두령성하다, 어마줍
짝하다, 어병병하다, 엄뜩하다, 우당탕우당탕하다, 정세하다, 조막조막하
다, 주막주막하다, 주막거리다, 줍막줍막하다, 주물락주물락하다, 주물락하

217)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598

다, 추물락하다, 줍막하다, 줍작하다, 줍작줍작하다, 줄똥싸다, 중치맥히다,
추물락하다, 줍막줍막하다, 툭락툭락하다, 툭랑거리다, 툭랑툭랑하다, 편두
룽하다, 혼겁나다, 혼불나다, 화룩화룩하다, 화르룩화르룩하다, 해걸음치
다, 해들음치다, 해들음하다, 해똥ㄱ리다, 해똥굴기다, 해똥싸다

(66)은 동사에 나타난 감정 표현으로, ‘금착금착하다’, ‘놀래다’, ‘추물락하다’ 등
은 행위자의 행동에서 바로 분출되는 직접적인 감정 표현이며, ‘논착하다’, ‘엄뜩하
다’, ‘정세하다’ 등은 간접적인 감정 표현으로 나타난다. 몇 가지 예를 통해 사용 양
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7) 가. 아이고, 제게 나와사 살릴 걸 흐멍 흐난. 가이가 영 들어갓단 아이고,
이디 잇수덴. 영영 흐멍 나와 가난. 놀래게²¹⁸⁾ 말라, 놀래게 말라. 저
기관장이 사공이 이물사공이 우리 씨누이 서방이라신디. (아이고, 겨
우 나와야 살릴 걸 하면서 하니까. 개가 이렇게 들어갓다가 아이고,
여기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나와 가니까 놀래게 말라,
놀래게 말라. 저 기관장이 사공이 이물사공이 우리 시누이 남편이었는
데.) (온평리 23, p.41)

나. 수정이가 줍줍 흐난 일구는 줍작흐여진다.²¹⁹⁾ (수정이가 조용하니까 일
구는 놀란다.) (용례사전Ⅱ, p.90)

다. 백 명이 전준 예비심스에서 귀경하는 사름덜을 몬 중치맥히게²²⁰⁾ 흐
여가명 당당하게 본심에 올라산 사름이우다. (백 명이 건준 예비심사
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을 모두 충격 먹고 속셈을 잃게 해가면서 당당
하게 본심에 올라온 사람입니다.) (용례사전Ⅱ, p.337)

(67가)은 ‘놀래다’의 예로 ‘놀래다’는 ‘놀라다(驚)’의 의미이다.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 이미 죽었다고 생각한 기관장이 살아서 바깥으로 나와 가니까 사람들에게

218)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p.184

219)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598

220)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605

놀라게 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놀라움’의 하위 범주인 ‘충격, 놀람’이 드러나 있다. (67ㄴ)은 ‘줍짝하다’의 예로 ‘줍짝하다’는 ‘뜻밖의 일에 깜짝 놀라다’의 의미이다. 늘 조잘조잘 얘기하던 수정이가 조용하니까 일구는 평소답지 않는 수정이의 모습을 보고 지레 겁을 먹어 놀라는 감정이 내포되어 있는 ‘놀라움’의 하위 범주인 ‘놀람’이 드러나 있다. (67ㄷ)은 ‘중치맥히다’의 예로 ‘중치맥히다’는 ‘몹시 충격적인 일을 당하여 속셈을 잃어버리다’의 의미이다. 백 명이 견준 예비심사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을 모두 충격받게 하여 속셈을 잃게 했다는 ‘놀라움’의 하위 범주인 ‘놀람’이 드러나 있다. 또한 ‘금착하다’는 ‘뜻밖의 일을 당하여 깜짝 놀라다’의 의미이며, 전통 제주인이 아니면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감지하지도 못하는 어느 외국의 언어처럼 생소하고 말맛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4. 형용사에 나타난 감정 표현

제주방언에서 놀라움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놀라고 황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 눈앞이 캄캄하거나, 상황이 너무 뜻밖이어서 놀라는 감정 등으로 나타났다. 놀라움의 감정을 나타내는 제주방언 형용사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68) 기맥히다, 노랍다, 느끔히다, 누끔히다, 느끔히다, 늠쌉히다, 도리삭삭히다, 도리삽삽히다, 도리궁궁히다, 두렁청히다, 두렁성히다, 두리삭삭히다, 두리삽삽히다, 두리판판히다, 두리편편히다, 써운히다, 썸지그랑히다, 썸지그랑히다, 어안이병병히다, 어이웃다, 어이치기웃다, 어이금사리웃다, 어이침사가리웃다, 어이침사리웃다, 어이금살이웃다, 엄창크다, 중치맥히다

(68)은 형용사에 나타난 감정 표현으로 ‘노랍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간접적인 감정 표현에 해당된다. 몇 가지 예를 통해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9) ㄱ. 각시영 ㄱ찌 혼참 자단 그 소나이가 두렁청히게²²¹⁾ 우글렉기 일어산
 게마는 줌웃 입은 차로 죽언 묻어분 벗 일름 불르명 올레레 나간. (아

221)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p.266

내와 같이 한참 자다가 그 남자가 어리둥절하게 벌떡 일어나더니 잠
옷 입은 채로 죽어 물어버린 친구 이름 부르면서 골목으로 나가서.)
(용례사전Ⅱ, p.380)

- ㄴ. 동네 사람덜은 영 정 혼 말덜광 도리삽삽흐멍²²²⁾도 놉이 일어난 그자
아멩이나 곶아뎡겐다. (동네 사람들은 이런 저런 말들과 얼떨떨하면
서도 남의 일이어서 아무렇게나 말하며 다녔다.) (용례사전Ⅱ, p.235)
- ㄷ. 산도깨비가 어이금사리웃인²²³⁾ 거추룩 각각각 웃이멍 나대여십주. (산
도깨비가 어처구니 없이 각각각 웃으면서 으스스했지요.) (용례사전Ⅱ,
p.328)

(69ㄱ)은 ‘두령청흐다’의 예로 ‘두령청흐다’는 ‘정신이 얼떨떨하여 어리둥절하다’
의 의미이다. 아내와 같이 한참 자다가 그 남자가 어리둥절하게 벌떡 일어나더니
잠옷 입은 채로 죽어 물어버린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골목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
고 복합적인 감정이 내포되어 있는 ‘놀라움’의 하위 범주인 ‘충격, 놀람’이 드러나
있다. (69ㄴ)은 ‘도리삽삽흐다’의 예로 ‘도리삽삽흐다’는 ‘어떤 일에 휘둘리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얼떨떨한 상태에서 이리저리 헤매다’의 의미이다. 동네 사람들이 이
런저런 말하는 모습에 자신은 얼떨떨했다는 ‘놀라움’의 하위 범주인 ‘놀람’이 드러
나 있다. ‘도리삽삽흐다’는 ‘도리삭삭흐다, 두리삭삭흐다, 두리삽삽흐다’ 등 동의적
표현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69ㄷ)은 ‘어이금사리웃다’의 예로 ‘어이금사리웃
다’는 ‘어이없다’에 ‘금사리’가 덧붙여 좀 속되고 힘줄을 나타내는 말로 ‘어처구니 없
다’의 의미이다. 산도깨비가 나타났다는 것만으로도 어처구니 없어서 ‘놀라움’의 하
위 범주인 ‘놀람’이 드러나 있다.

7.5. 감탄사에 나타난 감정 표현

제주방언에서 놀라움을 나타내는 감탄사는 놀라움이 컸을 때 탄식과 곁들어
내거나, 갑자기 차갑거나 뜨거운 것에 닿아 놀랐을 때 급하게 내는 소리 등으로 나

222)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179

223)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494

타났다. 놀라움의 감정을 나타내는 제주방언 감탄사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70) 떠바, 떠블라, 떼블라, 시상에, 아씨글라, 앓씨글라, 어씨글라, 어쭈글라, 엇씨글라, 으마, 어마, 에마, 으마뎡어리, 어마뎡어리, 에마뎡어리, 아떠블라, 앓떠블라, 어떠블라, 엇떠블라, 아이고, 아이구저라, 윈, 흙마뎡어리

(70)는 감탄사에 나타난 감정 표현으로, 화자의 놀라움이 바로 분출되는 직접적인 감정 표현에 해당된다. 몇 가지 예를 통해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1) 가. 떠바²²⁴! 문직지 말라. (떠바! 만지지 마라.)

나. 어씨글라²²⁵! 야이도 윈. 등뎡이에 물을 솔솔 비우라게. (앗 차가워! 애도 참. 등에 물을 살살 비워라.)

다. 시상에²²⁶! 계난 가이가 경 헛단 말이가? (세상에! 그러니까 그 애가 그렇게 헛단 말이냐?)

(71가)은 ‘떠바’의 예이며 ‘떠바’는 ‘어린애가 뜨거운 것을 모르고 가까이하려 할 때 뜨거움을 일깨우며, 가까이 하지 못하게 경계할 때 하는 소리’의 의미이다. 뜨거우니 만지지 말라고 당부하는 ‘놀라움’의 하위 범주인 ‘놀람’이 드러나 있다. ‘떠바’는 ‘떠블라, 떼블라’ 등 동의적 표현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뜨거움을 느꼈을 때는 감탄사 ‘아!/어!’가 붙어서 ‘아(어)!떠바, 아(어)!떠블라, 아(어)!떼블라’ 형태로 나타난다. (71나)은 ‘어씨글라’의 예이며 ‘어씨글라’는 ‘갑자기 차가운 것이 몸에 닿아 놀랐을 때, 급하게 내는 소리이며 ‘앗 차가워!’의 의미이다. 갑자기 차가운 물이 등에 닿으니 깜짝 놀라서 자신도 모르게 ‘앗 차가워!’를 발화하는 ‘놀라움’의 하위 범주인 ‘놀람’이 드러나 있다. ‘어씨글라’도 ‘아씨글라, 앓씨글라, 어쭈글라, 엇씨글라’ 등 동의적 표현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71다)은 ‘시상에’의 예이며 ‘시상에’는 ‘놀라움이 컸을 때 탄식과 곁들여 내는 소리로 ‘세상에 어디 이럴 수가’의 의미이다.

224)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216

225)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493

226)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447

상대방의 한 행동이나 말에 충격을 받아 ‘시상에’를 발화하고 있는 ‘놀라움’의 하위 범주인 ‘충격, 놀람’이 드러나 있다. 또한 ‘오마뎡어리’²²⁷⁾, ‘어썬글라’, ‘어썬글라’, ‘어떠블라’는 전통 제주인이 아니면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감지하지도 못하는 어느 외국의 언어처럼 생소하고 말맛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품사별로 정리한 ‘놀라움’의 감정 단어 개수를 보니, 사용 빈도는 동사>부사>형용사>감탄사>명사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7> ‘놀라움’을 나타내는 감정 단어 목록

품사 기본 감정	명사	부사	동사	형용사	감탄사	합계
놀라움	15	49	50	27	23	164

이 연구에서는 제주방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주방언 감정 표현의 유형을 연구하기 위해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과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에 수록되어 있는 감정 단어를 추출하여 범주화한 뒤,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사랑’, ‘미움’, ‘놀라움’ 등 7가지 기본 감정에 따른 하위 범주를 추출하여 구체적인 예문 양상을 살펴보았다. 추출된 감정 단어의 범주화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8> 제주방언에 나타난 감정 단어 분석 결과

품사 기본 감정	명사	부사	동사	형용사	감탄사	감정별 합계
기쁨	23	75	59	138	31	326
슬픔	25	42	144	71	34	316
분노	600	92	356	41	52	1,141

227) 너무 놀라운 일을 당하였을 때 내는 소리로, ‘어마 어찌면 좋을까’의 뜻,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 p.464

두려움	33	18	60	20	10	141
사랑	22	17	36	12	50	137
미움	22	50	83	73	11	239
놀라움	15	49	50	27	23	164
품사별 합계	740	343	788	382	211	2,464

제주방언에 나타난 감정 단어를 분석한 결과, 기쁨을 나타내는 제주방언 감정 표현의 수는 총326개, 슬픔을 나타내는 제주방언 감정 표현의 수는 총316개, 분노를 나타내는 제주방언 감정 표현의 수는 총1,141개, 두려움을 나타내는 제주방언 감정 표현의 수는 총141개, 사랑을 나타내는 제주방언 감정 표현의 수는 총137개, 미움을 나타내는 제주방언 감정 표현의 수는 총239개, 놀라움을 나타내는 제주방언 감정 표현의 수는 총164개로 나타났다. 제주방언을 기본 감정에 따른 하위 범주로 분류하였을 때 가장 높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감정은 ‘분노’로, 전체 감정 단어 수 2,464개 중 약 46%를 차지하였다. 제주도는 외부와 철저히 격리된 섬이란 지형 조건과 역사적으로 외부로부터의 수많은 침략과 수탈, 지배를 받아와서 제주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온통 저항과 방어 의식이 강하다보니 긍정적 감정보다는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가 많지 않았나 판단된다. 또한 제주방언의 감정 표현 중 명사의 수는 총740개, 부사의 수는 총343개, 동사의 수는 총788개, 형용사의 수는 총382개, 감탄사의 수는 총211개로 나타났다. 제주방언을 품사로 분류하였을 때 가장 높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품사는 ‘동사’로 전체 감정 단어 중 약 32%를 차지하였다. 이는 사람과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비하하고 나무라는 표현이 아주 많고, 감정에서 유발되는 신체적인 체험을 근거로 하여 제주 사람들은 그것을 언어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제주방언 감정 표현의 언어적 특성

이 장에서는 제주방언 감정 표현의 언어적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 논의한 감정 표현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제주방언만이 지니는 다수의 언어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는 좀 더 명료화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감정 표현의 빈도, 감정 표현 형태의 다양성과 특이성, 감정 표현 어휘의 독창성, 감정 표현의 이미지와 은유, 기타 특성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1. 감정 표현의 빈도

제주방언이 다른 지역의 방언과는 달리 투박하고 거친 어휘가 많다는 것은 외부와 철저히 격리된 섬이란 지형 조건과 역사적으로 외부로부터 당했던 수많은 침략과 수탈, 지배 등이 제주 사람들 심리에다 저항과 방어 의식을 강하게 심어 놓았다는 추론하에 강하게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가 많은 걸 알 수 있었고,²²⁸⁾ 제주도의 특징 자연인 돌, 바람, 땅 등 척박한 자연환경도 언어 창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판단된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방언을 유심히 살펴보면 특히, 자음 ‘ㄱ, ㅌ, ㅍ, ㅎ’으로 시작되는 어휘들 중 거친 어휘가 아주 많다는 것이다. 또한 겹자음인 ‘ㄱ, ㅌ, ㅍ, ㅎ’으로 시작되는 어휘들 중에도 많은 편이며, 제주방언에 접두사 ‘처-’, ‘펴-’, ‘판-’, ‘헛-’, ‘쟁-’, ‘줏-’ ‘줏어-’, ‘짓-’ 등과 접미사 ‘-푸데’, ‘-토메기’, ‘-쟁이’, ‘-와리’, ‘-악사니’ 등이 붙으면 상대방을 나무라거나 얕잡는 표현이 더 강해지고 내부 감정이 더 격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접두사 ‘처-’는 ‘마구’, ‘힘껏’, ‘닥치는 대로’ 따위의 뜻으로, ‘처두드리다(마구 두드리다)’, ‘처먹다(닥치는 대로 먹다)’, ‘처뭇다(형체가 으깨어질 정도로 닥치는 대로 때려 부수고 으깨다)’,

228) 제주방언에 나타난 감정 단어 분석 결과는 <표 18>에서 제시하였다.

‘처맛다(마구 맛다)’, ‘처박다(짐 따위를 닥치는 대로 무질서하고 뻑뻑하게 집어넣다)’, ‘처담다(닥치는 대로 마구 힘껏 담거나 집어 넣다)’, ‘처입다(옷을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움직이기에 불편할 정도로 많이 입다)’, ‘처욕하다(마구 욕하다)’ 등으로 나타난다. 접두사 ‘펴-’는 ‘마구’, ‘함부로’의 뜻으로 ‘펴먹다(마구 먹다)’, ‘펴두드리다(마구 두드리다)’, ‘펴쓰다(함부로 써서 낭비하다)’, ‘펴욕하다(마구 욕하다)’, ‘펴맛다(마구 맛다)’ 등으로 표현되어 상대방을 나무라거나 분노 감정이 더 격하게 나타난다. 접두사 ‘판-’은 ‘순전히, 완전히’ 따위의 뜻으로 ‘판무식(맨무식)’, ‘판무식다리(완전히 무식한 사람)’, ‘판무식쟁이(완전히 무식한 사람)’, ‘판고집다리(무척 고집이 센 사람)’, ‘판굴퉁다리(무척 심술이 많은 사람)’ 등으로 나타나고, 접두사 ‘헛-’은 ‘참되지 못한, 쓸데없는 실속 없는, 보람 없는 잘못된’ 따위의 뜻으로, ‘헛손, 헛손질(의식 없이 손을 움직이거나 쓸데없이 휘두르는 손을 이르는 말)’, ‘헛녁, 헛노릇(헛일)’, ‘헛고생(헛고생)’, ‘헛질(소득이 없는 나들이)’, ‘헛나이(이룬 게 없는 나이)’, ‘헛소리(근거 없거나 제정신이 아닐 때 하는 소리)’ 등으로 표현되어 상대방을 나무라거나 얕잡는 감정이 강해진다. 또한 접두사 ‘생-’은 명사 앞에 결합되어 ‘가당치 않은, 거짓의, 길들이지 않은’ 등의 뜻을 지녀 ‘생과닥’, ‘생균용’, ‘생그짓말’, ‘생떼거리’, ‘생아연’, ‘생야단’, ‘생어거리’, ‘생억지’, ‘생어거리쟁이’, ‘생언강’, ‘생엄살’, ‘생트집’, ‘생빙’ 등으로 표현되고, 접두사 ‘좃-’은 주로 ‘마구’, ‘닥치는 대로’의 뜻을 지녀 ‘좃박다’, ‘좃앗다’ 등으로 표현된다. 접두사 ‘좃어-’는 ‘닥치는 대로’, ‘마구’의 뜻을 지녀 ‘좃어듣다’, ‘좃어담다’, ‘좃어못다’ 등으로 표현되고, 접두사 ‘짓-’은 ‘마구, 닥치는 대로, 흠씬’ 등 ‘강세’의 뜻을 지닌 뜻으로 ‘짓고생(심한 고생)’, ‘짓망신(심한 망신)’, ‘짓이기다(흠씬 이기다)’, ‘짓부수다(마구 닥치는 대로 부수다)’ 등으로 표현된다. 접미사 ‘-푸데’는 ‘지나치게 먹거나 마시는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뜻으로 ‘술푸데(술을 많이 먹는 사람)’, ‘밥푸데(밥을 많이 먹는 사람)’, ‘똥푸데(방귀를 잘 끼는 사람)’, ‘즙푸데(잠꾸러기)’ 등으로 표현되고, 접미사 ‘-토메기’는 명사에 붙어서 ‘낮음, 얕잡음’을 나타내어 ‘부에토메기(‘부아’를 얕잡아 이르는 말)’, ‘셈토메기(사물을 헤아리는 마음씨)’, ‘술토메기(살을 얕잡아 이르는 말)’ 등으로 표현되어 상대방을 나무라거나 얕잡는 표현이 더 강해진다.

2. 감정 표현 형태의 다양성과 특이성

제주방언에는 한 어간의 어형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서 동의적 표현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주방언 감정언어에 유사한 어휘가 많다는 것은 마을마다 다른 어휘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다. 추정해 본 결과, 그건 넓은 공간에서 상호 간 소통하게 만들어진 생활 공간이 아닌 협소한 작은 지역에서 일상 생활이 많았기 때문이라 짐작된다. 또한 침략의 되풀이를 당한 제주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고도 보여지며, 조상 대대로 자유롭고 넓게 활동할 수 없었던 어떤 강압이나 제약 때문에 필요한 언어들만 작은 마을별로도 언어를 만들어 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제주방언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동의적 표현을 품사별로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90ㄱ) ㉠ 국취기, 국취기, 국취애기, 국즌배기, 국재기, 국저배기, 국주애기, 국취애기, 국취왜기 등
- ㉡ 삐얌데기, 삐얌다귀, 삐얌망데기, 삐얌다구리, 삐얌닥, 삐얌데기 등
- ㉢ 웃음거리, 웃음건지, 웃음벨탁, 웃음벨탁이, 웃음차자기, 웃음차제기, 웃음타자기, 웃음타자기 등
- ㉣ 억지다리, 억지쟁이, 어거지쟁이, 어거짓꾼, 억지꾼, 억지둥이 등
- (90ㄴ) ㉠ 웅장웅장, 웅웅, 웅진웅진, 웅을랑웅을랑, 앙은앙은, 웅은웅은, 웅은웅은 등
- ㉡ 흘강흘강, 할강할강, 흘강흘강, 흘근흘근, 할근할근, 흘근흘근, 흘그랑흘그랑, 흘그랑흘그랑 등
- ㉢ 불락불락, 벨락벨락, 벨딱벨딱, 벨치락벨치락, 불딱불딱, 불탁불탁, 불착불착, 불치락불치락, 불락불락, 불락불락, 불룩불룩 등
- ㉣ 실긋실긋, 흘긋흘긋, 들긋들긋, 흘긋흘긋, 헬긋헬긋, 흘금흘금, 흘끔흘끔, 흘끗흘끗, 힐긋힐긋, 히끗히끗, 힐끗힐끗, 실구룻이, 흘긋이, 실구룻실구룻, 실탁실탁, 실트락실트락 등

- (90ㄷ) ㉠ 봉당봉당하다, 봉당봉당하다, 봉당봉당하다, 봉장봉장하다, 봉진봉진하다, 봉얼옹얼하다, 봉을랑봉을랑하다, 중은중은하다, 뵙뵙거리다, 뵙뵙거리다, 봉진거리다, 봉진들다 등
- ㉡ 불룩불룩하다, 불축불축하다, 불착불착하다, 불치락불치락하다, 불치락불치락하다, 불탁불탁하다, 불딱불딱하다 등
- ㉢ 을강거리다, 글강거리다, 흘강흘강하다, 흘강거리다, 흘그랑거리다, 흘그랑거리다, 할강거리다, 할그랑거리다, 할근거리다, 할근들다, 흘강거리다, 흘근거리다, 흘근들다 등
- ㉣ 애통끈어지다, 애통터지다, 실게그차지다, 실게끈어지다, 실게창지그차지다, 실게창지끈어지다, 애그차지다, 애끈어지다, 애창지끈어지다, 애통그차지다, 오장그차지다, 오장끈어지다, 오장창지그차지다, 오장창지끈어지다 등

- (90ㄹ) ㉠ 곱닥하다, 곱드글락하다, 곱드락하다, 곱들락하다 등
- ㉡ 머세 좋다, 머생이 좋다, 머의 좋다, 머정 좋다, 머쟁이 좋다, 머히 좋다 등
- ㉢ 와직와직하다, 와지직와지직하다, 와지지하다, 바직바직하다, 바지직바지직하다, 바지직하다, 바지지하다 등
- ㉣ 꿩다, 꿩가랴다, 꿩다, 꿩다, 꿩다, 꿩다, 꿩다 등

- (90ㄴ) ㉠ 아불쌍, 어불쌍, 아차불쌍, 어차불쌍, 어차불쌍, 어풀싸, 어풀쌍 등
- ㉡ 어부바, 부바, 부아, 부애, 부우애, 어부아 등
- ㉢ 아고저라, 아이고저라, 아이구저라 등
- ㉣ 떠바, 떠블라, 떼블라 등

(90ㄱ)은 명사, (90ㄴ)은 부사, (90ㄷ)은 동사, (90ㄹ)은 형용사, (90ㄴ)은 감탄사에 나타난 동의적 표현의 예이다. 이와 같이 동의적 표현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의미도 거의 동일하다.

또한 제주방언 분노의 감정 표현 중에는 사람과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비하하고

나무라는 호칭이 아주 많음을 알 수 있다. 감정에서 유발되는 신체적인 체험을 근거로 하여 제주 사람들은 그것을 언어화하고 있다. 그 이유는 섬이라는 특성상 폐쇄성, 중앙 벼슬아치들의 유배지, 외세의 침략 등으로 사람에 대한 경시 풍조가 많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우선 사람에 대하여는 ‘-다리’, ‘-둥이’, ‘-쉬’, ‘-와리’, ‘-쟁이’ 등으로 나타나는 감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91) 굽다리, 간세다리, 간곡다리, 간국다리, 개움다리, 개슴다리, 고집다리, 굴툑다리, 귀아다리, 귀야다리, 꿰다리, 꿰쉬다리, 늑다리, 무충다리, 옥심다리, 흙세다리, 흙쟁이다리, 언강다리, 밀고다리, 밀세다리, 모양다리, 모양다리, 목다리, 명청다리, 몽니다리, 도망다리, 봉근다리, 팻뱅다리, 건풍다리, 죽쉬다리, 식충다리, 심술다리, 핑계다리, 우김다리, 빈복다리, 혈복다리, 광질다리, 광절다리, 살런다리, 술광질다리, 술광절다리, 솟다리, 송계다리, 물맹다리, 물명다리, 멩계다리, 억지다리, 억질다리, 좃춤다리, 구늑다리, 군움다리, 궁흥다리, 아연다리, 억취다리, 옥취다리, 옥취다리, 양작다리, 야기염다리, 야속다리, 언강다리, 엄살다리, 요망다리, 웨고집다리, 준꿰다리, 줄문다리, 죽쉬다리, 허풍다리, 풍언다리, 펠롱다리, 팻뱅다리, 간세쟁이, 건풍쟁이, 거짓깔쟁이, 굴툑쟁이, 귀막쟁이, 궤약쟁이, 노름쟁이, 느렁쟁이, 늑쟁이, 말버르쟁이, 말버르쟁이, 말쌈쟁이, 말쌈쟁이, 말쟁이, 말쟁이, 맷복쟁이, 몽니쟁이, 멩계쟁이, 송계쟁이, 아연쟁이, 악살쟁이, 야속쟁이, 싸움쟁이, 심으쟁이, 심술쟁이, 억지쟁이, 언강쟁이, 허풍쟁이, 요망쟁이, 우김쟁이, 핑계쟁이, 도둑쟁이, 옥쟁이, 옥심쟁이, 빗쟁이, 줄문쟁이, 고집쟁이, 송계쟁이, 코막쟁이, 격대쉬, 걸렁바쉬, 걸작쉬, 걸작쉬, 귀막쉬, 꿰쉬, 막쉬, 느르쉬, 드름쉬, 밥장쉬, 범벅쉬, 벨락쉬, 봉그쉬, 봉근쉬, 야그락쉬, 양작쉬, 어름쉬, 얼랑쉬, 얼합쉬, 죽쉬, 어지림탕쉬, 언강쉬, 허풍쉬, 헐어탕쉬, 이그락쉬, 으그락쉬, 옥박쉬, 옥쉬, 억쉬, 울웨쉬, 자글락쉬, 포마쉬, 패락쉬, 펠롱쉬, 펠롱쉬, 푼쉬, 헐어탕쉬, 흘그쉬, 헛대쉬, 헛대쉬, 간세둥이, 걸작둥이, 꿰둥이, 불썸둥이, 봉근둥이, 허천둥이, 억지둥이, 억질둥이, 옥둥이, 터투와리, 터투아리, 터투와리, 버부와리, 차추와리, 차추와리, 불초와리, 불초와리

(91)은 사람에 대하여 비하하고 나무람을 나타내는 ‘-다리’, ‘-둥이’, ‘-쉬’, ‘-와리’, ‘-쟁이’에 대한 감정을 정리한 것이다.

다음은 신체에 대한 표현이다. ‘데가리’는 주로 동물의 머리통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나, 사람의 ‘머리’의 뜻으로 쓰일 때는 ‘머리’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이는 ‘ㄷ가리, ㄷ쟁이, 다가리, 다강이, 다쟁이, 대가리, 대강이, 대쟁이, 대구리, 대긋박, 대망쟁이, 대망이, 대맹이, 대맹이, 더가리, 더강이, 더쟁이, 더망세기, 더망쟁이, 더맹이, 데강이, 데구리, 데긋박, 데긋박이, 데망세기, 데망쟁이, 데망이, 데맹이’ 등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도 거의 30여 개가 되는 어휘로 신체를 하대하고 얕잡는 말로 빗대어 다양한 형태로 불리고 있다. ‘볼때기’는 ‘볼’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볼따귀, 볼망대기, 볼망대기, 볼망뎡이, 볼치, 볼치머리, 볼트가리, 볼타구니, 볼타귀, 볼태기, 볼타가리, 볼탁사니, 볼탁서니, 볼닥사니, 볼타가리’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벧부기’는 ‘배(腹)’를 낮잡아 이르는 말로 이는 ‘배따지, 배때기, 배야뎡이, 배야쟁이, 배야지, 배통이, 벧다지, 벧보곰지, 벧복, 벧부기, 배때기, 배야뎡이, 배야지, 배토막이, 배통이, 배통이, 벧보기, 벧복, 벧복지, 벧부기’ 등으로 나타난다. ‘엉덩짝’도 ‘엉덩이’의 낮잡아 이르는 말로 ‘엉덩머리, 궁둥취배기, 궁둥패기, 엉뎡이, 엉덩짝, 엉덩과기, 엉뎡패기, 엉치, 엉뎡이, 잠지패기’ 등으로 나타난다. ‘주둥이’는 사람의 입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주둥아리, 주둥머리, 주뎡패기’ 등으로 나타난다. ‘귀뎡배기’는 ‘귀’를 낮잡아 이르는 말로 ‘귀통이, 구뎡배기, 귀때기, 귀뎡박이, 귀뎡배기, 귀뎡이, 귀아다리, 귀아다리, 귀야지, 귀예기’ 등으로 나타난다. ‘빼암데기’는 ‘뺨’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빼야망데기, 빼암, 빼암다구리, 빼암다귀, 빼암다, 빼암데기, 빼암망데기’ 등으로 나타난다. ‘눈망둥이’도 욕을 할 때, 인상에 따른 ‘눈’을 아주 나뻘 이르는 말이다. ‘눈갈이, 눈깨알이, 눈망귀, 눈망뎡이, 눈망둥이’ 등으로 나타난다. ‘모가지’는 ‘목’을 비속하게 이르는 말로 ‘모고마지, 모게기, 모감지, 모그마지, 목고디, 목다리’ 등으로 나타난다. 또한 ‘야게’는 ‘모가지’의 다른 제주방언으로 ‘야가기, 야가지, 야게기, 야래기, 야게’ 등으로 나타난다. ‘코막쟁이’는 ‘코’를 속되게 이르는 말로 ‘코멜썩이 코벨레기’ 등으로 나타난다. ‘손꼽데기’는 ‘손’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손꼽대기, 손꼽대기’ 등으로 나타난다. ‘발꼽데기’는 ‘발’을 얕잡아 이르는 말로 ‘발꼽대기, 발꼽대기’ 등으로 나타난다. ‘아가리’는 ‘입’을 비속하게 이르는 말로 ‘굴레, 굴레산

이, 아구리, 아귀’ 등으로 나타난다. ‘즈깡이’는 ‘겨드랑이’의 낮은말로 ‘즈깡이, 즈깡이, 즈드랑이, 즈드랭이, 좃깡이, 즈깡이, 저깡이, 저드랑이, 저드랭이, 적깡이, 젓깡이, 젓깡이, 제깡이’ 등으로 나타난다. ‘손목다리’는 ‘손목’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손모개기, 홀모개기, 장모개기, 장목다리, 풀모개기, 풀목다리, 홀목다리, 홀목이’ 등으로 나타난다. ‘발목다리’는 ‘발목’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발목에기, 발모개기’ 등으로 나타난다.

그 외에도 ‘생김새, 모양, 시늉’을 속되게 이르는 말은 ‘자부세, 다보세, 자벼세, 짜보세, 꼬락사니, 꼬라지, 꼬락지, 꼬레, 풀데가리, 풀상아리, 풀악사니, 뽕닥사니, 지세, 상판이, 상판테기’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3. 감정 표현 어휘의 독창성

현재 제주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휘들 중 표준어나 외래어가 제주어화 된 것을²²⁹⁾ 제외하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제주방언은, 제주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이어져 오는 고유언어이다. 그때그때 소통의 필요에 맞춰 만들어진 창조언어라고 보며, 제주 속에서만 독립적으로 사용되고 오랫동안 전래되어 오고 있는 언어이다. 제주방언은 다른 지방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독특하고 독창적인 언어라는 관점도 있다. 제주방언의 독창성과 특이성이 외지인들에게는 어느 정도 낯설었는지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 고장 사람들의 말소리는 가늘고도 날카로워 마치 바늘 끝처럼 찌르는 것 같으며 또한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여기 온 지 오래되니 차츰 자연히 알아듣게 됐다. 마치 아이들이 만어(蠻語)를 이해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본다.”²³⁰⁾

“제주 지방의 말은 알아듣기 어렵다. 촌백성들의 말은 알아듣기 어려우며, 말하는 억양이 앞은 높고 뒤는 낮다. 김정의 「제주풍토록」에서 보면 “이곳 사람들의

229) ‘계죽거리다’, ‘겨드락거리다’, ‘공상허다’, ‘광질허다’, ‘넉시근허다’, ‘뒤틀손벌리다’, ‘뽕니’, ‘물정어둡다’, ‘바들바들’, ‘선웃음’, ‘소박허다’, ‘양알허다’ 등이 있다.

230) 최철 편역(1983), 金淨 著, 「제주풍토록」, p269 인용.

말소리는 가늘고 드세어서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이 날카로우며, 또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 많다.” 고 하였고, 「州記」에는 “말에는 특이한 소리가 많아서 서울[京]을 서나(西那)라 하고, 숲[藪]을 고지(高之: 곶)라 하며, 오름[岳]을 오름(兀音)이라 한다. 툽[爪]을 콧(蹄)이라 하고, 입[口]을 굴레(勒)라 하며, 굴레[草羈]를 녹대(祿大)라 하고, 재갈[鐵銜]을 가달(加達)이라 한다. 그 말소리 따위가 이와 같다”²³¹⁾ 고 하였다.

인용문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조선시대 제주를 방문한 사람들은 제주방언을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독창성의 언어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제주방언은 감정언어이든 일반언어이든 독특하다. 국어학자들이 제주방언을 언어학적으로 형태를 분석하고 풀이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제주방언으로 소통하고 살아온 전통 제주인이 아니면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언어들이 상당히 많다. 바꿔 말하면 제주방언은 어느 외국의 언어처럼 생소하고 독특한 언어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제주방언은 말맛이 깊다. 그런 깊은 말맛은 제주방언으로 소통되고 이해되는 사람만이 온전히 느낄 수 있다. 표준어의 어떤 어휘를 가지고 제주방언으로 대체하여 소통할 때 화자나 청자가 느끼는 언어의 깊은 맛은 어떤 언어와는 견줄 수 없이 다르다는 것이다. 제주방언이 독특하면서도 깊은 말맛을 느낄 수 있는 어휘들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92ㄱ) ㉠ 머굴챙이: 생각이 답답하게 모자란 사람이나 제 생각만 하는 사람이나, 귀가 먹은 사람을 얹잡아 이르는 말
- ㉡ 물쿠시: 심술을 잘 부리는 사람
- ㉢ 돌패기: 인정머리 없는 사람
- ㉣ 범벅쉬: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
- ㉤ 가름도세기: 마을 이곳저곳을 정처 없이 휘저어 다니는 사람(탈출·방황·욕망·미움)
- ㉥ 물토세기: 욕심쟁이(혼자 살찌려는), 살찐 사람
- ㉦ 불썹둥이: 이른바 성이 불완전하여 이중으로 된 사람
- ㉧ 병개: 바보

231) 김찬흠 외 옮김(2002), 이원진 저, 「역주 탐라지」, pp.23-24 인용.

- (92ㄴ) ㉠ 벨딱벨딱: 자그마한 일에도 성깔을 부리는 꼴
- ㉡ 타들락타들락: 말할 때 소리가 매끄럽게 이어지지 못하고 울퉁불퉁 불만의 소리를 하는 꼴
- ㉢ 편두렁이: 시치미 떼고 모른 척하는 모양
- ㉣ 선네선네: 일을 서두르면서 시원시원하게 해치우는 꼴
- ㉤ ㄴ들ㄴ들: 쉬지 않고 한결같이 나아가는 긍정
- (92ㄷ) ㉠ 맥카지다: 몹시 속이 상해 애가 타다
- ㉡ 떠덕거리다: 자기만 잘난 척하며 으스스대며 떠들어대다
- ㉢ 늣삭늣다: 바라던 일이 잘 이루어져 마음에 모자람 없이 만족스러워 하다
- ㉣ 금착늣다: 가슴이 덜컥하고 놀라다
- ㉤ 뱃득상아리다: 어떤 일에 강한 집착을 보여 이를 악물고 덤비는 모습을 하다
- ㉥ 자들자들늣다: 한마디도 물러섬이 없이 남을 약 올리면서 말을 많이 하다
- (92ㄹ) ㉠ 시벽벽늣다: 성정이 무뚝뚝하고 억세다
- ㉡ 메랑늣다: 사람이 생기를 잃어 기운을 차리지 못해 잦아들다
- ㉢ 뜨그룽늣다: 움직이는 모습이 느린 듯하나 침착하고 차분하게 뚜벅 뚜벅하다
- ㉣ 딱근늣다: 성질이 듚직하고 차분하다
- ㉤ 코시룽늣다: (맛, 냄새 등) 비위에 맞아 고소하고 만족하다
- ㉥ 베지근늣다: (맛, 국물 등) 비위에 맞아 깊은 맛이 있고 만족하다
- ㉦ 지그뭇늣다: 검질기다. 이유를 불문하고 응하지 아니하다
- (92ㄷ) ㉠ 으따가라: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에 따라 부정, 놀라움, 나무람 따위의 뜻을 나타내려 할 때 앞에 쓰는 말
- ㉡ 으마뻥어리: ‘어마 어찌면 좋을까’의 뜻으로 너무 놀라운 일을 당하

였을 때 내는 소리

- ㉔ 어쑹원: 아랫사람이 한 일이 마음에 차지 않아 낭패를 당했을 때 안타까워 내는 소리. ‘어 이게 웬일이야, 어찌 이럴 수가’ 정도의 뜻
- ㉕ 탕강: 어린 아이들에게 밑으로 굴러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도록 일깨우는 말
- ㉖ (어)쑤글라: 갑자기 차가운 것에 닿아 놀랐을 때, 급하게 내는 소리. ‘앗 차가워’ 정도의 뜻
- ㉗ (어)떠블라 : 갑자기 뜨거움을 느꼈을 때 급하게 내는 소리. 어린 아이들에게 뜨겁다는 것을 알리는 소리. ‘앗 뜨거워’ 정도의 뜻

(92ㄱ)은 명사, (92ㄴ)은 부사, (92ㄷ)은 동사, (92ㄹ)은 형용사, (92ㅁ)은 감탄사와 관련된 독특하면서도 깊은 말맛을 느낄 수 있는 감정 표현 언어의 예이다.

4. 감정 표현의 이미지와 은유

제주방언은 시청각적 이미지가 강하게 나타난다. 제주방언에 나타나는 시청각적 이미지를 살펴보면 많은 언어들이 뚜렷한 형태나 행동이 눈에 보이는 듯하고 소리까지 느낄 수 있다. 시청각적 이미지를 동반하며 전달되는 감정 표현 언어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93) ㄱ. 웃음건지(웃음의 근본 덩어리: 소리·형태), 식충다리(먹기만 하는 ‘충’에게 의 욕: 상황·형태), 터투와리(쓸데없는 잔소리·모습), 눈물즈베기(눈물방울의 크기·모양)
- ㄴ. 커싱커싱(트집잡는 모양·소리), 툇랑툇랑(가슴이 두근두근: 소리·느낌), 울딱울딱(걸잡지 못하는 성질·모습), 붕당붕당(불평하는 소리·모양), 거들락거들락(거뭍거리거나 잘난 척하는: 모습), ㅂ랑ㅂ랑(불이 타는 모양·소리), 들썩들썩(기분이 좋은 움직임: 모양), 앙죽앙죽(듣기

- 싫게 되풀이 하는 소리·모양), 멍멍멍멍(불평 많은 소리·모양), 벨딱벨딱(성질을 부리는: 모양), 타들락타들락(울퉁불퉁 불만의 소리·모양)
- ㄷ. 친부뜨다(친해지도록 붙는다: 상태), 얼뚱싸다(얼이 담길 정도의 괴로움을 당하다: 정도의 느낌), 아가리질흐다(거칠게 욕하는 소리·모양), 앙을랑앙을랑흐다(투덜대며 잔소리·모양), 훌터야단흐다(정신없이 야단하는 소리·모양), 기십세우다(기를 세우다: 모양)
- ㄹ. 돌미용흐다(약간 달콤한 듯하다: 느낌), 어진어진흐다(어질고 어질다: 상태), 아도록흐다(아늑하고 안정된 상태·느낌), 서난흐다(가난하고 서러운: 상황), 사글사글흐다(뭉어 놓는 감정 없이 다 풀어놓은 모양·소리)
- ㅁ. 기여기여(‘맞다’라는 긍정의 강조: 느낌), 아어나야더리(나도 어쩔 수 없이 딱한 표정·느낌), 잘관이여(속 시원하게 잘 됐네: 마음)

(93ㄱ)은 명사, (93ㄴ)은 부사, (93ㄷ)은 동사, (93ㄹ)은 형용사, (93ㅁ)은 감탄사에 나타난 뚜렷한 형태나 강한 시청각적 이미지를 동반하며 전달되는 감정 표현 언어의 예이다.

또한 제주방언에 나타난 은유적 표현은 상상적이고 창조적이다. 은유의 어휘들도 거의 경험과 관습에 근거하고 있다. 제주 사람들이 사실적이고 직접적인 언어 사용으로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하며 많은 경험과 관습에서 나타난 은유의 대화를 많이 했다고 추정해 본다.

“은유는 주로 관습성 정도의 차이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일상적인 목적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의 언어 사용에 은유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 또는 얼마나 깊이 고착되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관습성이라는 개념의 이런 사용은 이 개념이 언어학과 기호학, 언어 철학에서 보통 사용되는 방식과는 다르다. 언어 기호의 본질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것처럼, ‘자의적’이라는 용어의 적용과 비슷한 뜻을 가진다. 그러나 여기에서 ‘관습적’이라는 용어는 잘 확립되어 있고 깊이 고착되어 있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은유가 한 언어 공동체의 언어 사용에 고도로 관습적이거나 관습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²³²⁾ 또한 “은유의 사용에 있어서 개별적 변이의 또 다른 원인은 개인

적 내력이다. 이는 단순히 사람들의 삶에서 두드러지는 사건과 경험을 의미한다
,”233)

다음은 제주방언에 나타난 은유적 표현들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94ㄱ) ㉠ 가름도세기 웨어분 우리 서방: 마을 이곳저곳을 정처 없이 휘저어 다
니는 우리 남편
- ㉡ 베베짜흐다 : 배를 내밀며 덤비다
 - ㉢ 테역 이불 잘 덮어주라 : 무덤을 잘 만들어 달라
 - ㉣ 쓸 주언 체 봐꽂저 : 많은 손해를 봤다
 - ㉤ 이 시 저 시 흐엌수다게 : 임종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 ㉥ 가이마씀? 말은 으구리 똥은 싸구리 : 그 애 말입니까? 말은 그럴듯
해도 행동은 멍탕이다 (언행의 차이)
 - ㉦ 으보록 스보록 : 절약 등 약은 마음의 행동
 - ㉧ 허천바레당 푸더진다이 : 매사에 주의하라는 은유
 - ㉨ 개가 똥을 춤주 : 인내력을 믿지 못하겠다는 의미
 - ㉩ 버버작작 우리 삼춘 : 버벅대거나 언행의 뒤섞임을 은유

(94ㄱ)은 제주방언에 나타난 은유적 표현들의 예이다.

5. 기타 특성

제주방언에 나타난 기타 특성으로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이 다른 곳에 사는 사
람들의 언어 분화는 물론이고 인지능력이 다르며, 중세국어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
는 고어들이 많이 남아 있다. 또한 반복어와 흥내말이 많고, 다른 지역보다 몽골어
차용이 많고 한자어가 많이 쓰이는 등의 특성이 있다.

232) 이정화·우수성·손수진·이진희 공역 (2003), 「은유」, 한국문화사, p.46 인용.

233) 이정화·우수성·손수진·이진희 공역 (2003), 「은유」, 한국문화사, p.345 인용.

먼저 제주방언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이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의 언어 분화는 물론이고 인지능력이 다르다.

김석익(金錫翼)의 「탐라기년」에 따르면, 우도(牛島)와 가파도(加波島)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1842년의 일이다. 백성들이 우도와 가파도에 들어가 농사짓는 것을 허락하였는데, 이보다 먼저 우도에 말을 풀어놓고 가파도에는 소를 방목하여 공진에 대비할 것을 계청하였다. 마소를 인근 목장으로 내몰고 백성으로 하여금 농사짓고 사복시에 세금을 납부하게 하였다.²³⁴⁾ 이것으로 보아 우도와 가파도에 사람이 살기 이전의 상황이 잘 나타나 있다. 160여 년 전에 ‘큰섬’ 제주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작은섬’에서 농경사회를 이루어 생활을 시작했다면 ‘작은섬’의 언어가 형성된 것은 그리 오래 전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섬’의 언어는 바다라는 자연조건을 사이에 두고 ‘큰섬’과는 다른 방언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김순자(2020)의 「제주도 방언의 언어지리」에 나온 <‘큰섬’과 ‘작은섬’의 분화 양상>²³⁵⁾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19> 김순자(2020), ‘큰섬’과 ‘작은섬’의 분화 양상

조사 항목	큰섬	우도	비양도	가파도
매듭단추	별믄작, 믄작단추, 못인단추, 돌마기, 돌매기	별믄작	돌매기	속곳퀘, 속곳믄작
꿈개	섬비, 섬피, 솔피, 꼬설퀴, 꼬서퀴, 꼬설퀴	푸지게	섬비	솔기, 꼬슴솔기
상여꾼	상뒤꾼, 상예꾼, 행상꾼, 운상꾼, 동네꾼, 역스꾼, 제꾼	행상꾼, 역스꾼	유대근, 상두꾼	운상꾼, 역부
팔꿈치	폴고비, 폴꿈치	폴고비	폴꼭지	폴꿈치
코맹맹이	코마구리, 코막쟁이, 코막사니, 코막세기, 코막쉬	코마구리	코맹쟁이	코매기
코흘리개	코흘체기, 코흘찌기, 코폴레기, 코필레기	코흘찌기	코폴레	코흘레기
찰흙	촌후, 촌후, 촌낙	촌역	촌혁	촌학

234) 김석익(1918), 「탐라기년」 보성사, p106 인용.

235) 김순자(2020), 「제주도 방언의 언어지리」, 각, p.266 인용.

잠자리	밥자리, 밥주어리, 밥부리, 존자리, 물자리, 산태	잘	밥부리	밥자리
장구벌레	잘굴레비, 장쿨레비, 고노리, 고누리, 경베리	물증성	장쿨레비	장굴레비
모이주머니	멀턱, 멀터거니, 멀터갱이, 물터거니, 물테강이	멍텅구리	먹통	멍텅거리
도마뱀	독다귀, 독다구리, 장쿨레비, 장칼레비, 장쿨레비	장쿨레비	독달귀	독달기
소라	구쟁기, 구쟁이, 구제기	고동	구쟁기	구제기
개똥참외	갈자귀, 갈제귀, 갈장귀, 간절귀, 간잘귀, 간절기, 간절미, 간잘미, 간절레기	반잘귀, 간잘귀	갈자귀, 갈가구	간잘귀
새품	미뻬쟁이, 미뻬쟁이, 미구쟁이, 미우쟁이, 어욱고장	어욱뻬이	어욱꽃	어욱뻬이
제비꽃	물싸움고장, 물코장, 아진베기, 아진베기꽃	쫄게풀, 쫄게꽃		아진베기쿨
도사리다	복쉬테우다, 사리다, 웨사리다, 스리다, 스려앗다	양반청앗다 양반치다	양반다리훅다	사려앗다 복쉬테우다
베따다	베카다, 베칼르다, 베브르다, 베볼르다, 베르싸다, 페쓰다, 베벨르다	등타다 등탕페쓰다	베카다	베카다

결론적으로 ‘큰섬’과 ‘작은섬’의 언어 분화가 다른 경우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이 다른 데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환경이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의 언어 분화는 물론이고 인지능력이 다를 수밖에 없음을 입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둘째, 앞에서 살펴본 문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주방언에서는 지금은 사라진 중세국어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고어(古語)들이 많이 남아 있다. 특히 ‘아래아(·)’가 남아 있는 어휘들이 많기 때문에 제주방언은 고어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된다.

셋째, 제주방언은 반복어와 흉내말이 많다. 같은 말을 거듭 반복함으로써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는 어휘들이 아주 많다. 반복 표현은 주로 의성어나 의태어에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 이는 흉내 대상의 다채로움을 보다 생동감 있게 표현하거나, 혹은 감정 상태를 격하게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고 있다. 또한 제주방언 ‘-훅다’, ‘-거리다’, ‘-대다’는 흉내말과 결합하여 새로운 말을 만드는 예가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제주방언 ‘-ㅎ다’, ‘-거리다’, ‘-대다’가 갖는 의미 외에 반복의 의미를 더 가지고 있어, 흉내형식의 의미가 동작성인지 상태성인지에 관계없이 흉내말과 결합하여 반복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제주방언에는 다른 지역보다 몽골어 차용이 많고 한자어가 많이 쓰인다. 많은 선비가 유배나 제주에 부임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미루어 짐작하는 바지만, 이는 제주방언에 선비 문화가 많이 반영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골총, 구기, 구냥, 서답, 송시, 테물’ 등이 ‘고총(古塚), 구구(九九), 궁흉(窮凶), 세답(洗踏), 흉사(凶事), 흉악(凶惡), 퇴물(退物)’ 등이 한자어 또는 한자음에서 온 어휘라 했다. 또한 제주도와 몽골은 사신을 파견할 때 제주 성주를 동행하게 한 1266년부터 고려에 귀속되는 1367년까지 100년 동안 관계를 맺는다. 3대에 해당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몽골어가 제주어의 한 켠을 이루고 있음은 당연한 일이다. 예를 들면 ‘가달머리’는 ‘가달’의 낮은말로 ‘가닥’과 같은 뜻이며, ‘가달춤’은 ‘가달’의 ‘아이들이 뛰 어다니며 심하게 하는 지나친 놀이를 알잡아 일컫는 말이다. 여기서 ‘가달’은 몽골어 차용어로 ‘하자갈(qajagar)’에서 온 말이다. ‘하자갈’에서 ‘ㅎ’과 ‘ㄱ’은 서로 넘나 든다. ‘징기스칸’ 하는 사람도 있고, ‘징기스한’ 하는 사람도 있다. ‘징기스칸’이든 ‘징기스한’이든 같은 사람이니 ‘하자갈’이 ‘가달’이 됨은 자연스럽다. 또한 ‘우룩 맞추다’도 ‘우룩’에 ‘맞추다’가 연결되어 쓰이는데, ‘날짐승 암수가 서로 소리 질러 부르고 응하다’ 하는 뜻을 지닌다. 이 ‘우룩’은 《몽어유해》의 親 아버지 우룩(urug)에서 확인할 수 있다.

V. 결론

이 연구는 제주방언에 나타난 감정의 유형을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사랑’, ‘미움’, ‘놀라움’ 등 7가지로 분류하고, 각 분류에 해당하는 하위 범주로 분류하여 제주방언 감정 표현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은 제주방언 감정 표현이고, 이러한 감정 표현을 분류하고 유형화하기 위해 제주어 사전을 (ㄱ)~(ㅎ) 까지 면밀히 조사하여 검토하였다. 조사한 자료는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2007)」에서 감정 단어를 추출하여 기본 감정에 따른 하위 범주로 분류하고, 이를 품사별로 분류하였다. 또한 제주방언 감정 표현의 용례들을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해 「제주어용례사전 I(양전형, 2020)」, 「제주어용례사전 II(양전형, 2021)」, 「제주어용례사전 III(양전형, 2022)」, 「제주어구술자료집(1~28)」에서 예문을 추출하였고, 부족한 부분은 문헌, 설화, 민속, 무가, 전설, 민요 등 참고로 하였다. 이때 제주방언 표기는 「제주어용례사전 I II III」, 「제주어구술자료집(1~28)」에 실린 인용문으로 ‘제주어 표기법’에 따른 것이고, 다만 수록되어 있지 않은 인용문은 제주어 표기법에 맞게 실제 언중들이 사용하는 예로 들면서 제주방언 감정 표현에 나타난 언어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며 사용되어지는 제주방언의 어감이 투박하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제주도라는 섬의 환경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예로부터 척박한 땅이었고 제주도의 대표되는 돌과 바람 등 사물들도 한몫을 했다. 제주섬에 산재한 돌들은 딱딱하고, 거친 바람도 제주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다. 게다가 역사적으로 외부로부터의 수많은 침략과 수탈,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결국은 제주의 조상들이 심리적으로 온통 저항과 방어 의식이 강했을 터라 어투가 상쾌하지도 않고 아름다운 자연 친화나 생활 친화에서도 거리가 멀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제주방언의 감정언어는 더 격해지고 투박하고 딱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제주방언 감정 표현의 언어적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방언이 다른 지역의 방언과는 달리 투박하고 거친 분노 감정의 어휘가

가장 많았다. 그 이유는 외부와 철저히 격리된 섬이란 지형 조건과 환경의 차이도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외부로부터 수많은 침략과 수탈,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제주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온통 저항과 방어 의식이 강하다보니 어투가 더 격해지고 투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방언을 유심히 살펴보면 특히, 자음 ‘ㄱ, ㅌ, ㄲ, ㅎ’ 으로 시작되는 어휘들 중 거친 어휘가 아주 많다는 것이다. 또한 겹자음인 ‘ㄱ, ㅌ, ㅃ, ㅆ, ㅈ’ 으로 시작되는 어휘들 중에도 많은 편이며 제주방언에 접두사 ‘처-, ‘펴-, ‘판-, ‘헛-, ‘생-, ‘좃-, ‘좃어-, ‘좃-’ 등과 접미사 ‘-푸데’, ‘-토메기’, ‘-쟁이’, ‘-와리’, ‘-악사니’ 등이 붙으면 상대방을 나무라거나 얕잡는 부정적인 표현이 더 강해지고 내부 감정이 더 격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제주방언에는 한 어간의 어형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서 동의적 표현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주방언 감정언어에 유사한 어휘가 많다는 것은 마을마다 다른 어휘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다. 추정해 본 결과, 그 건 넓은 공간에서 상호 간 소통하게 만들어진 생활 공간이 아닌 협소한 작은 지역에서 일상생활이 많았기 때문이라 짐작된다. 또한 침략의 되풀이를 당한 제주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고도 보여지며 조상 대대로 자유롭고 넓게 활동할 수 없었던 어떤 강압이나 제약 때문에 필요한 언어들도 작은 마을별로도 언어를 만들어 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또한 제주방언에는 사람과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비하하고 나무라는 호칭이 아주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접미사 ‘-다리’, ‘-둥이’, ‘-쉬’, ‘-와리’, ‘-쟁이’가 붙으면 부정적인 감정과 관련되어 사람을 비하하거나 나무라는 표현이 아주 많았다. 또한 신체에 대한 표현에서도 사람의 머리(30개), 배(21개), 볼(16개), 겨드랑이(14개), 목(13개), 귀(10개), 엉덩이(10개), 손목(9개), 뺨(7개), 눈(5개), 입(5개), 코(3개), 발목(3개), 손(2개), 발(2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서 신체를 하대하고 얕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제주 사람들이 감정에서 유발되는 신체적인 체험을 근거로 하여 그것을 언어화하고 섬이라는 특성상 폐쇄성, 중앙 벼슬아치들의 유배지, 외세의 침략 등으로 사람에 대한 경시 풍조가 많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셋째, 제주방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휘들 중 표준어나 외래어가 제주어화 된 것을 제외하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제주방언은, 제주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이어져 오는 고유언어이다. 그때그때 소통의 필요에 맞춰 만들어진 창조언어라고 보며, 제주 속에서만 독립적으로 사용되어지며 오랫동안 전래되어 오고 있는 언어이다보니 다른 지방 사람들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독특하고 독창적인 언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서 문헌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조선 시대 제주를 방문한 사람들은 제주방언을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독창성의 언어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제주방언은 감정언어이든 일반언어이든 독특하다는 것이다. 국어학자들이 제주방언을 언어학적으로 형태를 분석하고 풀이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제주방언으로 소통하고 살아온 전통 제주인이 아니면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언어들이 상당히 많다. 바꿔 말하면 제주방언은 어느 외국의 언어처럼 생소하고 독특한 언어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제주방언은 말맛이 깊다. 그런 깊은 말맛은 제주방언으로 소통되고 이해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다. 표준어의 어떤 어휘를 가지고 제주방언으로 대체하여 소통할 때 화자나 청자가 느끼는 언어의 깊은 맛은 어떤 언어와는 견줄 수 없이 다르다는 것이다.

넷째, 제주방언은 시청각적 이미지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통 제주인들이 사용하는 제주방언을 유심히 살펴보면 많은 언어들이 그 형태나 행동이 눈에 보이는 듯하고 소리까지 느낄 수 있게 한다. 감정언어도 마찬가지로 뚜렷한 형태나 강한 시청각적 이미지를 동반하며 전달된다. 또한 제주방언에 나타난 은유적 표현은 상상적이고 창조적이다. 은유의 어휘들도 거의 제주 사람들의 경험과 관습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외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이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의 언어 분화는 물론이고 인지능력이 다르며, 지금은 사라진 중세국어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고어(古語)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아래아(·)’가 남아 있는 어휘들이 많기 때문에 제주방언은 고어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된다.

또한 제주방언은 반복어와 흉내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주방언은 같은 말을 거듭 반복함으로써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는 어휘들이 아주 많다는 것이다. 반복 표현은 주로 의성어나 의태어에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 이는 흉내 대상의 다채로움을 보다 생동감 있게 표현하거나, 혹은 감정 상태를 격하게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고 있다. 또한 제주방언 ‘-헛다’, ‘-거리다’, ‘-대다’는 흉내말과 결합하여 새로운 말을 만드는 예가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제주방언 ‘-헛다’, ‘-거리

다’, ‘-대다’가 갖는 의미 외에 반복의 의미를 더 가지고 있어, 흉내 형식의 의미가 동작성인지 상태성인지에 관계없이 흉내말과 결합하여 반복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주방언에는 다른 지역보다 몽골어 차용이 많고 한자어가 많이 쓰이는 것은 많은 선비가 유배나 제주에 부임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방언은 제주문화의 뿌리이며 혼(魂)이요, 제주사람들의 삶 자체가 깃들여 있는 소중한 언어이다. 어느 국가, 어느 지역에서도 상상해 낼 수 없는 생소하고 독특하면서도 말맛이 깊다. 절해고도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외세의 지배와 수탈을 겪으면서도 강인하게 살아온 제주 사람들의 역사가 오롯이 제주방언에 녹아있음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제주방언 감정 표현의 언어들을 연구하면서 여러 자료와 문헌들을 참고 하다보니, 제주방언을 모어로 습득하지 않은 사람들이 제주방언 자료만을 참고로 하여 연구해서인지 해석상의 미비한 점들도 간혹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감정 표현에 관한 언어적 지식을 풍부하게 하여, 제주방언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표준어와 제주방언의 감정 비교 연구의 첫 단계라고 본다. 위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대화할 때 주의 집중을 선행하고 필요한 감정을 적절하게 발화함으로써 표현이 제대로 전달되고 수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이 의사소통 과정에서 제주방언을 사용하는 언중들이 상황마다 어떤 유효적절한 감정언어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유효적절한 감정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다. 게다가 제주어 사전 분석을 통해 감정 단어의 목록을 구성하여 제주방언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단어별로 범주화하여 비슷한 범주의 어휘 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다의어’에 나타난 감정과 ‘침사’에 나타난 감정은 연구 방법이 일치하지 않아서 여기에서는 다루지 못했음을 밝혀 둔다.

앞으로, 제주방언이 소멸되지 않도록 전승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은 사용자들이 많아야 할 것이다. 제주방언 감정 표현의 유형에서 고찰했듯

이, 너무 소중한 언어인 제주방언이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전승되기 위해서는 제주 방언의 옛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노년층이 생존해 있는 기간 안에 방언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이 절실히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며 마무리한다.

<참고자료>

1. 단행본

- 강영봉(2017), 「말하는 제주어」, 한그루.
- 강영봉·김순자·김미진(2020), 「제주어 길라잡이」, 각.
- 고동호 외(2014), 「제주방언 연구의 어제와 내일」, 제주발전연구원.
- 고재환(2011), 「제주어개론(상, 하)」, 보고서.
- _____ (2017), 「제주어 나들이」, 보고서.
- 김영돈·현용준·현길언(1985), 「제주설화집성(1)」, 한일인쇄사.
- 김향숙(2003), 「한국어 감정 표현 관용어 연구」, 한국문화사.
- 나찬연(2018), 「쉽게 읽는 석보상절6」, 경진출판.
- _____ (2019), 「쉽게 읽는 석보상절13」, 경진출판.
- _____ (2019), 「쉽게 읽는 석보상절19」, 경진출판.
- 남성우(2008), 「역주 월인석보 (제19)」,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문순덕(2003), 「제주방언 문법연구」, 세림.
- _____ (2014), 「제주방언의 그 맛과 멋」, 보고서.
- 송상조(2007), 「제주말 큰사전」, 한국문화사.
- 양전형(2020), 「제주어용례사전Ⅰ」, 열린출판.
- _____ (2021), 「제주어용례사전Ⅱ」, 도서출판 글앗.
- _____ (2022), 「제주어용례사전Ⅲ」, 도서출판 글앗.
- _____ (2021), (사)제주어보존회 심화교육과정, 제주어 문학과 용례연구.
- 유학영(2017), 「하나의 달 일천 강에 비추다(月印千江之曲 해설)」, (주)미래엔
부설 교과서연구소.
- 윤석민·유승섭·권면주(2006), 「쉽게 읽는 용비어천가Ⅱ」, 박이정.
- 이정화·우수정·손수진·이진희 공역(2003), 「은유」, 한국문화사.
- 이훈구 외(2003), 「정서 심리학」, 법문사.
- 임지룡(2006), 「말하는 몸- 감정 표현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
- 전경수 외(2013), 「탐라사의 재해석」,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2014), 「제주어 표기법 해설」, 일신옵셋인쇄사.
 제주특별자치도(2009), 「제주어사전(개정증보)」, 일신옵셋인쇄사.
 제주특별자치도·제주학연구센터(2017·2018·2019), 제주어구술자료집(1~28),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한재영(2008), 「역주 월인석보 (제22)」,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현평효·강영봉 편저(2014), 「표준어로 찾아보는 제주어 사전」, 도서출판 각.

2. 학위 논문 및 학술지

강정희(2012), 「소멸 위기의 제주방언 보전을 위한 방언 활성화 방안」, 영주어
 문 제23집.
 광새봄(2018), 「제주방언에 대한 제주방언 화자 및 방언 화자의 내·외적 언어
 태도 분석」,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남(2012), 「한국어와 중국어의 감정 표현 의태어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권순영(2005), 「한국어 감정 관련 관용 표현의 수업지도 방안」,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김선희(1990), 「감정 동사에 관한 고찰」, 한글학회.
 김은영(2004), 「국어 감정 동사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김주연(2007), 「감정 관련 언어의 표현 양상 - 「화(怒)」를 중심으로」 『日語
 日文學研究』 第60輯 韓國日語日文學會.
 김향숙(2001), 「한국어 감정 표현 관용어 연구」, 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
 학원.
 김해미(2018), 「감정 동사의 정도성 연구-슬픔 감정을 대상으로」, 한국언어문
 화학회, 한국언어문화 67권.
 문갑순(2006), 「제주방언 부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문금현(2012), 「한국어 감정 표현 어휘에 대한 말하기 교육」. 시학과 언어학
 회.
 문순덕(1999), 「제주방언의 부정 표현 연구」, 박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

원.

문순덕·김원보(2018), 「제주방언 감정 표현 감탄사의 담화 기능」, 교육과학연구, 제20권 제2호.

박권생(2003), 「감정심리학」, 학지사.

박미숙 외(2012), 「한국어 감정표현단어의 추출과 범주화」, 감성과학, 15(1).

신우봉(2015), 「제주방언 평서문과 의문문에 나타나는 억양 연구」, 영주어문 31, 영주어문학회.

_____ (2016), 「제주방언 정도부사 연구: 목록과 분류를 중심으로」, 영주어문 34, 영주어문학회.

_____ (2019), 「발화 형식에 따른 제주방언의 운율 연구」, 영주어문 41, 영주어문학회.

양용준(2019), 「제주방언의 담화 표지어 ‘양’에 대한 연구」, 언어과학회.

양창용·김원보(2011), 「제주어 ‘게’의 담화적 기능에 대한 고찰」, 교육과학 기술부.

이지영(2009), 「한국어 교육을 위한 감정 표현 연구」, 한국어 의미학.

임지룡(1999), 「감정의 생리적 반응에 대한 언어화 양상」, 담화와 인지 제6권 2호, 담화와 인지학회.

조은진·전형연(2020), 「내러티브에서 나타나는 등장인물의 감정 분류에 관한 연구」 영상문화 제37호.

최석재(2012), 「어휘의 부류와 감정 표현 관용구의 의미」, 한국어학회, 통권 제55호.

하홍규(2017), 「분노(怒)」 표현의 단계와 정도성에 관한 고찰-한·일 양국어의 신체 어휘 관용구를 중심으로-日本語教育研究 第38輯.

황건훈(2017), 「한국어 감정 표현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Abstract>

A Study on the Types of Emotional Expression in Jeju dialect

Kim Sin Ja

Jeju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Academic advisor Choi Dae 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argely classify the types of emotions shown in the Jeju dialect, and to categorize the expression of emotions in the Jeju dialect by dividing this classification into subcategories. For this purpose, the Jeju Dictionary was carefully investigated and reviewed from beginning to end, and the used references include 「Revised Jeju Language Dictionary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2009)」, 「Jeju Language Big Dictionary (Song Sang-jo, 2007)」, 「Jeju Language Examples Dictionary I」 by Yang Jeon-hyung(2020), 「Jeju Language Examples Dictionary II」 by Yang Jeon-hyung(2021), 「Jeju Language Examples Dictionary III」 by Yang Jeon-hyung(2022) and 「Jeju language Oral Data Collection(1~28)」. The discussion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e categorized the types of dialects in Jeju. We categorized the emotional types into seven categories: 'joy', 'sadness', 'anger', 'fear', 'love', 'hatred', and 'surprise', and then put these types into lower categories. For example, we divided joy into 'pleasure, excited, satisfaction, impression, comfort, confidence, hope, welcome, and coolness.' After this classification, type of emotion was classified by part of speech, and the corresponding words and examples were discussed.

Next, we examined the linguistic characteristics of emotional expression of Jeju dialect that were revealed through discussion of Jeju dialect emotion

type. To summarize briefly, the following: First of all, Jeju dialects, unlike other regional dialects, had the most vocabulary of rough and tough anger.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island is completely isolated from the outside, and there are characteristics of the topography and environment, but it has been historically invaded, exploited, and ruled by the outside, so Jeju people have a strong sense of resistance and defense. Second, Jeju dialects have many forms of one language and expressions of agreement. The fact that there are many vocabularies similar to Jeju dialect emotional language is proof that different villages use many different vocabularies. As a result of estimating, it was assumed that it was because there were many daily lives in a small area, not in a large space of living space. Third, the Jeju dialect, which is currently used except for Jeju's standard and foreign words, was used independently in Jeju and contained a unique and original language that people in other regions could not understand because it was introduced for a long time. Fourth, Jeju dialect has a strong audiovisual image, and metaphorical expressions are often clearly expressed. If you look closely at the Jeju dialect used by Jeju people, you can see the shape and behavior of many languages and even feel the sound. In addition, Jeju dialect is a valuable resource for researching ancient languages because there are many old words that can find traces of medieval Korean that have disappeared, and many vocabulary words that have 'a-rae-a(·)' left. It can also be seen that Jeju dialect has many repetitive words and imitations. Jeju dialect has many vocabulary words that express emotions strongly by repeating the same words over and over again. Repeated expressions are one of the main characteristics of onomatopoeia and mimetic word, which is often used to express imitations more variously or to express emotional states more vigorously. In addition, the use of Mongolian language in Jeju dialect is more common than in other regions, and the use of Chinese characters is related to the exile of many scholars or the transfer to Jeju.

In summary, this study will not only help you understand how to express emotions in Jeju dialect, but will also be the first step in comparing emotions between, South Korean standard language and Jeju dialects. Based on the above contents, it is to focus attention when talking and to properly speak the necessary emotions so that the expression is properly delivered and accepted. It also enables the use of effective and appropriate emotional language in each situation. Furthermore, it can be used as a basic material for Jeju dialect education by compiling a list of emotional words through a preliminary analysis of Jeju language, and it can be categorized into words to help vocabulary education in similar categories.

* Keywords: Jeju dialect, emotional expression, type, linguistic characteristics, emotional language